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
"유·무형 불교문화 사랑
보현행원으로 회향"
16·17면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1월 6일)·주간

제978호 2014년 2월 5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장부경전〉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하라.
오직 열반을 향해 나아가라.

장학금·지원금부터 해외 성지순례까지 승가대학 입학 특전 '눈길'

강원

2014년 신학기를 맞는 조계종 승가대학들의 학인 스님 모시기 경쟁이 치열하다.

각종 장학혜택은 물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아이패드를 지급하거나 해외 탐방 지원, 상급 학교 진학 등 특전을 앞 다퉈 제시하고 있다.

해인사 승가대학의 경우 졸업생에게 중국 청화대와 일본 하나조노 대학원으로 입학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대만의 법고불교대학, 스리랑카 켈레니아대학과도 학술교류를 체결해 관련 국가 불교를 접할 수 있다.

동화사 승가대학은 성덕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 사회복지과에 입학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학인 스님들에게 교육비를 지급하며 해외성지순례를 지원한다.

조계종 승가대학·대학원
신·편입 학인 모집 경쟁

출가자 감소가 큰 원인
대학 유지 조건도 한 몫
교육 환경 조성에 역할

쌍계사 승가대학은 전 학년에 교재 무상 지급하고 미국 원어민 강사를 상주시켜 매일 아침 영어회화를 강의하도록 했다.

범어사 승가대학은 입학하는 학인 스님에게 아이패드 및 전자책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불국사 승가대학은 원할한 교육을 위해 학인 스님들의 울력을 최소화한 것은 물론, 매월 보시금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엄사 승가대학의 특전도 눈길을 끈다. 매월 승려복지 지원금 30만원 및 기타 장학금 지급하며 매월 1박 2일 현장 체험 학습을 실시한다. 사회복지사 2급 및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대학 등록금 500만 원 전액과 졸업여행 경비 100만 원 지원을 약속했다.

최근 원서접수를 마감한 비구니 승가대학들도 다양한 특전을 제시했다.

봉녕사 승가학원의 경우 묘엄불교문화재단의 장학금 혜택이 제공되며 4년 간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 강의를 이수한 학인 스님에게는 세주불교문화원 수료증을 수여한다.

아이패드를 제공하며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자랑하는 청암사 승가대학도 구미 대학에 위탁해 사회복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태극권, 탁구 등 특화 교육도 시행한다.

동학사 승가대학은 신입생들의 입학금을 면제해주고, 전 학년에 교재를 제공한다. 전문 승가대학원들 역시 연구비 지원과 조교수 자격 부여 등 특전들을 제공한다.

법주사 선학승가대학원은 매월 연구비를 비롯해 연구 논문비, 해외 유학비(졸업 시)를 지원하며, 연 1회 해외 수선종사찰 탐방도 이뤄진다. 최근 전문 승가대학원의 전환된 삼선불학승가대학원은 교재 제공과 각종 장학 혜택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이 전국 승가대학과 승가대학원들이 특전을 제공하면서까지 신·편입생들을 모집하는 것은 출가자 감소로 학인 스님들의 수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승가대학 운영령이 2009년 전면 개정됨에 따라 낙후되거나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기관들은 인가를 취소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불가피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계종 승가대학령에 제52조에 따르면 △2년 간 학년별 정원 5인 미만인 경우 △2년 간 학인 정원 20인 미만인 경우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1년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조계종 교육국장 가섭 스님은 "학인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가대학들도 제대로 운영하려면 교육환경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면서 "과다 경쟁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교육 환경의 질적 성장을 이뤄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교육원은 '승가대학령'에 맞춰 학인 스님들이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교육기관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자성과 쇄신결사 추진본부는 1월 2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결사 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참여 대중들이 발원문을 봉독하고 있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3년 맞은 결사 "붓다로 살자" 발원

결사본부, 27일 결사 3주년 기념법회 봉행

올해 3주년을 맞은 조계종 자성과 쇄신결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법회가 열렸다.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는 1월 27일 서울 종로 조계사 대웅전에서 '자성과 쇄신 결사 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치사에서 34대 집행부에서 진행되는 결사의 기조와 실천 의지를 발표했다.

자승 스님은 "2011년 1월 종단은 자성과 쇄신 결사를 선언하고 민족문화수호 활동을 시작했다"면서 "처음 결사를 제안할 당시 형식만으로 흐르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지속성 여부에 대해 일부의 우려와 불신이 있었지만, 각종 쇄신입법과 법계직무제도 등 여러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고 자평했다.

스님은 "34대 집행부에서도 결사는 '사찰과 함께 사회 속으로'라는 확고한 기조로 실현해 나갈 것이며, '붓다로 살자'라는 실천 의지를 통해 결사본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사본부장 도법 스님도 '붓다로 살자' 운동이 결사의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될 것임을 기대했다.

도법 스님은 "누군가가 결사 3년의 최대 성과를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 서슴없이 '붓다로 살자'라는 옥동자를 탄생시킨 것"이라면서 "'붓다로 살자'라는 새싹을 잘 가꾸어 내기만 하면 분명히 한국불교는 희망찰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3년은 황무지를 개간하고 씨 뿌리는 시기였다면 오늘부터 새싹을 거목으로 가꾸는 막중한 일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참석 사부대중은 발원문을 통해 붓다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법회 참석 대중은 "중생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겨 한 생명 빠짐없이 평화와 행복의 길로 이끌었던 붓다의 고귀한 삶과 정신을 따라 지금 여기서 거룩한 붓다로 살겠다"면서 "우리 모두가 붓다임을 한시도 잊지 않으며, 온 생명이 생명평화공동체가 되는 그날까지 붓다로 살기 위해 쉼 없이 정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결사본부장 도법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과 일반직 종무원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관련기사 2면〉

신중일 기자

'삼국유사' 목판 복원된다

일연 스님이 저술한 〈삼국유사〉 목판이 복원된다.

경북 군위군(군수 장욱)은 18억 예산을 들여 2016년까지 삼국유사 목판 복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월 26일 밝혔다. 〈삼국유사〉는 일연 스님이 고려 충렬왕 때 군위 인각사에서 편찬했다. 정덕본·송은본 등 여러 판본이 전해지고 있지만 정작 목판은 남아있지 않다.

군위군은 국보 제306-1호 송은본 등 현존하는 인쇄본 가운데 상태가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해 이를 바탕으로 목판을 복원할 계획이다.

군위군은 "〈삼국유사〉 목판복원 사업은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통문화 계승·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새 종책모임 '원융회' 창립

舊 무량회 장명 스님 등 종회의원 4명 이탈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 이후 노선 갈등을 빚었던 종책모임 舊 무량회가 결국 분리됐다.

舊 무량회 소속 종회의원인 장명, 법보, 태연, 도정 스님은 1월 26일 "새 종책모임인 '원융회'를 창립한다"고 밝혔다. 회장은 장명 스님이, 종책위원장은 도정 스님이 맡기로 했다.

회장 장명 스님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26일자로 창립 선언을 했고, 종회의장 향적 스님도 심적인 동의는 했다"면서 "4명으로 시작하지만 문호는 열어놓았다. 본 모임과 뜻을 함께 하는 대중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舊 무량회에서 분리한 이유가 선거 이후 노선 갈등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장명 스님은 "선거가 끝나고 야당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었고, 위축된 부분도 없지 않았다"면서 "현 집행부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격려하는 것은 맞지만 야당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비판과 견제이다. 건전한 비판과 견제가 이뤄지기 위해서 새 종책 모임을 출범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융회의 창립으로 3자연대의 통합 가능성은 높아졌다. 원융회는 설 연휴 직후 간담회를 열고 통합적 협의체 구성이나 긴밀한 연대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장명 스님은 "3자연대 내에서 통합적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긴밀한 연대를 추진하는 방안을 설 연휴 이후 간담회 등을 열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978호 INDEX

연중기획-탐·진·치 줄이기 5
정토회, 혜거 스님, 배광식 교수

종합 2·3
BBS 부처님 말씀 시즌2 인기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 회의
군종특별교구 첫 수계법회

학술·문화재 9
원측 스님 탄신 1400주년 학술대회

新 불교건축 13
안성 도피안사

신행 6
다문화 템플스테이 음악여행

해외 18
다보스 포럼, '마음·몸' 조화 주력



聖鐘社 SUNG JONG SA

성종사, 대만 최대 불광산사 범종 수출!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사찰인
불광산사 범종을 수주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대만 최대 규모인 6,700관(25.5ton)으로 제작된 본 범종은 성종사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되어 표면과 문양이 매우 매끄럽고 섬세할 뿐만 아니라,
음향측정 결과에서도 소리가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하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불광산사 범종 (중량 6700관)

聖鐘社

● 전시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대 표 : 범산 원광식(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대한민국 명장)



지금 우리 절에서는 – 서울 강남 봉은사



서울 강남 포교1번지 봉은사의 전경.

강남포교 1번지, 자비나눔 1번지

봉은사, 중창불사와 함께 인재불사에도 나서

794년에 창건된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원학)는 재적 신도만 15만여 명이 넘는 서울 도심의 대표적 사찰이다.

최근 신임주지 원학 스님 취임을 계기로 봉은사는 내실을 다시는 한편 필리핀 태풍피해 돕기에 나서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봉은사는 '자비의 동전나누기' 행사를 통해 동전을 모아 지역아동센터 및 소외계층 등에 전달해왔다. 2013년에는 2000만원을 모아 필리핀 태풍 피해 돕기에 사용했다.

새해에는 봉은사는 다양한 기도법회를 마련해 기도하는 사찰, 수행하는 사찰로 거듭날 계획이다. 먼저 '절기로 시작하는 가내길상 발원' 입춘기도를 시작으로 동안거 관음기도, 관세음보살 42대원성취 천수다라니 기도, 학업원만성취 100일 관음기도, 자신을 돌아보는 자비도량참법기도 등을 진행한다. 학업성취기도 동참자를 모아 4월 경에는 적멸보궁 태백산 정암사와 사자산 법흥사를 찾을 계획이다. 각 법회마다 모인 기금은 자비나눔 기금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봉은사의 이러한 행보는 재정공개 등을 통한 투명한 운영으로 신도들의 동참이 활발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봉은사는 신도들의 봉사 및 신행 조직인 연등조직이 30여개 구성돼있다. 필리핀 태풍 피해 돕기에는 봉은사 신도회가 사찰측과 함께 자체적으로 모은 기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봉은사 신도회는 1월 18일 최정수 現신도회장을 재선출하고 신도회를 새롭게 출발시켰다.

봉은사는 이러한 신도들의 결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2013년 서울시와 도시공원 지정에 따른 규제를 푸는 조례를 만들어 숨통을 튼 상황. 이런 불사에 앞서 중요한 것은 봉은사 앞에 개통 예정인 9호선 역 지정. 봉은사는 9호선 개통을 앞두고 '봉은사역' 제정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봉은사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 봉은사가람정비 및 전통문화재창조사업을 진행하여 도심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봉은사 2~3월 캘린더

2월 4일까지	'절기로 시작하는 가내길상 발원' 입춘 3일 기도 회향
2월 8일까지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정초산림 7일기도
2월 14일	동안거 해제 및 동안거 관음기도
2월 15일	관음보살 42대원 성취 천수다라니 야간기도
2월 18일	정월 방생법회
2월 24일	관음보살 42대원 성취 천수다라니 주간기도
3월 7일	연화대학 개강
3월 11일	사찰음식 강좌 개강(향적원)
3월 12일	53기 불교대학 개강
3월 14일	6기 불교아카데미 개강
3월 8~15일	출가열반재일 법회 및 8일 정진기도
3월 17일	1차 학업원만성취 100일 관음기도 입재
3월 15일	관음보살 42대원 성취 천수다라니 야간기도
3월 24일	관음보살 42대원 성취 천수다라니 주간기도

결사 대중화 선언… 공감대 확보가 관건

3년 맞은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 성과와 과제



2012년 8월 열린 노동자와 함께하는 무차대회.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는 사회 현안에 대한 대승불교적 접근이라는 성과를 가져왔지만, 결사 주체 역량의 조직화는 실패했다.

조계종의 종단 내외 변화 운동인 '자성과 쇄신 결사' 가 올해로 3주년을 맞았다. 국회 예산 날치기 통과로 정부와 냉전 중인 상황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011년 1월 26일 '범종단적 자성과 쇄신 결사' 를 제안했다.

이후 종단 조직 내에 결사본부를 만들고 본부장으로는 도법 스님을 모셨으며, 수행 · 문화 · 생명 · 나눔 · 평화의 '5대 결사' 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운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결사 운동은 '위로부터의 개혁' 이라는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역점적으로 추진한 종교평화선언은 '열린 종교관' 논쟁만을 불러일으킨 채 성사되지 못했다. 2012년 발생한 '승려 도박 사태' 에서는 종단 쇄신위원회를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면서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나마 사회의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무차대회와 야단법석 등 종단 안팎의 대화의 장을 가져왔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에 대해 자성과쇄신결사본부 총괄부장 덕산 스님은 1월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결사를 통해 종단 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해 대승불교와 화쟁의 입장에서 접근한 것이 의미가 크다"면서 "결사자문위원회와 종단쇄신위원회의 청규제정과 의식개혁운동 제안과 종단쇄신안 마련의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본래 결사 운동 이외에도 화쟁위, 쇄신위와 종평위, 민추본 등의 사업을 병행해 운동 진행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면서 "또한 결사 대중의 조직화와 주체 역량의 결집에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제34대 집행부의 시작과 3주년을 함께 맞은 자성과 쇄신 결사가 역점적으로 진행하려 하는 부분도 결사의 대중화이다. 결사본부 만의 결사가 아닌 각급 종무기관과 사찰, 신도 등 사부대중을 결사의 주체로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결사추진본부는 올해 사업 기조를 '사찰과 함께, 사회 속으로' 로 정했으며, '붓다로 살자' 라는 대중 운동을 전개한다. 불자 개개인과 스님, 사찰이 자발적으로 수행과 보살행을 서원하고 실천하자는 의식개혁 운동인 '붓다로 살자' 는 상반기에 직영사찰 등을 중심으로 결사 도량을 지정하고 활동할 방침이다.

'붓다로 살자' 를 실천의지로
화쟁순례, 종교평화선언 추진

'위로부터 개혁' 탈피 위해
사부대중을 운동 주체로 유도
공감 · 세부 방법론 제시 필요

덕산 스님은 "주 1회 '붓다로 살자' 걷기 명상, 서원 동참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연수 교육, 신도 교육과 사찰 등의 각종 법회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 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에는 '한반도 생명평화 공동체를 위한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 가 시작된다. 전국 각지를 순례하며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결사 대중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불교계 각 단체들이 참여해 공동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2월 20일 선언식을 개최하고 3월 3일에는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에서 천고제를 봉행할 예정이다.

논란을 빚었던 '종교평화선언' 은 재추진된다. 5월에 종교평화선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종정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종정스님의 증명을 거쳐 9월에 발표한다는 것이 결사본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구체적 사업 방안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대중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지는 미지수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 기조와 실천 의지만으로 사부대중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불교생명윤리협회 대표 법응 스님은 "구호와 깃발만을 세우는 자세에서 벗어나 상층부부터 내용적으로 자성과 쇄신에 솔선수범해서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 내야 한다"면서 "시급한 것은 진행 주체의 어설픈 결론과 행동 이전에 우리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진단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무관심한 대중에 대한 비판도 제시됐다. 조성택 고려대 교수는 " '붓다로 살자' 는 이 시대의 새로운 불타관"이라고 평가하면서 "불자 지식인들의 결사 운동 동참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결사 운동에 대한 무관심은 스님들의 범계행위보다 더 불교를 좀먹는 일"이라면서 "반대 의견을 내놓는 것도 한국불교를 바로 세울 결사 운동의 동참이다. 사부대중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문화재 보수 시 사찰 자부담 '폐지' 해야"

조계종 본사주지협 23일 회의
문화재 제도 개선 '한 목소리'
총무원에 책임있는 역할 당부
"오는 3월 중 관계기관 협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1월 23일 송광사에서 제31차 회의를 개최했다.

문화재 보수 시 사찰의 자부담을 없애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총무원도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돈관)는 1월 23일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제31차 회의를 갖고 문화재관련 국고보조금에 대해 강력히 대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종단 차원의 대책도 요구했다.

이날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종단의 중요 현안인 감사원의 문화재 보수실태 감사와 관련해 1시간 가깝게 토론했다. 특히 문화재 보수 시 전체 예산 중 사찰이 일정액을 부담하는 '자부담' 과, 관급공사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찰 자부담에 대해 한 스님은 "자부담 때문에 사찰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없애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주지 스님도 "감사원도 사찰 자부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총무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문화재 보수 환경과 제도 법령 간의 괴리에 대해서도 불만이 쏟아졌다. 회의 참가한 한 주지 스님은 "관 주도의 보수 공사는 사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문화재를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다"면서 "문화재 보수에 쓸 목재를 건조시킬 시간도 부족한 데 늦어지면 지체부담을 물린다. 매우 불합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스님은 "공사 후 하자가 있어 업자를 불러도 회사가 없어졌다며 오지 않는다"며 "관급공사는 120% 부실공사다. 정부의 논리에 빠져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문화부장 혜일스님은 "검찰과 경찰의 조사는 중지됐지만 감사원의 감사는 계속되고 있다. 3, 4월 중 한번 더 감사를 하고 5월께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찰의 자부담을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3월 중 문화재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문화부에 실무진 2명을 채용해 문화재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스님들의 의견에 최대한 흡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14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안내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대학이 아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학점은행제를 도입하여 불교의식과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 과 과 정

학 과		교수요목	요 일	시 간	교 수
1학년	상주권공 I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월	오후 1시 ~ 7시	조인각
2학년	상주권공 II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수	오후 1시 ~ 7시	이기봉
3학년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 1시 ~ 7시	*
4학년	영 산	영산과정	금	오후 1시 ~ 7시	마일운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화	오후 1시 ~ 4시	심만춘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무용과)등 일반인
◈학점은행제과정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 학점은행제 타 기관 수강자
◈편 입 학 과 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학점은행제과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최종학력졸업(예정)증 1부
주민등록등본 1분, 반명함판 사진 3매

■ 전형일정 : 2014년 1월 20일 ~ 2월 28일
■ 전 형 료 : 50,000원
■ 원서교부 및 인터넷 접수처 :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접수
■ 합격자발표 :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특 전
1. 재학생 중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수료시 종단이 실시하는 습의교육 및 합동득도 수계산림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
2.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 수료 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응시 자격을 부여
단, 입학시 승려에 한하며 재학중 출가자는 제외.
3.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4.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선발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장 최원허 합장**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내 Tel 02)392-3234, Fax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불전언어, 유식 등 조계종 교수아사리 선발

조계종의 2014년 신규 교육아사리 7명의 스님이 선발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2014년 교육아사리에 여연, 현진, 부호(이상 비구), 선일, 현견, 형운, 자목 스님(이상 비구니) 등 7명의 스님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으로 조계종 교육아사리는 총 34명이 됐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교수아사리 모집에는 비구 스님 5명, 비구니 스님 5명 등 총 10명이 지원했으며, 교육아사리 심사위원회와 교육원 회의를 거쳐 7명의 스님을 선발해 위촉한 것이다.

비구 여연 스님은 유식학 관련 연구로 동국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진 스님은 중앙승가대 역경학과를 졸업하고 인도 등지에서 10여 년간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를 수학했다. 부호 스님은 동국대에서 한국불교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비구니 선일 스님은 인도 뿌네대학과 스리랑카 페라데니야 대학에서 각각 철학 및 빠알리 삼장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견 스님은 중국 북경대학에서 선불교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형운 스님은 동국대 선학과에서 선어(禪語)와 관련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자목 스님은 스리랑카 캘라니아 대학에서 초기불교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신중일 기자**

“표충사 토지 필히 환수”

통도사, 대책회의서 천명

통도사가 불법 매각된 표충사 토지 환수를 재차 결의하고 나섰다.

‘표충사 불법 토지매각 대책과 사찰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이하 표충사대책위)는 27일 오후 2시 주지 집무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 매각된 표충사 토지 환수 △사무장 김모씨의 자수에 따른 대책 강구 등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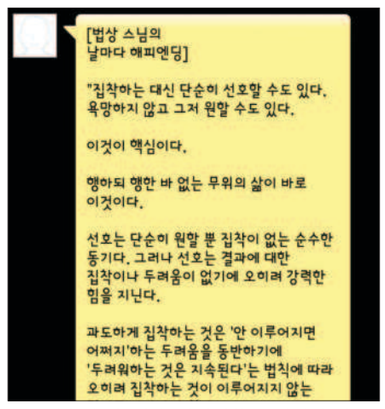
통도사는 2012년 8월 당시 표충사 주지 재경스님 등이 표충사 토지 불법 매각과 횡령 등의 혐의를 확인하고 표충사 대책위를 구성했으며, 재경스님을 형사고발하는 한편 불법 매각된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승소했다.

사건 발생 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재경스님은 사건 발생 1년4개월여만인 지난해 12월 9일 경찰에 자수해 현재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경스님과 함께 공모한 사무장 김모씨도 지난 23일 경찰에 자수, 구속 수감됐다. **신중일 기자**

스님들 생생 법문문자 ‘인기 만점’

BBS, 오늘의 부처님말씀 문자서비스 시즌2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등 매일 아침 문자서비스로



불교방송 ‘오늘의 부처님말씀 문자서비스’ 중 법상 스님의 법문. 동시대 스님들의 생생한 법문 문자서비스에 대한 인기가 높다.

“남에게 주었다고 해서 복이 없어지고 덕이 없어지고 지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었으니까 상응하는 대가를 받으려고 해서만 받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근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율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우 스님–

매일 아침 전해지는 BBS불교방송(사장 이채원) ‘오늘의 부처님말씀 문자서비스(이하 부처님 말씀)’의 내용이다. 불교방송은 신년 벽두 ‘부처님말씀’ 시즌2로 뉴미디어를 활용한 포교에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

불교방송은 “새롭게 문자서비스 시즌2를 개발한 이유는 현대인들에게 불교가 더욱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즉, 1천년 전 내지 2천년 전의 언어를 현대어로 번역한 시즌1과 달리 시즌2는 현대를 함께 호흡하는 동시대 스님들의 목소리를 담았다”며 그 취지를 설명한다.

여기에는 조계종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과 능인선원장 지광 스님을 비롯해 인터넷 카페 목탁소리를 운영하는 법상 스님, 불교 심리학 전문가인 서광 스님 등 스님과 불자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불교방송은 “시즌1의 부처님말씀보다 그 인기가 상당하다. 시즌2는 현대를 함께 호흡하는 동시대 스님들의 언어로 대중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했는데 시즌1보다 신청자들이 많아 그 반응이 좋다. 이에 시즌2 참여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한다.

불교방송 오늘의 부처님말씀 문자서비스는 지난 2012년 3월 ‘부처님 말씀으로 하루를 여세요. 삶이 편안하고 향기로워집니다’란 캐치프레이즈로 처음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꾸준히 인기를 끌며 매일 2만 2천여명에게 전달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영문서비스까지 개발해 영어에 친숙한 청소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

불교방송은 “부처님말씀 문자서비스는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 학교 동문, 직장 동료 등에게 법보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불교방송은 전한다. 새로운 경전읽기 문화, 사경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뉴미디어를 통해 부처님 법을 널리 펴는 사명을 이루는데 많은 분들의 동참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사부대중의 동참을 당부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조계종 국종특별교구는 1월 25일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갑오년 첫 수계법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교구장 정우 스님이 연비를 해주고 있는 모습.

군종교구, 새해 첫 수계식

1월 25일 육군훈련소서… 3200여 불자장병 탄생

“오계를 받은 저희들은 보리심을 발하여 사바세계를 극락세계로 화하게 하겠습니다.”

갑오년 설날을 앞두고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 새롭게 불자로 거듭난 장병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1월 25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갑오년 첫 수계법회를 열고 3028명의 불자 장병을 배출했다.

새해 첫 수계법회인 만큼 이날 계사로는 교구장 정우 스님이 나섰다. 정우 스님은 직접 병사들에게 계를 내리고 단주를 채워주며 열심히 군생활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부처님 전에 서원한 오계를 일상생활 속에서도 잊지 말되 개차법을 유연하게 잘 쓰면서 생활하기 바란다”며 건강한 군생활을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는 공주 동학사와 불교어머니회가 후원했다.

이와 함께 군종교구는 서울 구룡사와 일산 여래사의 후원 하에 27일 30사단 신병교육대, 28일 26사단 신병교육대를 찾아 총 2000명 분의 자장면과 과일 점심공양을 보시했다. **노덕현 기자**

팔만대장경 바꿔치기 ‘사실무근’

문화재청, 1월 24일 해명…연구자 측정 오류 밝혀져

지난해 12월 일부 언론에 의해 제기된 해인사 팔만대장경 경판의 바꿔치기 의혹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1월 24일 “‘1937년에 제작된 대장경판 17판 중 12판이 각판 너비가 다르고 경판 색깔이 희고 깨끗해 경판이 바꿔치기 됐다’는 지난해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연구자의 측정 오류로 확인됐다”고했다.

경판의 각판 너비 차이는 각판의 여백부분 포함 여부와 경판의 서로 다른 면(앞 · 뒤)을 측정한 크기를 비교해 발생했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문화재청은 서수생 박사가 1977년 대장경을 실측한 논문과 최근의 실측치를 비교한 결과, 각판의 치수가 0.5㎝이상 차이가 나는 12판의 결판 중 1㎝미만의 오차는 단순한 측정 상의 허용오차 범위 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고, 1㎝ 이상의 오차가 나는 6판의 경판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6판 중 2판의 경판이 서수생 박사 논문에서 각판의 여백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나머지 중 3판의 경판 크기 차이는 양면(앞 · 뒤)을 혼동해 2012년 용역 시에 1977년 논문에서 측정한 것과 다른 면을 측정했으며, 나머지 1판의 경판은 1937년 제작 경판이 아닌 고려시대 제작 경판과 치수 자료를 비교해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재청은 “1937년 경판이 비교적 희고 깨끗한 것은 목재 본래적 특성으로 장경판전과 같은 보존환경에서는 원래 색깔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1969년 서수생 박사의 논문에서도 ‘을묘(乙卯, 1915) 판은 붉으스레하고 정축(丁丑, 1937) 판은 희므로 일견 구별하기 쉽다’는 언급이 있어 목재의 색깔이 희다는 이유로 최근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향후 보존정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대장경판의 보존관리를 위해 올해 생물학적 피해 등에 대한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인 학술조사를 통해 중장기적인 보존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서지, 목재, 금속, 보존과학 분야 등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4차에 걸쳐 개최했다. **신중일 기자**

조선 승군 등 호국불교 학술 논문 망라

불교사회硏, 관련 논문집 제2권 발간

서산대제 국가제향의 당위성부터 조선시대 승군까지 호국불교의 연구 성과를 망라한 논문집이 발간됐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2013년도 호국불교의 연구 성과를 모은 논문집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2〉를 발간했다. 이번 논문집은 불교사회연구소에서 2013년도에 개최한 두 차례의 학술세미나의 발표문을 보완한 것으로 두 번째 호국불교 연구 논문집이다.



이번 논문집에는 ‘서산대제의 국가제향 복원’과 ‘조선후기 승군과 승역 제도’를 집중 검토하는 총 6편의 논문이 수록돼 있다.

‘서산대제 국가제향 복원’ 관련 논문인 ‘조선시대 전란사에서 의승군의 위상과 역할(이장희 전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은 의승군 봉기 주역으로서의 서산대사의 역할과 의승군의 참전과 전과, 의승군에 대한 예우와 호국불교 승계의 측면에서 본 의승군의 성격에 대해 총론적으로 설명한다.

‘표충사 춘추제향 설행의 역사와 의의’ (김상영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는 조선시대의 국가제향, 서산대사의 활동과 국가제향 봉행의 의의, 표충사 춘추제향의 계승과 실제에 관하여 분석한 논문이다.

‘표충사 춘추제향의 현재적 의미와 복원 방안’ (최인선 순천대 사학과 교수)은 표충사 춘추제향이 지닌 현재적 의미와 각종 제향의 사례와 현황, 그리고 표충사 춘추제향을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선 후기 승군과 승역의 활동’을 집중 검토한 논문인 ‘조선후기 승군제도의 불교사적 의의’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조선후기 불교의 사상적 · 종교적 · 사회적 역할과 조선후기 불교정책, 조선후기 승군 제도의 정착과 확대, 승군제도가 불교계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조선후기 산릉역의 승군 부역노동’ (윤용출 부산대 교수)은 17세기 이후 승역의 추이와 원인, 부역(赴役)의 실태에 대해 분석하는 논문이다.

‘조선후기의 의승방번전(義僧防番錢)의 징수와 승군’ (오경후 동국대 HK교수)은 조선후기 불교의 사회경제적 실태와, 조선후기 남 · 북한산성 의승입번제(義僧入番制)의 실시와 의승방번전의 징수에 대하여 검토한다. **신중일 기자**

콘크리트 법당!

정밀하고도 엄격한 공정을 거쳐 최고의 작품으로 완성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도 金(금)과 銀(은)의 가치는 분명 다릅니다.

공포 및 자재는 공장에서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 시공됩니다.
✣ 특허 제10-0572820 (사찰의 조립식 공포의 설치방법)
✣ 특허 제10-0572821 (사찰의 조립식 공포)
✣ 본 제품은 특허제품이므로 유사하게 만들어 시공하게 되면 특허법 제225조 1항에 저촉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 징
❖ 화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 최소한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 스님께서 직접(직영) 완공하실 수 있도록 자재 및 기술지원 해 드립니다.


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사찰 목조문화재 ‘썩고 있다’
백태 끼고 뒤틀림 현상 전국 확산
“방염 방충 작업 오히려 훼손” 여론
문화재청 “원인분석 의뢰”
외규장각
서명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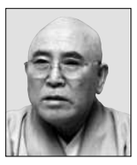
(1)기초 ⇒ (2)기둥, 창방 및 평방 ⇒ (3)주두 및 공포 조립 ⇒ (4)불벽 및 도리 ⇒ (5)추녀 및 사례
(6)귀포작업 ⇒ (7)서가래 및 부연 ⇒ (8)지붕 합작 ⇒ (9)골조
설계(허가)에서 시공(준공)까지


불사완공

※ 취급품목 :
대웅전, 요사채, 일주문,
산신각, 종각, 누각

(주)한국고건축공예
주 소 : 서울시 중랑구 망우본동 357-15 (4층)
전 화 : 010-5530-6814. 02)494-4890
협력회사 : 신아건업. 신동방건축설계

일 주 문



설날 맞이 자비나눔 실천

BBS불교방송 이사장 종하 스님은 설날을 앞두고 1월 23일 서울 남현동주민센터가 추천한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28명에게 20kg쌀 28포대를 전달했다.



민추본 1차 정기강좌 '통일대박'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본부장 지홍 스님은 2월 12일 템플스테이센터 문수실에서 민추본 1차 정기강좌 '남의 통일대박, 북의 중대제안'을 개최한다.



행복나눔 한마당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관장 화평 스님은 2월 3일부터 7일까지 광진구 일대에서 설맞이 명절행사 '행복나눔 한마당'을 진행한다.



대전파라미타 회장 추대

대전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1월 27일 대전 태화장에서 제4대 회장으로 선일 스님을 추대했다. 임기는 4년이다.



정토수련원 21기 백일출가

정토수련원장 유수 스님은 2월 24~6월 3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길 '21기 백일출가'를 진행한다.



교수불자연합회 성지순례

최용춘 교수불자연합회 회장은 2월 3일부터 14일까지 불자교수 30여명과 룸비니 등 인도성지순례를 진행한다.



제69회 한의사 국가시험 수석 합격

동국대 한의학과 4학년 한예지 학생은 1월 28일 실시된 제69회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했다.

삼보회 7대 이사장에 박호석 법사



1960년대에 덕산 이한상 거사의 원력으로 설립된 대한불교삼보회는 1월 26일 정릉 삼보정사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7대 이사장으로 성림 박호석 법사를 선임했다.

박 신임 이사장은 농협대학교 교수(농공학 전공)로 퇴임한 이후, 군승이 배치되지 않은 국군고양병원, 육군 제1공병여단, 제2기갑여단 등에서 법사 활동에 전력하였고, 현재 육군 제3군수지원사령부의 민간인 성직자로 제8350부대 안국사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는 군불교 전문가다.

특히 〈불교에서 유래한 상용어 · 지명 사전〉(2011. 불광출판사)을 저술해 도로명주소법 시행으로 불교지명이 말살되는 문제를 지적, 위헌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사장 취임식은 오는 2월 16일 오전 11시, 서울 정릉 삼보정사에서 개최된다. 노덕현 기자

"위법망구 지중함 잊은 적 없다"

〈부산불교100년사〉 펴내는 현익채 前 금정중 교장



대불련에서 재가 활동 시작해
45년 동안 걸은 '전법의 길' 담아
〈부산불교 100년사〉 발간은
"미래 전법 밝히는 등불 될 것"

"불교전법 45년,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었습니다. 묵묵히 걸어 온 그 길을 돌아보면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새하얗다. 병환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시간들도 비일비재했지만 부처님 법을 전하는 삶은 밥을 먹는 일처럼 그저 일상의 일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불제자로써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었다. 전법, 그것이야말로 불자가 해야 할 최고의 실천덕목일 것입니다."

오는 2월이면 〈부산불교 100년사〉가 세간에 선을 보인다. 마지막 교정 작업에 한창인 전 금정중학교 교장 현익채 법사를 만났다. 현익채 법사는 "내 몸 돌보려면 푹 쉬고, 산에도 가고 하면 좋은데 아직 할 일이 남았는지 부산불교 100년사 편찬을 맡게 됐다. 8개월의 짧은 시간이라 아쉬운 점도 많지만 벅찬 시간이라 감회도 남다르다"며 "고인이 된 정금강행 보살에 대한 불교계 업적과 감사함에 물리칠 수 없었고 편찬 과정에 영주암 조실 정관 대종사의 후원은 큰 힘이 되었다"고 감회를 전했다.

부산불교 100년사 편찬사업은 지난해 고인이 된 전 관음선행장학회 이사장 정금강행 보살의 업적을 추모하고 그의 평소 유지를 받들기 위해 아들 박익민 부산대 교수, 손녀 사위 노봉호 동명대학교 교수 등 가족들의 발원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그는 1969년 부산대학교 대불련 활동을 시작해 부산지부장을 지냈고, 금정중학교 교법사, 부산불교흥법회 회장 등 다방면의 활동을 실천해 온 부산지역의 대표적 재가 활동가다.

〈부산불교총람〉 〈부산불교계 인명록〉 〈간추린 부산불교50년사〉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40년사〉 〈금정중학교 100년사〉 등 20여권의 저서를 편찬했다. 뿐아니라, 부산 최초의 어린이법회인 법륜불교어린이회, 부산교육경영직 불자회 등 손수 창립한 단체만 10여 개 이상 일 정도로 왕성한 활약을 펼쳐 왔다. 그야말로 부산불교계의 산 증인인 셈이다.

이런 그에게 〈부산불교 100년사 편찬사업〉이 주어졌고, 마침내 오는 2월이면 출판기념회가 개최된다. 한때 위암 선고를 받고 위절제 수술까지 받은 그는 "오장육부가 성치 않다보니 보왕삼매론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좋아한다. 하지만 불자로서 위법망구의 지중함을 잊은 적이 없다"며 "부산불교 100년사 발간의 의의는 단순한 과거의 나열에 있지 않다. 향후 10년, 미래 100년 전법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요, 이정표가 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신행단체 조직하고 역량 강화 나서"

김봉래 BBS바라밀회 회장(BBS불교방송 전법후원국장)



불교방송이 2014년 신행단체 바라밀회를 조직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나선다. 이는 직원들이 신행을 구심점으로 삼아 불교언론사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불교방송 김봉래 전법후원국장은 "개국 25년이 되는 올해 불교방송 바라밀회가 출범한 것은 불자언론인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데에 있다.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불교방송 직원들의 신행이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전한다. 또한 각 언론사 불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불교 언론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키워나간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인다.

현재 불교방송 국장과 부장 등 간부들을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앞으로 직원들까지 참여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바라밀회가 경영진의 적극적인 격려 속에 출발하게 된 것은 라디오 매체로 출발했던 불교방송이 TV를 통한 영상포교라는 새로운 과제를 성공리에 수행하기 위해 직원들의 역량을 일신하는데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직원들이 자기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하고 불법홍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당분간 바라밀회는 회칙규정 창립법회 개최 등은 물론 언론사불자연합회 활동 동참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여의도 포교원에서 열리고 있는 언불련 법회를 통해 언론사 불자들 간의 친목도모와 역량 강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언불련이 조계종 포교원에 신도단체로 등록한 만큼 포교원과의 연계활동도 함께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한양대 선지식동문회 책가방 기금 후원



한양대 불교학생회 선지식동문회(회장 박정환)는 1월 25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자비나눔기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

박정환 회장은 "아름다운동행의 기금에 후원금을 보태 아이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을 선물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국내의 소외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아름다운동행은 2월 6일 오전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책가방 전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선지식동문회는 300여 명의 선후배로 구성돼있으며 이날 전달식에는 10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법안정사, '고승 초청 법회'



서울 목동 법안정사(회주 효경)는 1월 24일 관음재일을 맞아 조계종 원로의원 도문 스님(장수 죽림정사 조실)을 법사로 '고승 초청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는 약 3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성대하게 봉행됐다.

도문 스님은 법문으로 "계로서 스승을 삼고 사념처에 의지하여, 인연법 근본법에 충실하라"며 "수행정진을 통해 요의(要意)인 미묘법을 통달해 직지인심 견성성불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서 정토회 합창단(반주 백지인, 이중창 장정윤 · 손희경) 단원들이 '온겨레의 노래'와 '찬불송' 음성공양을 해 법회를 장엄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日조동종 종립대와 협약



동국대 김희옥 총장은 1월 23일 일본 아이치가쿠인대학의 오오노 히데토(大野 榮人) 학장 등 세 명의 접견단과 간담을 갖고, 양 교간 상호 학술교류협정 체결 및 실질 교류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1876년 일본 조동종(曹洞宗)이 설립한 아이치가쿠인대학은 △문학부 △법학부 △종합정책학부 △경영학부 △상학부 △심신과학부 △약학부 △치학부 등 8개 학부에 약 1만 2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종합사립대학이다. 노덕현 기자

봉은사, 故백남준 8주기 추모재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故 백남준 선생의 8주기 추모재가 1월 29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봉행됐다.

추모재는 불교식 천도재 형식으로 열렸으며 봉은사 스님들과 신도, 백스튜디오 도로시남 대표, 유가족과 친지 등이 참석해 헌향과 헌화, 천도의식을 진행했다.

독일에서 스승인 존 케이지를 만나 불교와의 인연을 맺은 고(故) 백남준 선생은 생전 불교적 사상을 내포한 '파란 부처', 'TV 부처'와 '테크니컬 부처' 등 많은 작품을 남겼다. 또한 서울 봉은사는 백남준 선생이 타계한 직후인 2006년 3월 49재를 앞두고 경내 법왕루에 고인의 유해를 안치하고, 미공개 유작 '엄마'를 전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연으로 봉은사는 2007년부터 매년 1월 기일을 맞아 고인의 넋을 기리는 추모재를 봉행하고 있다. (02)3218-4836 노덕현 기자

Chinese as Second Language
남경대학한국캠퍼스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중의대학) 특차 모집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12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3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4년 2월 20일

4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 경 중 의 약 대 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

貪心 줄이기
탐심

-더 나누자

"

매일 108배, 천원 보시
나누는 기쁨 일깨워
삶의 보람 · 욕심도 줄어

"

보시로 하루 시작… 빈곤국 돕기 동참

정토회 천일결사 매일 1천원 보시

천원 한 장의 보시가 탐심을 내려놓고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가? 현재 2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정토회 천일결사 프로그램은 하루 1천원 이상 보시로 탐심을 내려놓고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천일결사에 참가하는 정토행자들은 매일 아침 108배 참회 기도와 함께 천원을 보시한다. 이렇게 100일 동안 모은 보시금은 100일에 한 번 열리는 천일결사 행사 현장에서 당일 제출하면 인도 필리핀 등 제 3세계국가 어린이들의 교육비와 식비 등으로 쓰여진다.

그렇다면 1천원 보시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정토회는 "지구상에 60억 인구 중 12억 인구가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 이들을 위해 나의 작은 1천원을 나누어보자는 의도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적어도 하루에 천 원 이상은 보시를 하고 그 나머지를 쓰자는 것이 정토회의 취지다.

천일결사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는 이들은 탐심이 줄어들고 삶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며 행복감이 넘쳐난다고 말한다. 전혜진 씨는 매일 아침 천원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넉넉해진다고 말한다. "비록 천원이지만 남을 위한 보시로 하루를 시작하고 산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3년을 넘게 하니 삶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그 기운이 가정으로 전해져 화목해지기까지 합니다."





사진 왼쪽은 천일결사 행사에서 보시하는 회원. 오른쪽은 개인 정진시 보시 장면.

8년째 천일 결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서정현 씨는 하루에 처음 쓰는 돈이 보시여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전한다. "매일의 보시를 통해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현 씨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데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한다. "이 돈이 누구에게는 약이 되고 누구에겐 음식이 되어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괜찮은 일을 한 거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한편, 정토회 천일결사는 1993년 3월부터 만일결사를 목표로 시작을 했다. 이후 매년 3년 단위로 결산을 하며 3년을 100일로 끊어 입재와 회향을 이어오고 있다. 2013년 12월 7천일 기도를 회향했으며 올 3월 23일 8차 천일결사 입재를 앞두고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瞋心 줄이기
진심

-더 낮추자

"

업처 살피면 열등감 제거
꿈과 희망 갖는 것 중요
명상은 몸 · 마음 정화

"

"화 안내려면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우선 우리는 왜 화가 나는 지를 알아야 한다. 화가 난다는 것은 자기 근본이 타인에 비해 열세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열등감이라고 한다. 그래서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가장 화를 안내는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치열한 경쟁을 원한다. 그러다보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출세하고 대접 받는다. 상대적으로 경쟁서 도태되는 사람은 열등감 속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우리 사회가 고착화 돼 있다. 이런 열등감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남보다 잘 할 수 있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 삶의 여유가 생기고 화 낼 일이 적어진다.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열등감이 화를 내는 근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가령 부자한테 "당신 거지지"라고 말한다고 그 부자가 버럭 화내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그냥 웃어 넘길 것이다. 이것은 마음 속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 그래서 평소 내가 화를 잘 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자신의 근본 마음을 잘 들여다 보아야 한다. 과연 내가 얼마나 열등감이 많은 사람인지 말이다.

또 하나는 건강 문제도 크게 작용한다. 건강이 좋아야 분을 참고 삭이고 화 내지 않는다. 몸 아프고 병들면 분이 많아지고 설움이 많아진다. 우리가 흔히 위빠사나 수행법에서 화를 내는 그 마음을 보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이것은 구체적인 방법은 될지 모르지만,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원인 규명이 먼저 이뤄져야지 화를 참게 되기 때문이다. 먼저 원인 규명이 된 후에야 위빠사나 수행이 필요한 것이지, 원인 규명부터 안된 상태서 위빠사나는 별 효험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의 부족한 자리인 업처를 볼 줄 알아야 열등감도 제거되고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다. 또한 항상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살필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고 느끼면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하심하게 돼서 화가 생겨나지 않게 된다.



혜거 스님 (금강선원장)

아주 폭악한 동물도 사육사가 길들이고 훈련시키면 양순해진다. 하물며 우리 인간도 마음의 근육을 훈련하면 분심을 제거하고 참는 힘을 기르게 된다. 분심이 왜 쌓이는지 근본 원인을 들여다보면, 꿈과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남을 원망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는 것이다. 꿈을 생성하지 않고 무조건 분심만 없애라고 하면 안된다.

몸을 허덕이면 열이 나오고 마음을 허덕이면 화가 나온다. 몸을 한군데 조용히 정진시켜놓으면 고요해 지듯이, 마음도 한군데 붙잡아 놓으면 화 낼 틈이 없어진다. 그래서 명상은 몸과 마음을 단련해 주는데 좋은 무기이다. 뇌까지도 조용해지면 화가 생길 틈이 없어진다.

명상은 한마디로 몸과 마음을 방석 하나에 맡긴 내 몸뚱이를 묶어놓는 것이다. 이것을 한시간 묶어두느냐, 아니면 온종일 묶어두느냐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신의 몸과 마음만 잘 묶어두면 정화가 된다. 마음이 방향을 놓치니까 답답해지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癡心 줄이기
치심

-더 비우자

"

하루 5분만이라도
매일 자기성찰 하면
어리석음 줄일 수 있어

"

'연기법 수행'은 치심을 정견으로 바꿔

'생사사대 무상신속 촌음가석 신물방일(生死事大 無常迅速 寸陰可惜 愼勿放逸, 삶과 죽음이 가장 큰 일인데 덧없는 세월은 빨리 가버리니 짧은 시간도 한껏 아끼며 방심하고 게으르지 말라)'

수행승으로 청빈의 사표였던 청화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매순간 정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바로 배광식 서울대 교수다. 배 교수는 탐진치를 여의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연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홀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무명"이라며 "미혹한 마음을 깨달음으로, 치심을 정견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연기를 살피는 수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20년 넘게 염불선 수행을 해오고 있다. 배 교수의 염불선(念佛禪) 수행은 청화 스님이 보리방편문을 계승발전 시킨 것이다. 배 교수는 2006년 11월 염불선 천일수행 입재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3차 천일수행 중이다. 이와 함께 배 교수는 염불선 수행과 함께 인터넷 까페를 통해 사경 수행 등 생활 속 수행을 함께 해나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수행은 일반 대중에게 자신에 맞는 수행법을 찾아 공부할 것을 강조한 청화 스님의 지론에 따른 것이다. 청화 스님의 유지를 잇고 있는 수행모임 '금강정진회'의 온라인 수행카페 '금강(金剛), 불교입문에서 성불까지(cafe.daum.net/ vajra)'에는 보리방편문 사경을 비롯해 생활법문과 다양한 수행법을 접할 수 있다.



배광식 (서울대 교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도반들을 만나는 것도 수행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온라인 수행까페에는 다음 7000여 명, 네이버 5000여 명의 회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다.

"탐진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달마의 〈파상론〉을 보면 모든 번뇌 뿌리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관심일법 총섭제행', 즉 마음을 살피는 것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로 했습니다. 불자들이 팔정도, 육바라밀 행으로 마음살림을 챙기면 탐진치가 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2월 25일 교수 정년을 앞두고 배광식 교수는 그동안의 수행담과 청화 스님과의 인연 등을 담은 〈천개의 연꽃 잎으로 피어나리라〉와 태안에 수행마을 묘금륜원 조성을 위한 모연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배 교수는 바쁜 삶 속에서도 마음수행은 계속되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를 처음 접한 사람들을 만나면 하루 5분이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따로 하는 명상이나 수행법이 없더라도 전철을 타거나, 아침에 일어나거나 잠깐씩 시간을 가지면 그 당시 마음에서 일어난 변화와 연기의 흐름을 되짚을 수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결국 연기를 바로 보는데서 사라집니다."

노덕현 기자

아미타부처님께서 남섬부주 대한민국 현지사 대전분원에 나투시다!!

현지사 대전분원은 아미타부처님께서 상주하는 미타성전으로서 모든 염불행자를 극락정토로 이끌어가는 정토의 관문입니다.



어느날 광명만덕 큰스님의 염불삼매 중 무량억종광으로 나투신 아미타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 칭명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라고 여쭈신 말씀에 아미타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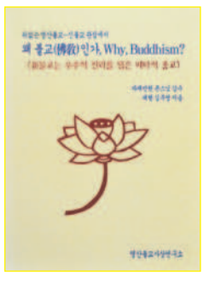
"아미타부처님을 일심으로 칭명하면 업장이 소멸된다. 가정이 편안하며, 만나는 인연마다 선하고 착하다. 죽음을 맞이하여 편안히 갈 수 있다. 다음 생에 좋게 태어난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경전을 읽고 다리니 하며 지극정성으로 아미타불을 칭명하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그 중생의 소원을 섭수하여 버리지 않으며, 심신이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지며, 죽으면 왕생극락까지 할 수 있다네!"

아미타부처님 재일행사 : 매월 음력 5일. 오전 10시 30분
영산불교 현지사 대전분원 전화 042)525-5325
대전시 서구 동서대로 1070 팩스 042)525-5035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추천도서

왜 불교인가

대현 김주영 저 (672쪽, 가격 20,000원)
(서울공대 공학박사, 대학원 초빙교수, 장영실상 수상)



저자는 '왜 불교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먼저 우주적 진리인 영산불교의 관점을 분명히 견지하면서 기존의 모든 철학 과학 종교를 긍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비판한다. 인간의 역사속에서 철학과 과학, 종교가 태동하고 다양하게 발전해왔지만 오직 불교만이 인생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저자는 기존불교를 불완전한 반자(半字)불교로 규정하고, 기존불교를 포함해서 이때까지의 어떤 철학 과학 종교도 해결하지 못했던 인류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한 영산불교를 만자(滿字)불교로 보고 불신론 영혼체론 생사관 수행관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써 신불교 영산불교의 가르침을 제시한다. 이 책은 저자가 한평생을 살면서 모색해왔던 구도의 역정이 고스란히 배여있는 역작이다.

* 현지사에서 구입하시거나 운주사 및 교보 문고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춘천본사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95 전화 033)243-1787, 팩스 033)243-4371,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불교상담개발원, 스님대상 특별교육

2월 16일 남양주 정혜사에서…12일 뇌과학 주제 특강도

스님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불교상담 특별교육이 마련됐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2월 16일 남양주 정혜사에서 최훈동 한별정신병원장을 강사로, '스님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열린 동계산사워크숍 '불성으로 깨어나기'의 연장선으로, 불교와 심리치료를 명상에 접목해 3부에 걸쳐 진행한다.

교육은 △고통의 이해 △숙고명상의 체득 △불성기도 등으로 구성되며 최훈동 원장의 지도 아래 강의와 실습이 병행될 예정이다.

'불성으로 깨어나기' 1부는 고통의 발생기전, 고통의 종류, 무의식과 의식이라는 과정을 통해 고통을 성찰하는 장으로 진행된다. 제2부에서는 관계와 조건화, 상처와 치유, 대화의 예술 등 무의식을 성찰하는 장으로 꾸며졌으며, 제3부에서는 무아의 명상 적용, 무아와 불성, 그리고 불성기도 등을 통하여 불성의 발견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참가스님들의 경험나누기와 경험담 쓰기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교상담개발원은 상담 실천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 '2월 전문특강' 도 실시한다. 특강은 2월 12일 오후 2시부터 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문수실에서 박병운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뇌과학전공 교수를 초청, '뇌과학과 뇌기반 상담'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번 전문특강에서는 심리치료와 영적 성장을 위한 방편으로 응용되고 있는 뇌과학 및 연구자들을 집중 조명하고, 동시에 명상과 뇌 기능을 통한 다양한 불안 기제와 명상 효과를 상세히 조명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자와 관심 있는 사부대중에게 뇌과학과 뇌기반 상담의 연계성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뇌가 어떻게 관계 속에서 발달하고, 어떻게 장애가 발생하고, 어떤 변화를 주면 심리적 문제가 치유되는 가를 뇌과학과 뇌기반 상담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사부대중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불교상담개발원 홈페이지(www.kbcd.org)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02)737-7378

이나은 기자

"불상 먼지 털어내듯 마음 번뇌 털자"

열린선원, 2월 4일 '부처님 씻어드리기' 거행

열린선원(원장 법현)은 입춘을 맞아 불상을 깨끗하게 씻는 행사를 열었다.

열린선원은 2월 4일 서울 갈현동 법당에서 불자들과 함께 '새봄[立春]맞이 부처님 씻어 드리기 및 3업 청정 정진'을 거행했다.

신도들은 수미단에 모신 원불(願佛:불자들의 원을 보듬어주는 부처님)을 법당에 준비해 둔 책상 위로 내려, 정성스럽게 붓으로 불상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마음의 번뇌도 함께 털어지기를 발원했다.

법현 스님은 〈대길상경〉 〈법구경〉 등 경전을 독송 후, 법문을 통해 "입춘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양력의 첫날임을 생각해서 '어리석음의 어둠을 걷어내고 슬기로움의 밝음을 그득하게 하는 날로 승화시켜야 한다. 하늘에서 내리쬐는 봄볕은 위아래 없이 평등하지만 꽃가지가 제나름의 노력을 통해 어떤 것은 길고 어느 것은 짧지 않느냐[春色無高下 花枝自短長]'는 함허 득통 스님의 게송을 통해 스스로의 노력으로 앞날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열린선원 신도들이 정성스럽게 붓으로 불상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있다.

콘서트 통해 한마음된 다문화가정

대불청 · 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음악여행





이날 행사에는 불교여성개발원의 '불교 여성 다문화 봉사단'을 통해 연결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과 자원봉사자 70여명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콘서트에서는 '이등병의 편지'로 유명한 김현성과 인디밴드 '레드로우 밴드', 포크록 밴드 '레'를 비롯해 템플스테이 홍보서포터즈들의 노래공연이 펼쳐졌다.

베트남 · 캄보디아 등지에서 온
70여 다문화가정 · 봉사자 참여
김현성 · 레드로우 밴드 등 공연
"올해는 소외계층 위한 공연 준비"

한국 불교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홍보관에서 문학과 음악이 만나 열리는 이색 공연이 정기적으로 개최돼 시민과 불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 가정을 위한 콘서트도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과 대한불교청년회 참교육문화사업단(단장 하영태)은 1월 26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1층 홍보관에서 새해를 맞아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콘서트를 개최했다.

하영태 참교육문화사업단 단장은 "한국사회의 10가구 중 1가구는 다문화가정일 정도로, 우리는 지금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문화간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마음으로 이웃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래서 이번 음악 여행에서는 다양한 사람과 생각, 그리고 문화가 공존하는 우리의 삶에 다문화 가정이 함께하는 어울림의 자리를 템플스테이에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불교여성개발원이 진행하는 '불교 여성 다문화 봉사단'을 통해 연결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과 자원봉사자 70여명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공연에 앞서 정경연 불교여성개발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문화사업단과 참교육문화사업단에서 올해 첫 음악회를 다문화봉사단 가족과 함께 해서 뜻 깊다"며 "세계가 어우러져 함께 하는 다문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이등병의 편지'로 유명한 김현성과 인디밴드 '레드로우 밴드', 포크록 밴드 '레'를 비롯해 템플스테이 홍보서포터즈들의 노래공연이 펼쳐졌다.

가수 김현성 씨는 관객들이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안도현 시인의 시 '연탄재'에 가락을 넣은 곡과 '무소유의 노래(법정)' '이등병의 편지' '나룻배와 행인(한용운)'를 감미로운 기타선율과 함께 선보였다.

이어서 레드로우 밴드가 어쿠스틱 퍼커션과 기타로 '노란 오토바이' '부담' '비틀즈의 노래들'을 연주해 관객들의 흥을 돋우었으며, 포크록 밴드 '레'는 '나의 노래' '보랏빛향기' '내가 말했잖아요'를 불러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이날은 지난 2013년 10월 대한불교청년회에서 주최한 '2013 글로벌 템플스테이 홍보 자원봉사 오리엔테이션(T.P.S)'에 참여했던 외국인 홍보 서포터즈 캐서린과 마리가 출연해 템플스테이에 대한 소개와 함께 노래공연을 펼쳤다.

한국에서 영어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마리(미국)는 "한국 불교와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게 돼 TPS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 길상사, 법륜사, 백련사 등 여러 곳의 한국사찰을 다녀오면서 한국문화에 더욱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동국대 교수인 캐서린(영국)은 "불교 무술인 선무도에 흥미를 느끼게 되면서 불교에 관심을 가졌다.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체험할 수 있어 많은 외국친구들에게 권유를 하고 있고, 다녀온 친구들 대부분은 좋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은 다문화 가족 뿐 아니라 20~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들이 참석해 공연을 즐겼다.

베트남에서 온 찬티탄티 씨는 "가족들과 콘서트에 온 것은 처음이다.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익한 공연을 또 만들어줬음 좋겠다"고 말했다.

베트남에서 온 로엔티녹오안 씨는 "한국노래라 잘 모르지만, 공연을 본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앞으로는 좀 더 대중적인 노래들을 소개해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대한불교청년회 참교육문화사업단은 지난 해부터 20대 청년과 경찰관 등 치유가 필요한 특정계층을 위해 공연을 펼쳐왔다.

하영태 단장은 "2014년에는 미혼모 가정과 철도노동자 가족과 같이 힐링이 필요한 계층들과 함께 하는 공연들을 준비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제10기 평화리더십아카데미 모집

35세 이상 전문직종인 대상…3월 20일 개강

한국사회 미래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직종인을 대상으로 한 강좌가 열린다.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은 3월 20일~6월 12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평화재단 강당에서 평화리더십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강좌가 열리는 첫째 날에는 입학식과 함께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래를 여는 새로운 역사관'을, 법륜 스님이 '행복한 삶을 꿈꾸다'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외에도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의 '중용 민주주의를 말한다: 정의는 중용이다' △조정래 작가의 '조정래 작가가 말하는 시대와 역사'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G2시대, 동아시아 공동체 새로운 미래' △윤여준 새정치추진위원회 의장의 '2014, 다시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등의 강좌가 열린다. 정원은 50명이며 접수마감은 3월 13일까지다. (02)6925-0522



이나은 기자

'아버지'라는 짐 내려놓고 이야기 나눠요

한마음과학원, 2월 8일 '한마음아버지마당' 개최

안양 한마음선원 부설기관 한마음과학원은 2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한마음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아버지를 위한 강좌인 '한마음 아버지 마당'을 개최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는 이번 강좌는 '당신이 바로 주인공입니다'를 주제로 가장, 남편, 부모 등 다양한 아버지 역할 속에서 나를 찾고 배우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다.

일정은 △다르게 세상보기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다시 보는 우리 가족 △한마음이 되는 대화 △우리 함께 해결해요 △다시, 길을 나서며 등을 주제로 6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아버지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40명 정원으로 선착순마감이다.



한마음과학원은 "아버지로서 책임감은 갈수록 커지는데 아버지의 자리는 점점 좁아진다. 한마음아버지마당은 다양한 아버지 역할 속에서 나를 찾고 배우고 실천하는 살아있는 체험의 장"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31)471-6926

이나은 기자

각성 큰스님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고운사 특강

引之於有 一如用之而空
獲之於無 萬物承之而生
不知何以言之 强號之謂大乘

있다(有)는 것에 이끌어도 한결같은(一如) 그 쓰임이 공(空)과 같고, 없다(無)는 것을 얻어도 만물(萬物)이 그것을 타고 나오니(生), 알지 못함이라.
이를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굳이 대승(大乘)이라 이름이니라.

大乘起信論 海東沙門 元曉 疏 본문 중에서



◐ 일 시 : 2014년 2월 17일(월) ~ 2월 21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고운사 선 체험관
◐ 특 강 비 : 일십만원정 (₩100,000)
◐ 참가대중 : 4부대중 누구나

저희 고운사에서는 해제 때마다 특강을 해오는 가운데 "승려연수교육에관한령"에 의거 승려연수교육과정으로 인증을 받아 교육을 수료하시면 30점의 점수가 부여됩니다.

◐ 문 의 : 종무소 054)833-2324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 운 사 www.gosusa.net

생활 역학(命理)학인 모집

본 대학 생활역학 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1. 교수 및 교과내용
⊙ 지 도 교 수 : 임성도 교수
⊙ 명리학 과정 :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직업 등. 특히 사주에서 조상 보는 법, 사주공부를 하고도 정리가 안되는 분 환영
⊙ 성명학 과정 : 신생아 작명, 개명, 상호 짓는 법, 성명감정 등
※ 수료 후 소정의 과정을 거친 후 전문직(철학원, 작명소 개설)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역리사 자격증을 드립니다.

2. 명리학 과정
⊙ 명 리 학 : 초급, 중급, 고급 (각 과정 3개월)
⊙ 개강일시 : **2014년 2월 중** (매주 월) 2시 반부터 ~ 4시까지
⊙ 성 명 학 : 6개월과정
(단 역학의 기초과정을 배우신 분께서는 3개월 완성)

3. 원서교부 및 접수 : 본 연구소 사무국

해 동 불 교 범 음 대 학
생 활 역 학 연 구 소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243-3 경동빌딩 3층
TEL : 02)741-0495, 0496 FAX : 02)765-3169

불교 노인복지관 일자리 사업 활발

65세 이상 어르신 9개월 근무
공익형 · 교육형 등 다채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문화유적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유적지 방문객에게 전달하는 '옛터 선생님 사업'을 진행한다(사진왼쪽).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노인취업훈련센터를 운영하며 베이비부머 세대와 은퇴자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급속한 고령화로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전국 시 · 도에서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모집하는 가운데, 불교계 복지관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가할 어르신들을 모집하고 있다.

서울 송파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도훈)은 1월 20일부터 '2014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28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사업으로 나누어지며 아동수호천사사업, 실버강사파견 사업 등 총 7개 부분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복지시설, 백제문화 유적지에 이르기까지 송파구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게 된다.

또한 2014년도에는 연중일자리 사업(연중계속 활동 가능)이 추가돼 지난해와 같이 한정된 기간에만 활동했던 불편함을 벗어나게 됐다.

노인일자리 접수를 담당하고 있는 박주원 사회복지사는 "2013년과 비교해 연중일자리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참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어르신들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한다면 어르신에게는 활동적인 노후를, 송파구에는 취약 계층의 보호와 돌봄이 이루어지는 윈윈 효과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승자)는 노인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 390명을 모집해 △공익형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으로 나누어 투입한다. 공익형 사업으로는 '할머니 손맛 급식 도우미' '복지시설도우미-은빛 어우라미'가 있으며, 어르신들은 초등학교에서 급식 배식과 함께 식사예절을 지도한다. 또한 복지센터 등에서 프로그램 및 시설관리 보조 활동을 맡게 된다.

교육형 사업에는 우울증 등 정신 건강에 대해 강의하고 지도하는 '어르신 마음 건강 리더'를 비롯해, 실버강사지원단, 경로당 허브거낭 지킴이 등 5개 일자리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라디오DJ, 탑골독립영화관 순회상영단, 종로해설사, 사서 및 독서도우미, 미술관해설사, 취업도우미, 성인권 상담가 등 총 14개의 사업단에서 306명의 어르신을 모집한다. 서울시 거주시민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지원 가능하다.

이와 함께 베이비부머 세대와 은퇴자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인 '서울시어르신취업훈련센터 내일행복학교'를 2월 10일 개강한다.

내일행복학교는 노년설계아카데미를 비롯해 △창업아카데미 △직업전문아카데미 △창의직업아카데미 △힐링아카데미 등 총 5개 과정으로 구성돼, 어르신들이 새로운 직종에 대한 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종별 훈련과정과 맞춤형 취업훈련과정을 제공한다.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교육강사파견사업, 사랑나눔복지도우미파견사업, 노노케어도우미파견사업, 사서도우미파견사업, 초등학교급식도우미파견사업, OK6070 아파트택배 등의 일자리를 광진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2월 14일까지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하며, 신청방법은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을 내방해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고령화사회를 맞이해 노인들에게 국가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회활동을 통한 노인들의 정신안정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일자리 참여 희망 어르신들을 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남양주시노인복지관(관장 인봉)은 보육시설 도우미, 초등학교급식도우미, 도서관관리사업단, 실버강사사업단 등 198명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참여하게 된다.

대전 서구노인복지관(관장 장곡)은 문화해설파견, 배우리강사파견, 동화구연사업, 아이사랑손인형극사업 등 교육형 사업에 참여할 158명을 모집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연중일자리사업 등 복지형 사업에 149명의 참가 희망자를 모집한다.

이밖에 방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현숙)은 1월 17일까지 374명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해 서초푸르미, 질서지킴이, 그린라이프 등 8개 사업을 진행한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지난 1월 17일 노인일자리 사업설명회를 갖고 학교급식도우미, 스쿨존교통지원사업, 도서관도우미, 영유아보육도우미, 노인복지도우미, 도시락배달도우미, 종로훈장 등 의 일자리 사업을 시작했다. 수원 서호노인복지관도 '서호 스쿨존 지킴이' '꿈을 키우는 아이사랑 교실' '울타리 보듬 지킴이' '두레지식아카데미' 등 사업에 어르신들을 모집해 오는 2월부터 9개월간 실시한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송파노인종합복지관	(02)2203-9400
은평노인종합복지관	(02)385-1351
서울노인복지센터	(02)6911-9658
광진노인종합복지관	(02)466-6246
남양주시노인복지관	(031)573-6598
대전 서구노인복지관	(042)488-6297

전국 복지관, 설날맞이 나눔행사

연탄 · 떡국 이웃과 나누는 행사 마련



진각복지재단은 1월 23일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성북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사랑의 연탄 배달' 행사를 진행했다.

추운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불교복지관은 설날을 맞이해 다양한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회정정사)은 1월 23일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성북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KIST와 함께하는 연말연시 희망온돌 프로젝트- 사랑의 연탄 배달'을 진행했다. 성북구 내 위치하고 있는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자원봉사자 20명과 함께 정릉에 위치한 수급자 어르신댁으로 연탄 500장을 배달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KIST에서 후원해준 300만원은 성북구 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저소득 계층에게 연탄, 등유, 쌀 등의 후원물품으로 전달됐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용갑)은 1월 23일 복지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후원으로 '청춘을 부르는 설떡국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직원들은 저소득 어르신 120명을 위해 떡만두국 등 음식을 대접하며 이웃의 정을 나눴다.

조계종 무산복지재단(이사장 정념)과 양양군노인복지관은 1월 23일 복지관에서 양양군 내 60세 이상인 700여 어르신을 위해 무료 점심제공을 했다.

이사장 정념 스님은 이날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직접 대접하고 기념품을 전달했다.

정념 스님은 "설을 앞두고 여러분 모두가 행복질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작은 정성을 담았다"며 "지역의 주인인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지역이 풍요로울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복지증진에 더욱 헌신 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산 낙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임광수)은 1월 22일 오후 12시 30분부터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情'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식전행사와 본행사로 열렸으며, 떡국잔치, 주민교육을 비롯해 저소득 210가정에 쌀 2400kg을 지원하는 후원물품 전달식, 축하공연 등이 마련됐다.

황송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일운)은 1월 24일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기원을 위한 설날행사 'Happy 2014'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창훈 중원구청장, 새누리당 신영수 의원을 비롯해 어르신 300여명이 참석해 복을 기원했다.

1부 행사는 성남을 대표하며 지역 곳곳에서 열정적인 음악회를 보여주고 있는 성남시립합창단의 공연이 선보였다. 22명의 합창 단원들은 가곡과 민요 등 어르신들이 쉽게 따라부를 수 있는 곡을 불러 흥을 돋우었다.

2부 행사에서는 노인성 질환인 관절염에 대한 건강강좌가 진행됐다. 최성욱 아이엠 정형외과 원장이 직접 참여해 관절염 질환 및 노인건강관리에 대해 강연했다.

이밖에 복지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 저소득 어르신을 위해 직원과 봉사자가 방문해 사골국과 떡국떡을 전달해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나은 기자

영통복지관,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마련

1월 15~17일, 봉사문화 확산 위해 활동



수원 및 인근지역 중 · 고등학교 청소년 50명은 직접 거리에 나서 다문화, 장애인 등 다양한 테마를 주제로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을 했다.

수원 영통종합사회복지관(관장 수안)은 복지관과 인근 지역에서 1월 15~17일 '제26기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수원 및 인근지역 중 · 고등학교 청소년 50명과 사회복지학과 실습대학생 10명이 3일간 올바른 자원봉사에 대해 이해하고, 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을 펼쳤다.

또한 참가 학생들은 직접 거리에 나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다문화, 장애인 등 다양한 테마를 주제로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을 했다.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 자원봉사학교를 통해 참여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이슈와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나눔과 봉사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031)201-8317

이나은 기자

성애병원 의사협회, 철산복지관 2백만원 전달

2010년부터 매년 후원, 총 1천만원 지원



광명성애병원 의사협회(회장 이후전)는 1월 16일 금강정사에서 운영하는 시립 철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승희)에 후원금 200만원을 후원했다.

광명성애병원 의사협회는 2010년부터 매년 후원금을 전달, 올해 까지 총 1천만원을 지원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까지 전달된 후원금은 밑반찬지원사업에 쓰여져, 주2회 월 평균 200세트를 지역 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결식 혹은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이웃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광명성애병원과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은 2013년 5월 '한생명살리기 지원사업무협약식'을 갖고 환우들의 생활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지원하는 등 지역 내 협력관계로써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나은 기자

출강 및 통신 2014학년도 제23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23년의 법사양성 연륜은 대학의 위상과 교육의 신뢰에 자부와 긍지를 갖습니다.

◆법사자격을 갖추고 불교 지도자로서의 신행생활에 기쁨과 행복을 함께하여 보십시요.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법위증을 발급 받습니다.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 합니다.
④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 불교석학과정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교육기간	· 법 사 과 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 법 사 과 정 = 2년(교과목 및 범음 · 범패) · 불학연구원과정 = 5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 불 교 석 학 과 정 = 2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4년 2월 21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부산교육원(☎ 051-466-1959) ·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4년 1월 15일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4년 3월 4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대각 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생전예수재 특강
◇원서교부 : 2014년 1월 15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4년 3월 7일 금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969-4981 / 팩스 02)964-24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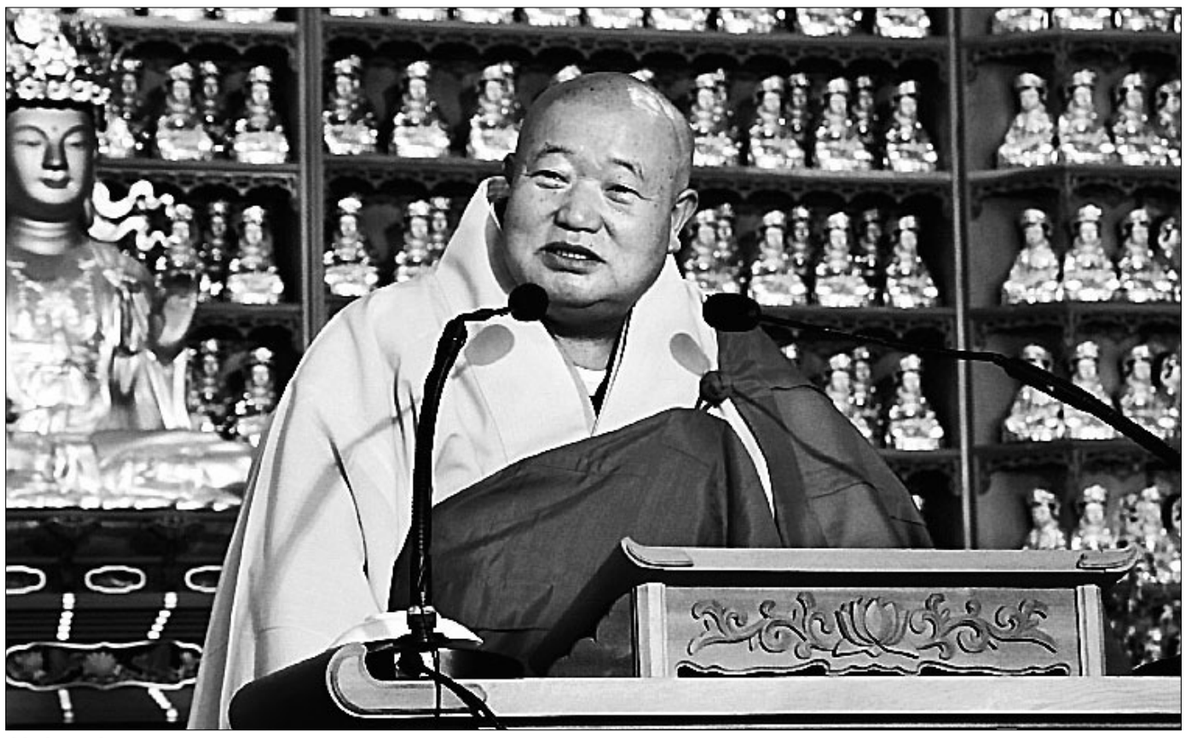
“만물은 식구 ‘연기법칙’ 알면 자비실천 저절로”

봉은사 일요법회

성타 스님(불국사 주지)

1월 19일 봉은사 일요 법회에서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깨달음은 자비의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며 청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했다. 또한 부처님 전에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공양물을 올리는 것도 깨달음을 성취하고 자비를 실천하여 청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발원으로 바치는 것이라고도 했다.

정리=배현진 기자



성타 스님은 … 1952년 월산스님을 은사로 불국사에서 출가한 성타스님은 금오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고, 1955년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으며 1961년 통도사의 강원을 졸업했다. 이후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포교원장을 역임했고, 1998년(제22대)과 2006년(24대) 2010년(제25대)에 불국사 주지로 선출되어 소임을 수행해 왔다.

극락왕생은 수행 종착점 아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불교 종착점이면서 출발점입니다. 깨달음을 외면하고는 불교에서 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흔히 아미타 신앙을 통해서 내생의 왕생극락을 발원합니다. 그러나 왕생극락했다 해서 원이 다 성취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생극락함으로 해서 아미타 회상에서 좋은 환경아래 수행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극락에 갔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극락세계는 나무나 새, 모두가 다 법을 설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게 되면 사람들은 타락할 수 없고 수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깨달음을 성취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불교적 수행으로 이야기하자면 왕생했다는 것은 50% 밖에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루어야 나머지 50%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 비로소 불교의 궁극적 세계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세계는 인간의 고뇌, 갈등 등 생의 부조리한 상황을 뛰어넘는 세계이며 깨달음을 통해 도달 할 수 있는 세계이고 향유할 수 있는 곳입니다.

깨침을 이루지 않으면 어떤 곳에 있든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극락세계에 가서도 좋은 환경 속에서 수행을 하면 더 잘 되겠죠. 어디를 가든지 깨침이 대전제로 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극락세계에 가서도 수행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않으면 목표를 50프로밖에 달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사는 결코 둘 아냐

싯다르타는 출가하기 전 인생근본에 대한 문제, 죽음에서 오는 두려움, 공포 이러한 숙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6년이란 장구한 기간 동안 고행을 하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극한적 상황을 겪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행이 수행의 증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부처님은 고행을 그만두는 데서 깨달음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양 극단을 탈피하고 중도를 선택함으로써 깨달음의 길이 열린 것이죠.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연기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라는 것에 의해 생성되고 이것이 없어지면 멸한다는 것이죠. 인과 연의 관계는 우리가 사는 세계 어디든 적용이 됩니다. ‘세계일화’ 라는 말도 세상이 한 꽃송이처럼 피어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조건이 되고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죽음은 어디서 왔으며 생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죽음이란 조건에서 생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조건이 변화됨으로써 젊음이 병들고 늙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다시 생으로 가죠. 서로 조건이 되어 순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사는 결코 둘이 아닙니다. 얼핏 볼 때 생과 사는 다를지언정 인연관계 속에서 보자면 생사는 둘이면서 둘이 아닙니다. 둘이라 할 수 없으니 하나입니다. 생은 사를 포함하고 사는 생을 포함하는 보완관계입니다. 손바닥과 손등 같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요.

생을 별도로 보게 되면, 우리는 생은 좋아하고 사는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로 보면 생이라고 좋아할 것도, 사라고 해서 싫어할 것도 없습니다. 생사일여에요. 생사를 일여로 보지 못하는데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또한 차별이 생기고 분별지가 생기기에 인간에게 고통 또한 생깁니다.

집착은 고통만 초래해

좋고 싫음은 곧 집착이고 집착을 떼어낼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사를 하나로 보면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인간이 집착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지가 바탕이 돼서 집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명이 무지를 발생해서 무지가 집착을 가져오고 집착에서 고통이 옵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겁니다. 어떤 경우든지 차별과 분별 속에서 대립과 갈등이 있고 거기에는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깨달음이죠.

이를 이해하는 것도, 말로 설명하는 것도 쉽습니다. 실천이 어려울 뿐입니다.

우리는 수억 년 영겁을 집착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한 스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어떤 스님이 대단한 각오로 출가를 하고 은사스님밑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깨달을 수가 없자 그 스님은 많은 선지식을 찾아뵙고자 행각을 떠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사 스님은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고 그 스님은 바랑을 메고 길을 나서게 되었지요. 그런데 절문을 나서기도 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발에 난 상처를 보며 스님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나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공인데 왜 아파할까’. 바로 나에 집착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는 것을 벗어나면 아픈 것도 없어지니까요. 이러한 것을 깨닫자 행각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 스님은 큰 깨침을 이루고 무차별의 세계로 들어간 것이죠.

이렇듯 ‘나’ 라는 것을 버리면 절대 평등의 세계가 나옵니다. 행각을 가지 않아도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깨침은 인간 고뇌 넘어선 지혜 완성

무집착의 경지에 이르려면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라고

> “존재의 관계·인과법 등 연기의 원리 아는 것이 깨달음 곧 ‘지혜의 완성’
>
> 중생과 부처님의 차이는 청정 육체, 마음 청정할 때 부처님 세계에 접근”

못 깨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제자들이 깨달았듯 우리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깨침의 세계를 몇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느냐하고 묻는다면 세,네가지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깨침이라는 것은 인간 고뇌의 궁극을 넘어선 지혜의 완성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혜완성을 통해 연기법이 우주에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렇다면 큰 깨달음 뒤에 남는 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바로 자비 실천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든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본다면 그 존재에 대해 자비가 생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실천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깨침은 관념에 머물 수 밖에 없습니다. 참깨침은 자비가 동반될 수 밖에 없어요.

가족은 하나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돕고 살죠. 자녀를 보살피지 않는 부모는 비판받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가족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 자연, 생명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자비를 실천할 때 참된 깨침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으신 후 하루도 편하게 있지 않으셨죠. 동분서주하시면서 깨침을 실천하셨습니다. 자비는 단적으로 말하면 보시입니다. 보시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법보시, 물질보시 등 진리로 인도하는 것은 무엇이든 보시입니다. 부처님은 법보시를 계속 하신 것입니다. 길에서 사시면서 보시 자비행을 하셨던거죠. 그래서 물질만 보시하는 것을 보시라 하지 않습니다. 육체적 보시도 있을 수 있어요. 봉사를 한다든지 남을 위해 도와준다든지 하는 것도 다 노력봉사, 보시입니다. 물질로도, 지식으로도, 얼굴로도 보시할 수 있어요. 미소지어서 보는 사람마다 기쁘게 해 주는 것도 큰 보시죠.

심지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그래요. 애어(愛語),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요. 사랑은 능히 하늘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주의 근본은 나 자신도 소유하고 있어요. 나에게도 있는 참된 사랑은 우주의 사랑과도 합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보시는 고통을 덜어주고 기쁨을 더합니다. 발고여락(拔苦與樂), 괴로움을 뽑아내어 없애주고(拔苦), 즐거움을 찾아내어 얻도록 해 주는 것(與樂)입니다. 발고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죠.

고통 덜어주고 기쁨 더하는 보시

이것은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정한 사랑인지 친구인지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끝까지 가서 고통을 덜어줍니다. 덜어줌으로써 그 사람과 일체가 됩니다. 고통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요. 그 사람의 정서와 합해질 때 그 사람의 고통을 알 수 있습니다. 일체가 되어서 같이 아파한다면 그 고통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고통을 반으로 줄이는 거죠.

여락은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쁨에 같이 기뻐해주는 거죠. 기쁨은 함께 할 때 배가 됩니다. 그것이 보시의 정신입니다. 깨침을 이루면 연기법칙에 의해 만물을 하나의 식구로 보기 때문에 자비실천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청정입니다. 부처님과 우리사이에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부처님은 귀한 곳, 청정한 곳에 있다 생각하고 우리는 사바세계, 참고 견디는 세계에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중생과 부처님과의 차이는 청정입니다. 청정을 유지하지 못하기에 부처님을 멀리서 뵐 수 밖에 없습니다. 청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오염의 모습, 육체, 정신, 마음을 떨쳐 버려야합니다. 오염이 있는 한 부처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절에 가기 전 목욕재계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는 육체뿐 아니라 마음, 정신도 같이 닦아야죠. 지나친 욕심을 갖는다든지 남을 무시한다든지 이것은 다 잘못된 오염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것, 오염된 모습입니다.

육체, 마음 전체가 청정할 때 부처님의 세계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세계로 다가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깨침의 완성, 자비의 실천, 청정 세 가지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이 세 가지 가치를 갖고 있어요.

일본의 한 절에는 1400년 전에 밝힌 불을 아직도 그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등불은 부처님의 깨침의 세계, 광명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1400년 전에 밝힌 불을 아직도 보존하고 있는 것이지요.

법당에 가면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공양물을 올리죠. 원래 부처님께 바치는 것은 꽃입니다. 꽃은 기쁨을 주는 것이죠. 만인에게 기쁨을 주기에, 꽃은 자비와 보시를 상징합니다. 불은 부처님의 지혜이며, 향은 청정성을 담고 있어요. 좋지 못한 향기를 가시게 하니까요. 그렇기에 절에서 우리가 하는 행위는 부처님의 깨침의 세계로 나가기 위해 자비의 실천, 청정성 유지를 하자는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기 1대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스님들께서 원하시던 꿈의 마이크 탄생!

불자님들께서 주지스님께 올리는 최고의 보시품
(구입하시는 불자님들께는 보시자의 이름을 하단에 넣어드림)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어떤 오래된 앰프에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 멋진 모양의 마이크로 법당의 품위를 높여줍니다.



가격 : 2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진로 · 적성 · 상담 안내

인재양성

◆ 16개 항목 분석 자료 추출 ◆
■ 학습유형별 정보 제공
■ 선천적으로 적합한 계열과 학과 제공
■ 기타 성격. 인품. 평생주기별 운 예측
■ 대학 진학 (입학사정관. 수시. 정시)
■ 나와 인연되는 대학명
■ 대학 진학하는 해! 세운 분석

◆ 상 담 료 : 20만원
■ 상담 후 미 진학시 상담료 환불

◆ 학습진로상담사 학회

〈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73-2. 1층
〈지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01-98 2층
상담사 겸재 정 비오 (010-5524-7053)
〈지부〉 서울 성북구 동선동 5가 36 2층 (다솜)
상담사 박 홍언 (010-7925-4749)

C.A.C 분석서



◇프로필 :
• 명리철학교육학 석사
• 미래예측학 박사
• 미래전략교육학 교수

■ 동방대문화교육원 수업 [목]
(오후 2시 ~ 5시)
■ 국제문화대학원 수업 [토]
(오전 10시 ~ 오후2시)
■ 저서 : 규명 (1. 2. 3권 : 한솜미디어)
실전성명학 - 상원문화사

◆ 개인 지도 : 입 문 자 10개월 과정
명리전문반 3개월 과정

◆ 수업일 : 매주 화 · 금요일(오후 5시 ~ 7시)

오시는길
1호선 수원역 하차 ➡ 맞은편 720-2버스 탑동우방사거리 ➡ 새하늘교회방면 ➡ 도보 30m 규명철학연구소 1층 010-5418-5972

원효사 일대, 치유·생명지구로 탈바꿈

광주시 총 250억 원 투입, 생태탐방체험관 비롯해 지역 정비

원효사 일대 14만 2806㎡ 정비사업
여관, 음식점 등 상업지구로 이전
무등산 본래 모습 회복 기대


광주 원효사 일대 전경. 광주시는 이 지역을 치유와 건강을 위한 생명 지구로 거듭나게 할 계획이다.

최근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무등산 국립공원이 건강과 치유를 위한 생명의 공원으로 조성된다.

광주시는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을 전국 최고의 명품 국립공원으로 가꾸기 위한 '건강과 치유의 생명공원' 조성사업을 벌인다"고 1월 21일 밝혔다. 시는 우선 국립공원 내 2만㎡의 부지에 국비 등 250억 원을 들여 생태탐방 체험관을 건립한다.

무등산은 증심사, 원효사, 약사암, 문빈정사 등 광주지역 중심사찰을 비롯해 대부분의 사찰이 위치한 광주불교계의 중심지역이다. 광주시는 조성사업에 따라 무등산 북쪽 산자락의 원효사 지구도 말끔하게 정비한다. 원효사 일대 14만 2806㎡에는 현재 상가 · 음식점 · 여관 등 상업시설 22곳과 주차장 · 관리사무소 등이 들어서 있다. 시는 올해부터 상가 등을 사들여 무등산 본래 모습대로 복원하기로 했다. 기존 상가는 증심사 지구처럼 무등산 아래로 이전해 상업지구를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원효사는 제21교구 송광사 말사로 신라 원효 스님이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사찰로 1980년 국립광주박물관의 조사에 의해 신라 말기 작은 암자로 재건됐다. 고려 충숙왕대에 중창됐으며, 조선 선조 때 승병장이었던 영규대사가 수도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현대 대웅전을 비롯해 12개의 전각과 요사채와 2점의 지방문화재가 있는 광주의 대표적 사찰이다.

원효사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 무등산에는 2010년 완료된 증심사지구 정비사업이 선례로 남아있다. 2002년에 시작된 증심사지구 정비사업은 당시 무질서하게 늘어서 있어 사찰을 찾는 신도들과 등산객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낡은 음식점과 상가를 모두 이전시켜 새롭게 단장했다. 8년 동안의 정비사업 이후 증심사지구는 시민들의 문화휴식공간으로 거듭났다. 녹지공간이 확보됐으며 산행을 위한 시설도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상업지구에 입주한 상가들도 깨끗이 정비된 이후 찾는 이들이 늘었다.

이에 대해 원효사 주지 현지 스님은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관련 내용을 사찰 신도들에게 충분히 전달해 사업에 협조할 것"이라며 "사찰환경을 훼손시키지 않고 신도들과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운영할 생태탐방체험관에는 산악박물관과 함께 연수 · 문화 · 숙박 시설도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건립부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으나 광주시는 이달 중 기본설계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한편 무등산 정상의 미관을 해쳐온 방송 · 통신시설은 통합한다. 시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7월까지 '무등산 정상부 경관 및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시설을 한곳으로 합치기로 했다. 무등산 정상에는 현재 KBS와 MBC 등의 방송 통신탑 5기와 KT 통신중계탑 1기가 세워져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무산복지재단 새해 맞아 700명 무료 공양

양양지역 어르신에 선물 전달… 정념 스님 "복지 증진 나설 것"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무산복지재단(이사장 정념 · 사진)과 양양군노인복지관은 1월 23일 설을 앞두고 양양군 60세 이상 노인 700명에게 무료식사 대접과 함께 롤 화장지 등을 선물로 전달했다.

이사장 정념 스님을 비롯한 봉사자들은 이날 점심 식사를 직접 나르며 자비실천을 행했다.

정념 스님은 "설을 앞두고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작은 정성을 담았다. 지역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지역이 풍요롭다"며 복지증진에 나설 것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탐진치 버리고 보살의 길로"

전북불교대학 26일 동계특강… 도원 스님 강연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재가불자 교육기관인 전북불교대학(학장 도원스님)은 1월 26일 완산불교회관 큰 법당에서 국방부 군종과 상조 군승법사 초청 갑오년 동계특강을 개최했다. 〈오른쪽 사진〉

학장 도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갑오년 새해에는 중생으로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보살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전북 불교대학의 생활, 수행, 포교와 관련된 기준을 재정립해 보살을 길러내는 도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조 군승법사는 '수행과 삼독심'이라는 주제의 법문을 통해 "탐진치 삼독에 물든 중생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수행을 해야한다"며 "계정혜 삼학과 중단없는 수행을 통해 지혜와 복덕을 갖춘 불자다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서 도원 스님은 지난 1년동안 후원에서 학인들의 공양을 자원봉사해 준 불자들에게 감사 선물을 전달했다.

전북불교대학은 올 겨울방학동안 3개월 과정의 전주시민을 위한 불교아카데미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전북불교대학은 현재의 완산불교회관에서 새로운 학사로 이전해 새 학기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고창읍내 불교회관 건립한다

1월 19일 교구 운영위원회서 의결…수익사업으로 재원 마련



조계종 24교구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1월 19일 교구 운영위원회와 교구종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갑오년 종무행정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2014년 교구 종무계획에 따르면 강학과 수선, 복지와 문화의 도량 조성. 복지불사를 위한 수익사업 창출, 불교회관 건립과 청소년 포교의 토대 구축, 지장도량 및 기도환경 조성, 석전기념과 건립 등 5대 주요 사업계획안이 의결됐다.

세부계획으로는 사회복지와 승가복지의 토대를 마련하고 불자 및 주민들과 함께 문화도량 공동체를 이룩하고 고창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승려노후수행마을, 승려복지를 위해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보은염, 복분자 음료. 녹차 판매 등의 수익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불교회관 및 아동복지타운을 건립해 영유아보호시설(영유아 어린이집 건립)과 방과 후 보육시설, 아동상담실, 부모교육실, 장난감 도서관, 영어체험센터, 어린이도서관은 물론 아동과 청소년 문화센터 등 복지사업으로 지역포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천지인 삼장지장기도량을 부각시켜 선운사 도량 전체를 지장성지로 이뤄 불자들이 언제나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수행환경을 조성한다.

석전 기념관 건립 및 선전 평전 발간 등도 진행된다. 이밖에 연중 지속사업으로 청소년들의 문화 한마당인 '38회 동백연'이 4월 중 개최되고 가을에는 선운문화제가 열린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새터민 위한 광주지역 불교계시설 개원

'송광한사랑방'… 주민 커뮤니티·세미나 장소 등 활용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된 정착을 지원할 광주지역 불교계 시설이 개원됐다.

송광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제, 광주 길상사 주지)은 1월 28일 복지관 2층에 '송광한사랑방'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원한 송광한사랑방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및 주민 커뮤니티센터 복합기능을 수행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 구직 상담 및 취미, 학습 프로그램 운영, 동호회 활동공간, 세미나장소로 제공된다. 개원식은 월곡중학교 댄스팀의 식전행사에 이어 개회식, 인사말, 경과보고, 축사, 북녘에 있는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 선물전달, 합동차례에 이어 현판식, 나눔잔치로 진행됐다.

이날 도제 스님은 인사말에서 "송광한사랑방이 북한 이탈주민과 지역주민들의 열린공간으로 활용되어,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좋은 공간으로 회향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송광한사랑방은 지난 2012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국 · 시비 1억 3000만원 지원금으로 총면적 131.25㎡에 시설과 집기를 마련했다. 2014년 1월 광산구청과 위탁운영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참석한 북한이탈주민은 설날 이곳에서 합동차례를 지내며 타향살이의 고단함을 서로 나눌 계획이다. 나눔잔치에는 저녁공양과 가요공연(활인도연예봉사단) 등이 진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군산 성불사 설맞아 자비의 쌀 기탁

군산 성불사(주지 종명스님)는 1월 25일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쌀 30포대를 경암동 주민지원센터에 기탁했다.

종명 스님은 "이웃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맞이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신도들과 정성을 모았다"며 "더 외롭고 힘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암동 사회복지과 담당자는 "종명스님과 종명스님께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기탁해주신 쌀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라남도,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

전남지역 문화재에 대한 돌봄사업이 시작된다. 전라남도는 올해 문화재 돌봄사업에 17억 원(국비 10억, 도비 7억)을 투입해 512개소 정비에 나선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폐사지, 산간 오지 등 관리가 취약한 '나홀로 문화재'를 정비하는 것이다. 창호나 벽체, 마루, 기와 등이 경미하게 훼손된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바로 복구할 수 있다.

올해 사업은 전남도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사단법인 문화재예방관리센터에서 주관해 22개 시군을 권역별로 나눠 12팀 55명의 '기동보수반'을 운영한다. 소속 직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저소득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에서 40%이상 채용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정문화재의 60% 이상을 상시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게 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 육 과 정

(1) 초 · 중급과정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욕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 · 중급 이수자에 한함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신중작법(104위, 39위), 욕건이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게작법
◆ 가지게

■ 강주스님 : 성 우
◆ 개강일시 : 2014년 3월 6일 목요일
◆ 교육시간 : 초 · 중 급 – 목요일 오전 10시 ~ 1시
상 급 –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한국불교태고종 대구종무원과 경북종무원이 통합하기에
2014년부터 한곳에서 수업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한 국 불 교 태 고 종 경 북 교 구 종 무 원

(사)영남범음범패 연구보존회 제12기생 학인모집

사단법인 영남범음범패연구보존회에서는 신라의소리 영남범패의식을
6개월과정으로 탁마할 학인스님을 모집하여 개강하고져 합니다.

– 아 래 –

■ 자 격 : 삭발염의한 스님 (일반불자 제외)
■ 개강일 : 2014년 2월 19일(음력 1월 20일 수요일) 오후 3시
■ 매주 월. 목요일 오후 3시부터 강의합니다. (주 2회)
■ 장 소 :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86번지 화장사 (진영포교당)
■ 과 목 : 초급반 – 예경의식(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각단예불등)
중급반 – 사시불공, 49재및 천도재의식. 관음시식, 사물다루는법
상급반 – 바라 및 착복무(오공양 작법). 사물다루는 법
■ 강 사 : 묘산, 수암, 일산, 귀암, 경암, 덕우 (011-488-7060)
(내전강의는 본회의 학장이신 한파스님께서 직접 강의를 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055) 343-2267~8700



(사단법인) 영 남 범 음 범 패 연 구 보 존 회

"사고의 틀 佛法으로 전환시킨다"

안동 보경사 정해학당 2박 3일 겨울수련회

안동 보경사(주지 오경) 정해학당은 2월 7~9일 2박 3일 동안 24시간 릴레이 강의로 유식 30송 풀며 겨울 수련회를 진행한다. 3시간 연강으로 진행되는 강의는 하루 3강, 총 9시간을 강의를 듣고 토론하고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형식이다.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도 강의를 듣는 입장에서도 결코 만만한 수련회가 아니다.

주지 오경 스님은 "삼천배, 철야정진으로도 깨부수기 어려운 잘못된 관념, 아집, 사고의 오류 등을 하나하나 짚어 나가며 사고의 틀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라고 설명한다.

이번 겨울 수련회 집중 강좌는 유식(唯識)이며 그 중에서도 유식 30송을 다양한 경전들의 통섭을 통해 풀어낸다. 하루 9시간씩 삼일동안 총 24시간의 릴레이 강의를 준비 중인 오경 스님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는 마음이 남다르다. 어렵다는 유식을 그것도 사흘간 혼자 24시간강의해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 중이라는 스님은 "이번 유식 30송 강의를 통해 존재의 실상에 대한 논리적, 체계적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유식은 자연과학자, 인문학자, 사회학자 등 그 누구라도 우리를 둘러싼 대상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을 통섭하는 사상이고 이 모든 것들의 근거가 되는 사상이므로 유식을 배워 이해하게 되면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되어 나와 세상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게 되면서 사고의 전환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시간 릴레이 강의로
유식 30송 뜻 풀어내
존재의 실상 이해

특히 스님은 참선 중심적 사고 즉 직관적 사고와 서술에만 익숙해진 우리 불교의 현주소에 분석적, 논리적 유식불교를 보완하면 불교의 진정한 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동 보경사는 이미 2012년, 2013년 두 차례 1박 2일 동안 증도가, 신심명을 집중 공부하는 여름 수련회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이 같은 경전 집중 강좌 수련회는 보경사 부설 정해학당 회원들의 요청에서 비롯됐다. 부산과 안동에서 경전 공부와 참선 수행을 이어오고 있는 재가 공부 모임인 정해학당 회원들은 그동안 금강경, 반야심경, 대승기신론 해동소, 원각경, 화엄경, 육조단경, 수심결 등 경전과 선어록 등을 꾸준히 공부해왔다.


안동 보경사는 2월 7~9일 2박 3일 동안 24시간 릴레이 강의로 유식 30송 풀며 겨울 수련회를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수련회 장면.

매주 1회 진행되는 경전 강좌를 이어오면서 오경 스님의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강의에 매료되면서 경전 공부의 깊이를 더해가며 공부 재미에 빠져든 회원들이 만들어낸 특별한 수련회인 셈이다.

정해(正海)학당은 2009년 4월, 부산에서 처음 개원이래 경전 공부, 참선 수행 등 배우고 익히는 수행도량의 기능을 강조하는 공부 모임으로 이어왔다. 이후 안동 보경사를 창건하면서 안동 정해학당이 문을 열었고 이후 두 곳의 학당에서는 금강경, 반야심경, 대승기신론 해동소, 화엄경, 원각경 함허해 등의 강의로 불교 경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이끌어 내었고 참선 실수를 통해 선교일치의 가르침을 실현시켜 왔다. 또한, 오경 스님은 부산과 안동의 정해학당 경전 강의를 비롯 서울의 정해사, 대구, 대전 구도회에서 금강경을 강의 중이며 철학 전공자답게 논리적, 체계적, 철학적 강의로 마니아층이 형성돼 있다. 특히 일방적 강의를 자제하고 수강생들과 함께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며 함께 진리를 찾아, 자연스럽게 공부의 깊이를 더해가는 열린 강의로도 유명하다. (054)842-408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이웃과 함께하는 자비와 사랑 나눔

부산 대광명사 사무량심회

팔순의 김할아버지는 몇 년 전만 해도 다복한 가정에서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빚보증으로 모든 재산을 다 날린 지금 할아버지는 알콜 중독과 우울증으로 폐인이 된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있다. 식사 준비 및 모든 것을 할아버지가 맡아 하다 보니 집안은 엉망이다.

부산 대광명사(주지 목종) 사무량심회가 설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행을 실천 했다. 사무량심회(회장 이해은)는 1월 28일 설명절을 앞두고 해운대 지역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거노인과 조손가정 90가구를 방문하며 쌀, 생필품 등 온정의 물품을 전달했다.

사무량심회 이순희 부회장은 "부처님 법을 배웠으면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 멀리 쳐다 볼 필요 없이 가까운 내 이웃들을 돕고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불자라는 가르침에 마음의 큰 울림이 있었다"며 사무량심회의 동참 사연을 전했다.

사무량심회는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은 불자들이 자비실천을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봉사단체다. 어느덧 창립 5년을 맞게 된 사무량심회는 매월 2회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첫째 주는 노인들의 건강과 영양보충을 위한 반찬도시락 배달, 셋째 주는 쌀 · 생필품 등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무량심회는 1월 28일 설명절을 앞두고 독거노인과 조손가정에 쌀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매월 2회 소외이웃에게
반찬 · 생필품 등 전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조사하던 중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혼자 사시는 어려운 노인들을 비켜간 복지정책 사각지대가 심각함을 파악하고 독거노인, 조손가정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노인들이 혼자 살다보니 밥보다 반찬이 빈약했고, 영양불균형이 심각해서 사찰에서 직접 반찬을 만들어 도시락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이런 선행이 사찰과 지역에 알려지면서 어느덧 후원 회비를 내는 봉사자와 후원자가 100여명을 넘어섰다. 또한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도 증가하고 있다. 이순희 부회장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내려 놓는 것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나누고 실천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 그것은 내 마음에서 자라나는 행복과 감사의 마음이 나를 더욱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환한 웃음으로 말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몽골 前 대통령 금강경 번역 사업 추진

지안 스님과 문답 주고 받으며 강의

몽골 전 대통령이 불교의 대표적 경전인 금강경의 몽골어 번역과 해설 등 불경연구를 위해 영축총림 통도사에 머물렀다. 남바린 엥흐바야르(57) 전 몽골대통령과 철명 여사는 1월 21일~27일까지 6박7일간 통도사 반야암에 머물며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으로부터 직접 불교의 대표적 경전인 금강경을 공부하는 인연을 맺었다.

강의는 주로 영어로 진행됐으며 남바린 엥흐바야르 전 대통령이 먼저 내용을 읽고 궁금한 점에 대해 지안 스님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대부분 지안 스님이 직접 답했지만 정확한 전달을 위해 통도사 승가대학에 재학 중인 덕상 스님과 한국에 온 지 5년 된 바트보양 몽골 스님이 수업에 함께 참여해 통역했다.

하루 3차례 2시간씩 6시간 동안 진행된 수업은 엥흐바야르 전 대통령의 학문적 열정으로 매번 예정된 시간을 넘기는 것이 예사였다. 지안 스님은 "오전 4시에 일어나 하루 세

6박7일간 통도사 반야암서
하루 3차례 6시간 수업
세 차례 불공도 인상적

차례 불공을 올리고, 하루 이종식을 지키며 불경을 암송하는 모습은 여느 수행자 못지 않았다."며 "경전 강의시간에는 세심하게 메모를 놓치지 않는 모습에 크게 탄복했다"고 말했다.


남바린 엥흐바야르 전 몽골대통령과 철명 여사는 6박 7일간 통도사 반야암에 머물며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으로부터 금강경을 공부했다.

남바린 엥흐바야르 전 대통령은 한국과 이미 깊은 인연을 맺은 바 있다. 대통령 재직시절인 2006년 포교부문 만해대상을 수상했으며, 티베트어와 고대몽골어로 된 경전을 몽골 젊은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금강경 번역 사업추진을 위해 2013년 12월4일 서울 화계사를 찾기도 했다. 이번 지안 스님과의 만남은 엥흐바야르 전 대통령의 이같은 지극한 원력의 결실이라 할 것이다.

남바린 엥흐바야르 전 대통령은 몽골인민혁명당 소속으로 2005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제3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대통령에 앞서 문화부장관,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주요 요직을 거쳤으며 현재도 몽골의 중요한 지도자 위치에 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우리는 달리는 포교사다"

대구 정법호출택시 발대식

대구 도심 포교도량 한국불교대 대관음사와 불자 운전자 모임인 '정법호출택시'가 불교 포교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구 정법호출은 1월 28일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 유병옥 회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신행단체로 포교발대식을 가졌다.

회원들은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의 포교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승객들에게 전하는데 달리는 포교사로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대관음사 주지 밀허 스님은 "택시 한 대가 하나의 달리는 법당이고, 운전자 한사람이 한명의 법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해 달라"며 "부처님 공부와 함께 행복하면서 청청하고 맑은 사회와 국가를 세워나가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대구 정법호출택시는 1월 28일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 포교발대식을 가졌다.

한국불교대 신행단체로
운전자가 한 명의 법사
"불법 전파 다짐"

임미화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신도회장도 "달리는 법당의 포교사로 250만 대구시민이 불국토가 되는 그날까지 모두가 포교전선에 나서는 선주자가 되어 불국토를 만들어 가자"고 다짐했다.

한편, 정법호출택시는 유병옥 회장 외, 현재 330여 명의 회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불교포교와 봉사활동에 힘을 쏟고 있으며,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의 위상과 '우리는 달리는 포교사'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아픈 이들 간절한 발원 품어주는 약사여래도량

찜질방이 있는 사찰 - ① 횡성 불토사

초기 불교의 절에는 찜질방이 있었다고 한다. 황토벽을 발라 잘 다진 방을 만들고 불을 지펴, 몸을 지지고 땀을 흘렸다. 말 그대로 찜질방인 셈이다. 최근 발간된 〈부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불광출판사 펴냄)의 저자 원영 스님은 스님들이 생활하는 승원의 초기 모습을 이렇게 전한다.

요즈음은 절에서 찜질방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신도들의 건강을 위해 찜질방을 만든 곳이 있다. 대표적인 곳이 치악산 자락의 강원도 횡성 불토사다. 약사여래도량답게 7년전 중창 불사를 하면서 주지 지성 스님이 황토방을 만들어 놓았다. 물론 기도목적으로 찾아온 불자들에게만 무료로 제공된다.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리 예약만 하면 누구에게나 무료로 방과 식사, 찜질방이 무료로 제공됐다. 하지만 공중파와 케이블TV 등 각종 방송 매체에 불토사가 '찜질방이 있는 이색 사찰' 로 소개되면서 사람들이 몰려와 불가피하게 제한을 두게 됐다. 그래서 이제는 철저히 병을 고치거나 기도 하려는 사람들 위주로 예약을 받아 운영한다.

불토사는 원래 수백년이 넘은 조그만 암자가 있었다. 이것을 현 주지 지성 스님이 약사여래도량으로 일군 것이다. 그래서 종무소 앞에서 계단을 오르면 오른쪽에 높이 10m의 약사여래불이 사바세계를 내려다보고 있다. 약사유리광여래불이라고도 하는 이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재앙을 소멸시키며, 부처의 원만행을 닦는 이로 하여금 무상보리의 묘과를 증득하게 한다. 그는 과거세에 약왕(藥王)이라는 이름의 보살로 수행하면서 중생의 아픔과 슬픔을 소멸시키기 위한 12가지 대원(大願)을 세웠다. 이것이 바로 약사십이대원(藥師十二大願)이며, 그 공덕으로 부처가 되었고 또 한량없는 중생의 고통을 없애 준다는 의미이다. 이 십이대원 이외에도 극락왕생을 원하는 자, 악귀를 물리쳐서 횡사를 면하고 싶은 자, 온갖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자들이 약사여래의 명호를 부르면서 발원하면 구제 받을 수 있다고 스님은 약사 신앙을 소개했다. 실제로 불토사를 다녀간 환자들이 가피를 많이 입은 사례를 지켜보았다고 찜질방에서 만난 한 신도는 귀띔한다.

불토사는 전각이 몇 개 안되는 작은 사찰이다. 목조로 돼 세월의 무게를 느끼게 해 주는 무량수전과 왼쪽의 천불전이 주 전각이다. 역사는 얼마 안됐지만 예불과 기도 만큼은 여느절 못지 않게 철저하다. 주지 스님이 거의 산문 밖을 안나가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불토사에서 명소중 명소로 꼽히는 곳은 바로 찜질방이다. 눈으로 직접 봐야지 믿음이 가는 절 속 찜질방은 50도 황토방의 열기를 솔잎 침대

천불전, 무량수전, 약사여래불 등 '눈길'
웰빙템플 명성…찜질방, 건강 밥상 제공
기도객 위주로 이틀 전 예약 후 이용 가능

위에서 즐길 수 있다. 이 곳은 사찰에서 운영하는 무료 찜질방으로 기도를 마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시사철 운영되고 있다. 거기다 사찰식 채식 밥상도 제공된다. 배가 불러도 절대 손을 놓을 수 없는 건강 밥상이다. 또한 예약만 한다면 하루 숙박까지 할 수 있다. 물론 이제는 기도객들에게만 제공된다.

주지 지성 스님은 요즘 몸이 아프신 분들이 절을 많이 찾아 찜질로 건강해지라고 찜질방을 만들게 됐다고 밝힌다. 처음에는 찜질복도 제공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세탁하기가 곤란해 이제는 개인지참으로 바꿨다. 불토사 찜질방 이용을 원한다면 홈페이지나 전화로 이틀전 예약해야 이용 가능하다. (033)343-0103, www.bultosa.kr.

횡성 불토사=김주일 기자


초기불교의 절에는 찜질방이 있어 스님들이 이용했다고 한다. 약사여래기도도량인 횡성 불토사에는 찜질방이 있어 불자들에게 인기다. 사진은 눈내린 불토사 전경.


사바세계를 내려다보고 있는 약사여래불


1천 부처님을 모셔놓은 천불전 내부


바닥에 솔잎들이 깔려있는 천연황토 찜질방

"아픈이들 위해 찜질방 만들어"



주지 지성 스님

"불토사는 템플 웰빙 라이프 사찰입니다. 약사여래도량인 만큼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고픈 이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들의 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고 싶어 손수 찜질방을 만들었습니다."

곳곳에 소나무와 숯이 놓여있고 바닥엔 직접 체취한 솔잎들이 깔린 이 천연 황토 찜질방을 손수 만든이가 바로 주지 지성 스님이다. 솔잎들을 바닥에 깔고 덮어 찜질을 하면 원활한 노폐물 배출은 물론 오장육부의 기능강화를 돕는다는게 스님의 설명이다. 이뿐 아니라 지성 스님은 이곳을 찾는 이들의 원활한 기 순환을 위해 쑥 뜸을 뜨고 가끔씩 각종 약초로 음식을 만들어 대접도 한다.

"젊은 시절, 척추 관련 질환으로 크게 병을 앓고 난 후 아픈 사람들만 보면 유독 신경이 쓰여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지만 찜질방을 만들었지요." 김주일 기자

여행수첩

▲주변 여행지

◇횡성호수길=산과 숲에 둘러싸인 횡성호는 남한강 제1지류인 섬강의 물줄기를 막은 횡성댐(2000년 11월 준공)으로 만들어진 인공호수다. 총 저수량 8,690만톤, 유역면적 209㎢인 횡성호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횡성호수길은 2011년 가을에 조성됐다. 모두 6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는 횡성호수길의 총 연장은 27㎞. 가장 짧은 3구간 1.5㎞를 걷는 데 1시간 정도가 걸리고 가장 긴 4구간과 6구간은 각각 7㎞로 2시간30분 정도 소요된다. 6개 구간 중 호수를 가장 가까이서 걸을 수 있는 5구간은 평탄한데다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귀코스라 인기가 높다.

◇자작나무 그늘 아래 미술관 자작나무숲=사진작가인 원종호 관장이 20여년 전부터 자작나무를 심고 가꾼 전원형 미술관이다. 조성 당시에는 1만2,000그루의 자작나무를 심었지만 현재는 4,000그루 정도만 남아 있다. 전시실에는 원관장이 찍은 백두산 자작나무숲 사진 등 여러 작품이 걸려 있다. 미술관 자작나무숲은 스튜디오 갤러리와 기획전시실인 제1전시실, 상설 전시장인 제2전시실, 펜션 2개동을 갖췄다. (033)342-6833

◇마을 미술프로젝트=횡성군 횡성읍 옛 양조장 거리 일대가 예술 · 디자인 거리로 새롭게 단장됐다. '그리움과 꿈의 시간-백로의 여행' 이라는 주제의 횡성 마을미술프로젝트는 횡성 군조(郡鳥)인 백로가 과거와 현재 · 미래를 여행하는 것을 그림과 타일벽화 등으로 형상화했다. 거리 중심에는 백로가 길을 살피는 조각이 설치됐다.

▲주변 맛집

막국수로 유명한 장가네막국수(033-343-8377)와 더덕정식이 맛있는 박가네더덕밥(033-344-1116), 원조수구레해장국(033-343-6489), 강남해장국(033-345-5900) 등이 있다. 무엇보다 횡성의 맛하면 단연코 안흥찐빵을 꼽는다. 1968년부터 시작해 4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면사무소앞안흥찐빵' 과 '심순녀안흥찐빵' 이 원조 격인데 둘은 자매다.

▲불토사 가는길

대중교통=횡성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내려 택시를 탄다. 절까지 오는 버스는 없다.

네비게이션(자가용)=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356-3/원주 IC로 나와 횡성읍내까지 온 뒤 공근 방향으로 직진하다 만나는 첫 다리에서 죄회전해서 쪽 들어가면 불토사 이정표가 곳곳에 보인다.



한국불교의 정통 맥 마곡사 화원에서 전래 전통기법 그대로 !!!

전통 '조왕탱화' '반야용선'

조왕탱화

부엌의 신인 조왕신(부엌을 관장하는 신)을 묘사한 불화. 사찰의 조왕단(竈王壇)에 봉안된다.
신중탱화의 일종이며, 조왕신앙은 우리나라 재래의 민간신앙이다.
불교에서는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정화하여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불교에서는 황신(荒神)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 중국은 염제(炎帝), 일본은 가마도신. 모두 불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탱화에는 보통 조왕대신을 중심으로 좌측에 담자역사(擔紫力士) 우측 조식취모(造食炊母)가 그려진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왕단에 탱화 대신 '南無 竈王大神(나무조왕대신)' 이라는 글자를 봉안한다. 조왕은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의 하나로 인사(人事)를 검찰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리는 신으로서 참여한다. 그러나 조왕은 다시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 산신, 용왕, 칠성들처럼 독립한다.

■ 크기 : 가로 61cm × 세로 91.5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괘불형


조왕탱화


반야용선

반야용선

어지러운 세상을 넘어 피안의 극락정토에 갈 때 탄다는 배를 말한다. 반야(般若)란 모든 미혹(迷惑)을 끊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힘이나 모든 법을 통달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을 뜻한다. 반야용선도는 망자를 위해 걸었던 그림으로, 그림에는 보통 좌로부터 극락의 주인인 아미타부처, 극락으로 인도하는 깃발을 든 인로왕보살, 반야용선과 망자가 표현되며 슬픔에 젖은 유가족이 그려지기도 한다. 즉 반야용선이 그려진 것은 망자가 아미타부처가 계시는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往生)하기를 염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크기 : 가로 90cm × 세로 130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괘불형

한 탱화 수강 신청안내

불모의 도움을 받아 한 탱화 조성 과정(1.출초 2.배접 3.아교포수 4.도채 5.바림 6.문양 7.금니 및 황선쫓침 8.금박붙이기 9.상호 10.틀 싣기 11.발미)을 통해 탱화의 기초와 기능을 함께 배우면서 완성도 높은 예배용 탱화의 완성이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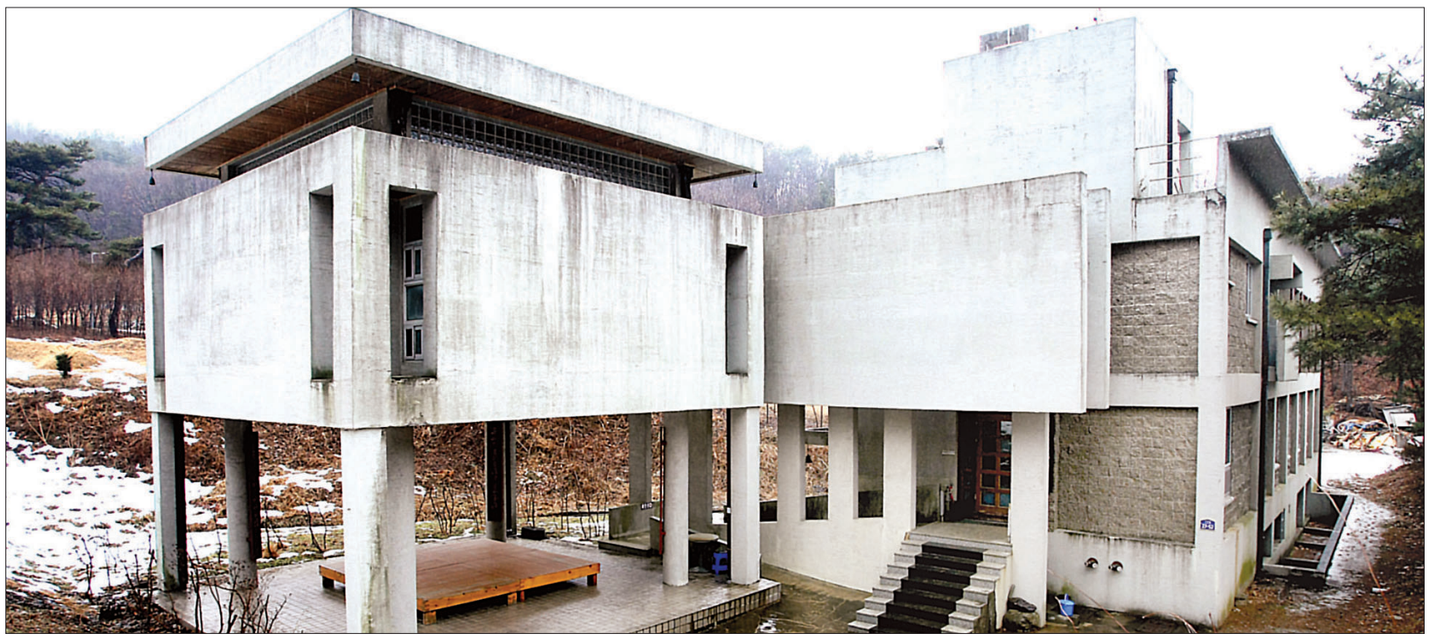
– 모집분야 : 한 탱화과, 기초기반(도안)과, 교육 민화(단청)과
– 모집인원 : 서울 (한 탱화과 20명 / 교육 민화 단청과 20명).
경주 (한 탱화과 10명 / 기초기반 도안과 10명). 부산 (한 탱화과 10명)
– 교육장소 : 서울 – 양천구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한국전통채색학교
경주 –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1008-16 한국전통채색학교
부산 – 진구 연지도 부산시민공원 인근 한국전통채색학교
–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 교육일정 : 2013년 10월 16일 – 2014년 3월 16일 (5개월)

성유불화원 금어 조성철 합장
문의 051)332-0045 / 010-9216-0988

新 사찰 건축

2. 안성 도피안사 향적당

“이 시대 건축, 미래 전통되면 의미 있는 일”



현대식 사찰의 원조격인 안성 도피안사 향적당은 콘크리트라는 가장 실용적인 재료로 지어져 불교건축의 새 가능성을 보여줬다.

콘크리트 사찰이 ‘보편’ 될 수 있을까

소박한 오솔길 끝에 도피안사가 있다. 속세를 떨치듯 도심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이지만 절입구에서 만난 건물은 의외로 도시스러운 건물이다. 회색빛 콘크리트에 다홍빛 주련을 걸친 향적당. 건축 잡지에나 실릴법한 건물이 산 중턱 그것도 사찰 안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 생경하다. 서체 디자이너 안상수 교수가 쓴 ‘법의수레 미묘법문 굴려지이다’ 같은 한글 주련이 걸린 향적당은 사찰의 당우라기에는 초현대적이고 산 속에 있기에는 이질적인 느낌의 건물이다.

“보편적인 사찰건축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시대에 흔한 재료로, 이 시대에 적정한 절 집을 짓자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절은 이 시대에 지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절 집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건축가 이일훈 씨(62)는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향적당을 철근콘크리트로 지어 올렸다. 불교건축이 자꾸 전통적 기와집 형태를 답습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이전에도 사찰 불사 의뢰가 들어오면 이러한 제안을 내놨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사찰이 변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공의가 형성되지도 않았고, 있었다하더라도 파격에 가까운 그의 시도는 불교계 정서상 무리였던 것이다. 그러다 그는 현대식 사찰 불사를 생각 중이던 도피안사 주지 송암 스님과 만나게 되었다. 향적당이 완공된 2000년 그 당시에는 현대식 사찰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었다.

“새 사찰이니 새롭게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통적인 사찰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짓잖아요. 도피안사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평소에 친분이 있던 홍익대 안상수 교수님이 그러더라구요. ‘불교는 1500년 전 그대로 머물러 있다. 건축을 보더라도 조선시대 복제품은 있을지언정 현대에 어울리는 불교 건축은 없다’ 고요. 맞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현대 건축에 있어서 불교 건축에는 분명히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동시대인의 아이디어와 불교적 사상이 어울리는 공간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송암 스님은 “신라시대에 철근콘크리트가 있었다면 그것으로 절을 지었을 것”이라며 불교 건축물이 시대에 맞게 창의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하던 건축가 이일훈씨에게 도피안사 향적당을 맡긴 것이다.

향적당 속 다양한 읽을거리

뜻이 통하니 건축 과정도 수월하게 흘러갔다. 건축주와 건축가는 작업을 하며 서로 입장차만 벌이기 십상인데 두 사람 다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데다 의욕마저 넘치니 일이 수월할 수밖에 없었다. 덕분에 향적당에는 스님과 건축가의 합동작업, 콜라보레이션이 등장한다. 종교적 상징물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옥상 위 작은 종루에 도솔문이라 이름 붙인 것도 송암 스님이다. 옥상을 올라가는 이들에게 그대로 ‘경책’이 되곤 하는 난간없는 계단, 그 끝에 자리한 도솔문은 종교건축물이라는 정체성을 집약하고 있는 부분이다. 직사각형의 프레임안에 종이 달린 도솔문에는 정작 문이 없다. 때문에 프레임 안에 허공이 가득차고 색인지 공인지 분간할 수 없는 세계가 구현된다.

크게 본채와 활공루 두 부분으로 나뉜 향적당은 구성이 특이하다. 기둥으로 건물을 높이 들어올리고 남은 빈 공간에는 나무 평상을 늘어놓았다. 다람쥐가 뛰어다니고 바람이 통하는 누각을 현대적 방식으로 재현해낸 활공루다. 그 옆 본채는 여남은 개의 계단을 올라가게 만들어 2층같은 1층 느낌을 연출한다. 전통사찰건축에서 볼 수 있는 기단처럼 높이를 주어 당당하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지하층의 환기나 채광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다.

이처럼 건물을 두 부분으로 분리시킨 데는 이일훈 씨가 평소 건축설계방식으로 내세우는 ‘채나눔’ 기법이 적용됐다. 채나눔은 전통 가옥에서 사랑채와 안채 등을 분리한 것처럼 건물 고유의 성격을 살려내 각각의 독립된 공간을 부여해주자는 이일훈 씨만의 건축이론이다. 한 건물 안에서 의식주는 물론 쇼핑, 은행, 운동까지 가능한 현대 건축물은 동선을 최소화해 소통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점에 착안, 안과 밖을 나눠 ‘교류’를 만들자는 생각이다. 이러한 기법을



향적당 옥상에 설치된 ‘문없는 문’ 도솔문은 허공과 어우러져 그대로 색즉시공이다.

적용시킨 건물로 그는 서울시 건축상(97), 강원도 건축상(98) 등을 수상했다. 그가 설계한 24평짜리 주택은 거실과 다실이 나뉜 까닭에 비바람을 맞고 차를 마시러 가야하지만, 움직임과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건물은 기존 건물에서 추구되던 효율과 편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겉모양은 다소 차가운 느낌이 드는 향적당이지만, 내부는 나무로 마감해 화사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자세히 보면 활공루 위 천장과 경사로가 있는 기둥 천장도 나무를 덧대어 포근함을 입혔다. 겉만 보아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다.

친근한 기분을 안고 경사로를 따라 향적당으로 들어가려는데 출입구가 두 개다. 정면 계단은 종무소로 이어지고 건물 왼쪽에 있는 출입구는 2층으로 갈 수 있는 계단으로 통한다. 그런데 입구 경사로가 유난히 좁다 싶은가하면, 경사로가 끝나는 곳의 계단은 또 넓다. 이일훈 씨는 “전통 건축에서 좁은 문을 통해 넓은 마당으로 나가는 것처럼 다양한 길과 공간의 경험을 통해 다채로운 느낌을 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옥상 종루의 ‘도솔문’은 문없는 문
종교건축물 정체성 집약한 부분
본채 · 활공루 ‘채나눔’ 기법 소통 도모
다용도 공간으로 실용성 높여

“형태만 있는 전통 의미없어
재료 바꾼다고 전통 버리는 건 아냐
밖이 안보이면 나가서 숲을 걸어야”

향적당 1층에 자리한 종무소 너머 공양간은 특이하게도 좌식이다. 나무탁자 여러 개를 늘어놓아 소모임 등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 ‘최소 공간, 최대 인원’을 충족시키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다.

이처럼 향적당은 공간 용도를 규정해두지 않고 사용자 편의에 따라 쓰임에 탄력성을 두었다. 선방을 염두에 두고 지어진 2층 활공루 건물도 그 중 하나다. 본채에서 좁은 복도를 따라 가면 나오는 선방은 현재 차실로 활용되고 있다. 짧은 복도를 일직선상으로 내어 바로 통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ㄱ’ 모양으로 꺾어줌으로써 길을 확장했다. ‘불편하게 살기, 밖에 살기, 늘려 살기’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채나눔기법이 적용된 결과다. 산중 가람에서 가장 깊숙이 자리한 선방을 현대적으로 재현해낸 것이기도 하다. 동선은 늘었지만 송암 스님은 “걸으면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다”며 향적당 중 마음에 드는 곳으로 이 복도를 꼽았다.

마음을 비워내고 들어간 활공루 안은 창문이 유난히 작다. 빛이 잘 들어오지 않을 법도 하지만 천장에 햇빛을 받을 수 있는 ‘빛우물’을 내어 채광을 보완했다. 격자무늬로 낸 장식은 창문에 설치한 한옥문 모양의 덧창과 어우러지며 방안을 부드럽게 밝힌다.





창문을 좁게 내고 천장의 빛우물(좌)을 통해 채광을 보완한 데는 자연과 직접 마주하라는 건축가 이일훈 씨(우)의 의도가 담겼다.

처음에 송암 스님은 “산에 있는 절인데도 창밖의 숲이 보이지 않는다”며 창문크기를 넓혀달라고 건축가에게 주문했다. 그러나 건축가 이일훈 씨는 밖이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자신이 의도한 바라며 “숲을 보고 싶으면 편하게 앉아서 보지 말고 밖으로 나가 숲을 걸으면 더 좋다”는 뜻을 전했다. 건물에 미묘법문이 녹아 든 셈이다.

불교 건축의 새 가능성

불교적 전통성을 계승하면서도 실용성을 잃지 않는 향적당이지만, 이를 납득시키기 위해 개최한 설명회에서는 신도들 대다수가 어안이 벙벙했다고 한다. ‘콘크리트’란 말에서 ‘불사’가 아닌 불도저식 건축이 연상됐기 때문이다.

사실 콘크리트는 현대에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손가락질당하고 있지만, 근대건축은 콘크리트를 주재료로 쓰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해왔다. 이전까지만 해도 벽돌, 나무 등 소재의 한계에서 비롯된 획일적 형태에 갇혀있던 건축물은 비로소 마음대로 주물이 가능한 콘크리트를 통해 건축적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왔던 것이다. 콘크리트가 보편적으로 쓰일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소재에 담긴 무한성에 있다. 도피안사는 가장 실용적인 재료로 불교 건축의 새 가능성을 보여줬다.

많은 건축물들이 콘크리트로 지어지는 동안에도 사찰이니까 괜찮다며 구습을 고집해온 것은 어찌보면 아만이 아니었을까. 불교 건축이 1500년전 박제품에서 벗어나 시대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것이 종교이기 때문이다. 근본을 버리지 않되 많은 수의 사람들과 보편적으로 접할 수 있는 방법을 부단히 찾아내야 하는 것이 종교의 의무인 것이다. 부처님 또한 왕궁 밖으로 스스로 걸어나가 거리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설법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불교 건축에 대한 무조건적인 고집과 성찰없는 답습은 불교 사상을 퇴보시키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이일훈 씨 역시 불교건축이 현대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 비슷한 말을 한다.

“형태만 있는 건축은 의미없습니다. 공간과 형태가 같이 존재해야 좋은 건축이죠. 이 시대의 공간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이 시대의 형태가 되는 거지요. 그 과정에서 전통을 살리면서 새로운 건축이 미래의 전통이 된다면 의미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피안으로 가는 길에서 서성이는 우리들에게 도피안사는 과거가 아닌 지금, 여기에 뚝심있게 발을 내딛으라 말하는 역설의 공간이다.

글=배현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한국의 구법승

3. 그들이 인도로 간 까닭은?

죽음 무릅쓴 구법원력 "중생교화"

인도로 떠난 구법승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였다. 육로와 해로가 그것이다. 해로는 바람과 해류를 잘 타면 그나마 위험을 줄일 수 있었지만 육로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구법승들이 택한 육로는 거대한 산맥과 광활한 사막으로 오늘날에도 쉽게 지날 수 없을 정도로 험하다.

장안에서 서쪽으로 돈황으로 가면 파미르고원까지 타클라마칸 사막이 펼쳐진다. 동서로 6천리, 남북으로 1500리라는 거대한 이 사막을 지나면 7000m가 넘는 산들이 수없이 펼쳐지는 힌두쿠시 산맥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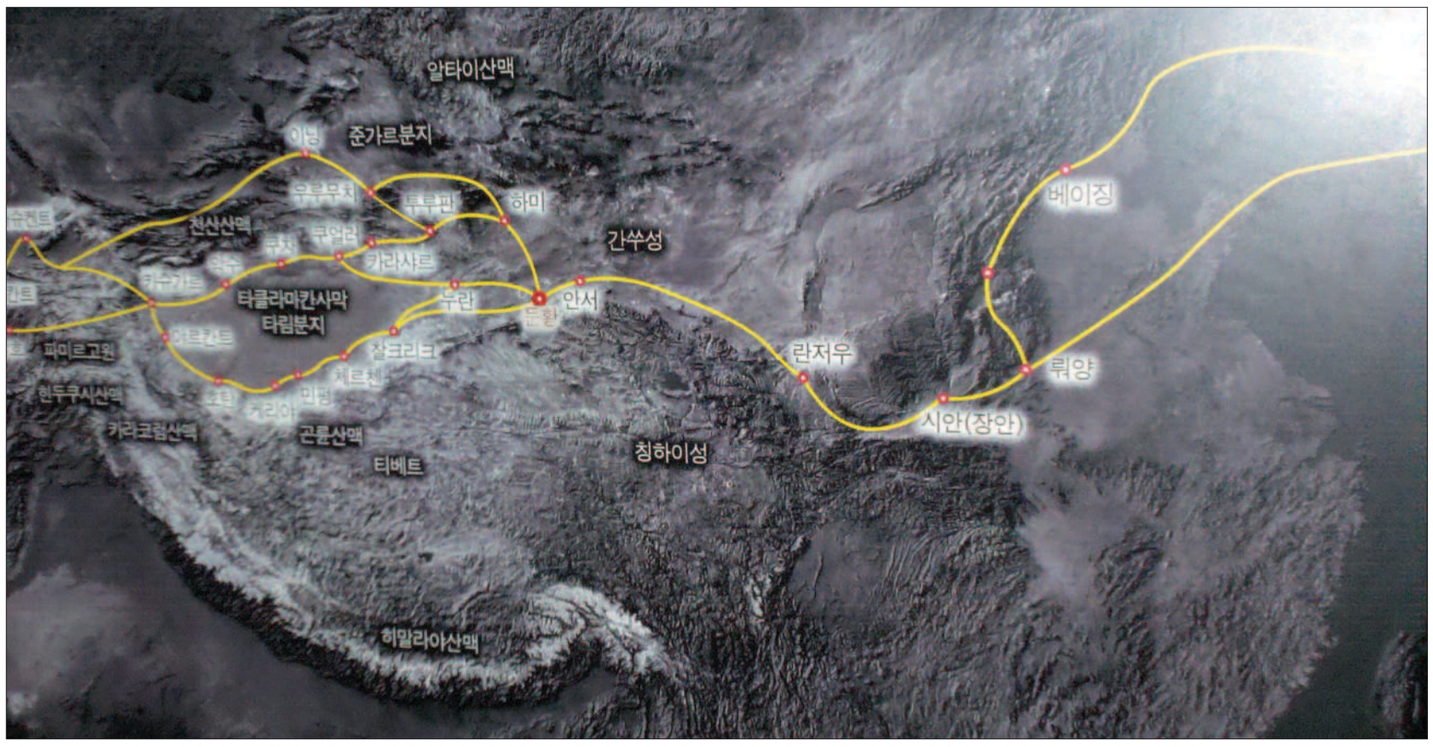
이런 길을 걸은 구법승들에 대해 일연 스님은 〈삼국유사〉에 '귀축제사(歸竺諸師)' 란 글로 그 모습을 표현했다. '천축으로 돌아간 스님들' 이란 뜻이다. 불교의 본고장인 천축으로 가는 것을 돌아간다고 표현하였다.

일연 스님은 여기서 '천축의 하늘은 아득히 겹겹산인데, 가련하게도 유사(遊士)는 허위허위 오르는구나' 라고 기리는 시를 지었다. 유사들은 불법을 구하기 위해 떠난 스님들이다. 과연 구법의 길을 떠난 스님들 중 무사히 돌아온 이는 몇이나 될까.

〈대당서역구법고승전(求法高僧傳)〉에 신라인 최초로 인도로 간 스님으로 기록된 아리나발마(阿離那跋摩) 스님은 당나라 정관(貞觀) 연간(627~649)에 장안을 떠나 인도로 떠났다. 아리나발마 스님이 어떤 경로로 인도에 도착했는지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스님이 장안을 떠난 것을 유추하면 육로로 인도에 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해로를 택한 겸익 스님에 이어 육로의 아리나발마 스님은 인도 동쪽 비하르주에 위치한 나란다사에 도착했다. 아리나발마 스님은 당시 인도불교의 중심지인 나란다사에서 다양한 경전과 논서들을 보고 체득했다. 이를 패엽에 일일이 필사하던 스님은 신라로 돌아오는 뜻을 품는다. 하지만 그 바람도 헛되이 나란다사에서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혜업(惠業) · 현태(玄泰) · 구본(求本) · 현각(玄恪) · 혜륜(惠輪) · 현유(玄遊) 등과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스님 등 총 14명의 한국 출신 스님들이 인도로 향했다. 이들 중 인도에 닿은 이는 9명에 불과하다. 이들도 모두 자신을 잊고 불법을 따라 정진했지만 대부분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였다. 인도에 닿은 9명 중 5명은 인도, 혹은 귀로에서 입적했으며, 3명은 중국으로 돌아왔다. 이중 백제의 겸익, 신라의 원표 스님 만이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 확인된다.



실크로드 3D조감도. 당시 인도로 향하는 육로는 사막과 높은 산맥을 넘는 험난한 길이었다 구법승들은 이길을 걸어 동아시아에 찬란한 불교문화를 싹틔웠다.

하지만 문헌에 기록된 것은 극히 소수의 예에 불과하다. 이름이 기록에 남지 않은 수많은 구법승들이 당시에 부처님 가르침을 좇아 인도로 향했으며 구법여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대당서역구법고승전〉에 이름이 없는 스님은 이러한 것들이 많았음을 생생히 전한다. 그들은 중국 남해(南海)에서 배를 타고 파로사에 이르렀으나 병을 얻어 입적한다.

남해는 남중국해의 항구로 당시 남해군으로 불린 광주(廣州)를 일컫는다. 파로사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서북부 끝의 브루어(Breueh)섬으로 여기서 인도로 가는 항로는 둘로 나뉜다.

서쪽으로 향하면 스리랑카가 나오며 북쪽으로는 인도 동해안이 나온다.

인도를 지척에 두고 두 스님은 세상을 떠났다. 일연 스님은 이러한 수많은 구법승의 죽음에 대해 '달은 몇 번이나 외로운 배를 떠나보냈는데, 구름 따라 돌아온 이는 한 사람도 없어라' 라고 노래했다.

부처님 교화성지 참배… 불전 들여와

초기 간다라지역, 후기 인도 중 하부

한국출신 14명 중 귀국한 스님 2명 불과

일연 스님 "구름따라 돌아온 이 없어라"묘사

10명 중 2~3명만 돌아온 길

비단 한국에서 출발한 스님들 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중국 등 구법승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이름이 알려진 구법승 170명 중 147명이 인도를 향해 떠났다. 이중 12명의 스님들이 인도로 향하는 중 병사하거나 난을 당해 입적했으며 110명이 인도에 도달했다. 나머지 25명의 스님들 중 18명은 도중에 귀국했으며 7명의 행적은 확실치 않다.

전체의 약 76%가 인도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지엄(智嚴), 현조(玄照), 법우(法遇), 회문(懷問) 스님 등은 2회 이상 인도에 갔다.

인도에 도착한 스님 110명 중 19명이 인도에서 혹은 귀로에서 입적했다. 나머지 68명이 중국으로 귀환했으며 24명의 행적은 불확실하다. 121회 중 74회 귀환한 것으로 살아서 돌아온 회수가 62%에 불과하다. 매우 험난한 길에 비해 비교적 많은 수가 돌아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생환은 이보다 훨씬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중도 귀환한 이들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404년 중국을 떠나 437년에 돌아온 중국 지맹(智猛) 스님의 일행은 총 15명이었으나 9명이 파미르고원에 이르기 전 귀환했으며 6명 중 1명이 고원에서 사망해 5명이 인도에 도착한다. 다시 인도 순례에서 3명이 사망해 2명만이 귀환했다. 420년에 중국을 떠난 담무갈(曇無竭) 스님의 일행도 총 25명이었으나 히말라야 산맥을 넘으며 12명이 사망했으며, 인도 순례에서 8명이 사망한다. 〈불조통기〉에는 25명 중 담무갈 스님만이 생환했다고 전한다. 극단적인 예 같지만 문헌이 살아서 돌아온 이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0명 중 2~3명만이 살아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

인도에 간 스님들은 무엇을 보고, 갖고 왔는가

구법승들이 인도에 간 것은 율장 등 불교의 원전을 구하고 성지를 참배하기 위해서였다. 구법승들이 방문한 곳은 크게 두 지역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간다라를 중심으로 하는 인도 서북부지역이며 하나는 부처님 성지가 밀집된 갠지스강 중하류 지역이었다. 서북부지역은 페샤와르 일대의 간다라 외에 나가라하라, 웃디야나, 카슈미르가 있다.

갠지스 강 중하류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보드가야가 있으며 당대 교학의 중심지였던 날란다가 있다. 또 쿠시나가라, 바이샬리, 왕사성, 바라나시 등도 있다. 초기 구법은 주로 간다라 지역에서 진행됐지만 후기에는 인도중하부 지역으로 진행된다. 이때까지 늦게 밀교계통의 불교가 인도에서 성행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중국과 한국에도 밀교가 전해진다.

스님들은 구법기에서 많은 물품을 챙겨 귀국에 올랐는데 먼저 경율론의 삼장이 있으며 불사리, 불상 등이 있었다. 이 밖에 보리수 잎, 염주, 인도비문도 갖고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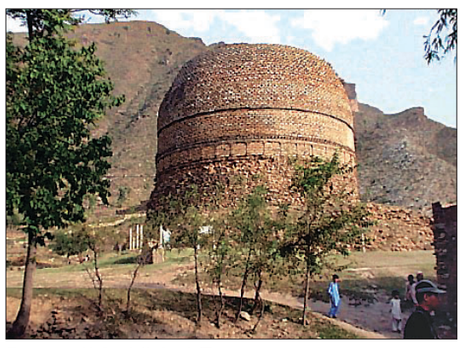
특히 구법승들은 인도 불교건축양식을 중국과 한국에 전하기도 했는데 7세기 보드가야의 항마촉지인을 한 성도상이 장안으로 들어오며 널리 퍼지게 된다. 경주 석굴암의 본존불상도 보드가야의 원류가 흐르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있다.

한국에서는 7세기 이래 인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드러나는데, 겸익 스님 등 몇 명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구법승들이 이시기 집중적으로 인도로 떠난다.

구법승들이 인도로 떠난 이유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보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뭇 중생들을 고통에서 건지기 위한 더 큰 원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일연 스님도 "모두 자신을 잊고 불법을 따르며 석가모니의 교화를 보려고 인도에 갔다"고 썼다. 이들은 인도와 중국에서 경전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를 가지고와 대중을 이롭게 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기록은 그들의 영향에 비해 미미하다. 그들 중 살아 돌아온, 특히 한국에까지 돌아온 이들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행적을 되짚는 것은 이 시대 불자들의 과제일 것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간다라 지방인 스왓의 스투파

한국 출신 구법승 일람 (이주형 책임편집본 〈동아시아 구법승과 인도의 불교유적〉에서 발췌)

구법승	구법내용	출신지
겸익(謙益)	526년 해로로 중인도 상가나대율사에서 수학 후, 오부 율문 갖고 돌아와 번역함	백제
아리나발마(阿離那跋摩)	당 정관 연간(627~649년)에 장안을 출발해 총령(파미르고원)을 넘어 인도에 갔으며 날란다에서 입적함	신라
현각(玄恪)	당 정관 연간에 현조(玄照)와 함께 인도에 가 보드가야를 순례, 인도에서 병사함	신라
혜업(惠業)	당 정관 연간에 인도로 갔으며 날란다에서 입적함. 의정 스님이 날란다에서 이 스님이 공부하던 양론 필사본을 발견함	신라
현태(玄泰)	당 영휘 연간(650~655년)에 티베트와 네팔을 거쳐 인도에가 보드가야를 순례, 귀국 중 토욕혼(吐谷渾; 감숙성 남부 유목국가)까지 갔다가 보드가야로 돌아와 중국으로 귀국함	신라
혜륜(惠輪)	당 인덕 연간(664~665년)에 현조 스님과 함께 인도에 감. 의정 스님과 바이샬리의 토하라 승사에서 만나으나 행적을 알 수 없음	신라
구본(求本)	〈대당서역구법고승전〉 목록에만 전해짐	신라
이름없는 스님 2명	〈대당서역구법고승전〉에 7세기 후반 바닷길로 인도에 가다 파로사(婆魯斯; 수마트라)에서 입적	신라
현유(玄遊)	스승 승철(僧哲) 스님과 함께 스리랑카에서 머뭄. 〈해동고승전〉에는 동인도로 간 것으로 이야기함	고구려
혜초(慧超)	당 개원 11년(723년)에 인도에 가 727년까지 페르시아 등지를 돌아보고 중국에와 〈왕오천축국전〉을 씀	신라
무루(無漏)	〈송고승전〉에 신라왕의 세 번째 아들로 팔탑을 경배하기 위해 인도로 가다 총령(파미르고원)에서 돌아옴	신라
원표(元表)	〈송고승전〉애 의하면 당 천보 연간(742~756년)에 중국에 갔다 서역을 돌아보고 복건성 지제산 석굴에 기거. 〈보림사 사적〉에 의하면 장흥 보림사를 세운 것으로 전해져 귀국한 것으로 알려짐	신라
오진(悟眞)	당 정원 5년(789년)에 중국을 출발해 중인도에서 대비로자나경을 구해 돌아오다 티베트에서 입적	신라



교학의 중심지였던 인도 나란다 대학의 현재 모습

KS정품 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연등전선 전문 생산업체인 삼정전기산업(주)와 계약 체결로 KS정품 연등전선을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등록 제175460호
• KS인증 제7878호 업체
• 색상 : 회색선 • 선굵기 : 1.5㎟



방수전선-22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8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1.5m / 6cm연등



방수전선-25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8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2.5m / 8cm연등



방수전선-30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8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5m / 8cm연등



방수전선-50cm
할인가 70,000원 (5줄이상)
정 가 9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25m / 13cm연등



방수전선-1m
할인가 90,000원 (5줄이상)
정 가 10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50m / 야외용



방수전선-2m
할인가 90,000원 (5줄이상)
정 가 100,000원
• 방수전선 1줄 : 25구
• 길이 : 50m / 야외용



▲바림등(8cm)

연화만월등 (30cm)▶
판매가 200,000원 (100개)
• 1BOX : 100개 • 등지름 : 30㎝
• 색상 : 주황,빨강,노랑,분홍,초록
할인가 3,200원 (60개이상)
정 가 3,800원
• 1BOX : 30개 • 등지름 : 24㎝
• 빨강,보라,주황,분홍,진분홍,흰색





연등속지 백색 1묶음
판매가 6cm 3,500원
판매가 8cm 4,000원
판매가 10.5cm 4,500원
판매가 12cm 6,000원
※ 1묶음당 100개를 만들수 있음.



한지 칼라등지
판매가 8cm 30,000원
판매가 10.5cm 40,000원

▼10.5cm



한지 칼라등지 완성품
• 색 상 : 진분홍, 연분홍, 빨강, 하늘색, 노랑색, 흰색
※ 1묶음당 50개를 만들수 있음.

양초 할인판매!!
고급 국내산 양초 "무료배송"
• 밀 대 (70개입) @90,000원 (2BOX이상)
• 돈타레 (40개입) @90,000원 (2BOX이상)
• 원기둥 (20개입) @90,000원 (2BOX이상)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 등 할인가

• 바림등(6cm) @2,700원 (60개이상)
• 바림등(8cm) @3,200원 (60개이상)
• 바림등(10.5cm) @6,000원 (32개이상)
• 바림등(13cm) @13,000원 (12개이상)
• 바림등(20cm) @35,000원 (4개이상)
• 바림등(30cm) @80,000원 (1개이상)
• 공단등(6cm) @3,000원 (60개이상)
• 공단등(8cm) @3,600원 (60개이상)
• 공단등(10.5cm) @7,000원 (32개이상)
• 공단등(13cm) @15,000원 (12개이상)
• 비닐만월등A형(100개) 160,000원
• 비닐만월등B형(100개) 150,000원
• 비닐만월등(국산100개) 170,000원
• 연화만월등(100개) 200,000원
• 영가만월등(100개) 200,000원
• 장 만 월 등(100개) 200,000원
• 청사초롱등(100개) 250,000원
• 오색청사초롱(100개) 240,000원
• 등철사(100개)
6cm 75,000원 / 8cm 80,000원
10.5cm 85,000원 / 12cm 90,000원



국산 LED전구 100,000원
1BOX : 50개
색상 : 촛불색/주광색

안전 인증 제품



전구(10W/5W) @250원/@350원
1BOX: 100개
제조원: 베트남



연잎(일반)/바림연잎 6,000원/ 7,500원
연분홍/진분홍/노랑/주황/빨강/녹색/흰색



집게부착 / PVC등표(100개) 20,000원 / 12,000원
크기: 8.5×21cm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515-8888-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마음자리 내는 그 자리가 있다

철야정진법문 ④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누가 날 때려. 하면 아파. 아픈 줄 아는 놈은 딴 놈이거든. 아파. 아, 여기 아프다. 말이야 옳은 말이지. 여기 아프지. 하나 아픈 줄 아는 놈은 손 자체가 아는 것이 아니고 따로 있거든. 이 보는 놈 듣는 놈 맛보는 놈. 이 자리가 있다 말이여. 안이비설신의. 이거 다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환하게 아는 분들이 있죠.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향해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이거 의심을 가지면 그만 해결이 돼버린다 말이지. 그만 해결이 돼버려요.

여기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한테 얘기하면 그만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가만 눈치를 보니 실감이 안 오는 것 같아. 실감이 안 오지만은 사실인데야 어찌할 거냐 말이여. 나중에 실감와요. 그러면 보는 놈이 뭣고? 보는 이 자리가 뭣이냐 할 것 같으면, 우리의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 자리는 뭣이냐 할 것 같으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립니다. 이거 뭐 환한 일입니다. 이걸 갖다 말해서 절대성자리다 마음이다 성품이다 이래 하는데 사실로 우리가 마음이 없다면 눈으로 못 봅니다. 만일 마음이 없는데 눈으로 본다 하면 그건 있을 수도 없고, 만약 마음이 없으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건 사실인데 죽은 사람의 눈이 뭘 보던가요? 죽은 사람의 귀가 듣던가요? 안 들어요.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냄새도 못 맡고 이런 거예요.

그걸 가만히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참말로 뭣이 있거든. 참말로 뭣이 있어. 아, 눈이 보는 것 아니다 귀가 듣는 것 아니다 이거 알 수 있어. 이것쯤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회에 이거 단정하고 가세요. 사실 서울서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 돈 삼만 원 내지, 좌우간 돈 십만 원 이상 없어집니다. 없어져도 괜찮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안다 할 것 같으면 큰 수확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눈이 보는 것 아닌데 봐.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딴 놈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놈이 봐. 귀가 듣는 건 아닌데 들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듣는 겁니다. 확실히 뭣이 있다 말이죠. 그 뭣이란 것이 바로 내여. 우리가 보림선원에 가서 철야해야 되겠다고 마음 내는 그 자리가 있거든. 이 자리, 마음이라고도 하고 절대성자리라고도 하고 이래.

우리 보림선원에서는 절대성자리라고 내가 말을 많이 합니다. 절대성자리라고 하면 대개 알아들어요. 절대성자린데 몸은 상대성이거든. 그런데 상대는 절대성에서 오는 거라요. 이 절대성 자리가 없으면 상대가 있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또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보는 것이 옳은데 실은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좌우간 눈이 본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닌데 본다 하면 보는 놈은 있거든. 누가 보는 놈 거부할 거여. 거부할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이 내 말을 지금 듣고 있다

>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 이 자리가 듣는 겁니다.
> 확실이 뭣이 있다 말이죠
> 그 뭣이라는 것이 바로 내여
> 이 자리, 마음이라고도 하고
> 절대성 자리라고도 하고 이래

말이죠. 틀림없이 듣고 있거든. 귀는 아니거든. 그럼 누가 듣노 말이지. 이거 이만치 간다 할 것 같으면 문제가 해결이 돼. 아하, 이렇구나. 이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걸 듣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추측하게 됩니다.

듣는 그 자리 못 찾습니다. 그럼 내, 내라 말이여. 나라 할 것 같으면 이 자리가 진짜 냅니다. 이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딱!(죽비 치는 소리) 참 빠르다. 하하하.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이 안다 할 것 같으면 내 지금 내려가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내 얼굴을 보고 있어.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있어. 이것만 하더라도 뭣이냐 할 것 같으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걸 갖다가 이 육신을 시켜서 이리 해서 보고 듣고 밥을 먹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니 여러분, 나중에 이래 합시다. 나중에 한 시간 더 있으니까 십 분 더 연장합시다.

이거 여러분 싱거운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싱거운 말이 어디 있나요? 이 싱거운 말을 싱거운 말로 알지 않고 여러분이 한 번 참말로 명심을 한다면 말이지 이 자리에서 해결 다 됩니다. 아하, 진짜 내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구나. 성을 내는 것도 그래. 내가 내. 남이 내는 거 아니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거든. 그런데 성을 내는 것은 이놈을 통해서 성내는 형용을 해. 웃어도 그래. 이놈이 하는 거여.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딴 거 아닙니다. 부처님도 이 자리거든. 보살님도 이 자리라. 좋아하는 친구도 이 자리.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너무나 쉽고, 아이고 부산까지 와서 싱거운 말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싱거운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걸 갖다 확실히 알아버리면 옳지, 눈이 보는 것 아니구나. 그러나 보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구나. 듣는 것은 귀가 듣는 것 아니구나. 그러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맛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혓바닥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나 맛은 봐. 그러니까 본다 듣는다 맛본다 확실히 이거 있거든. 이걸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땐 부회(화)가 나면 내다 이래서 가슴을 치고 이런데 내라 하는 그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문제 해결 다 합니다. 이전 어른들이 크게 했든 적게 했든 좌우간 견성을 했다는 분은 이 자리 안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다 말씀했어요. 금강경에도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 무릇 있는 바 형상은 모든 것이, 형상, 상, 이 육체 이건 다 허망한 거다 말이지. 약견제상비상하면, 만약 모든 상을 갖다가 비상으로 알면 즉견여래라. 부처님 말씀이에요. 바로 천기누설 했습니다. 이거 허망한 것이거든. 그러하기 때문에 참말로 나는 뭣이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가 내다 이것부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것부터 알아야 다음 시간에 설법 먹혀 들어갑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광명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진다

4-3 귀경례

지심귀명례극락세계아등도사아미타불(至心歸命禮極樂世界我等導師阿彌陀佛) (一拜)

사람이 살아 나가는 데 오고 가는 사람의 왕래가 있다. 자기가 거처하는 집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는 꽃을 심어 단장한다든지 향을 피운다. 그러면 자기가 거처하는 곳이 곧 성현이라도 거처할 수 있는 집이 된다. 성현 중에도 대표자 격인 부처님을 모셔오기로 한다.

부처님이라고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석가모니부처님. 이에는 인도라고 하는 지역 석가족성(釋迦族姓)이며 시대의 한계성이며, 또 정반왕(淨飯王)의 아들, 마야부인(摩耶夫人)의 아들, 야수다라부인(耶輸陀羅夫人)의 남편, 라후라(羅候羅)의 아버지라는 하나의 국한(局限)된 인간상(人間像)이 떠오른다. 인간적인 국한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또한 중요한 사실이다. 인간적인 국한을 받으므로 이 국한을 초탈하여, 만덕을 구비한 그 대인격자의 이상(理想) 아이디어를 우리가 인격화하여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를 부처님의 인격이라고 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무릇 모든 덕(德)을 다 거룩하게 갖추신 부처님을 우리는 아미타불(阿彌陀佛)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원효대사는 아미타불을 말씀하시기를 무덕불비(無德不備)라고 하였다.

아미타불은 석가모니의 이상인 동시에 전 세계 인류의 이상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 이유인즉 이 부처님은 보신불(報身佛) — 형상이 있는 부처님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세 가지 있다고 본다. 삼신불(三身佛)이라는 것인데 첫째는 법신불(法身佛) (Dharmakya)로 진리의 몸뚱이라는 뜻이다. 둘째는 보신불(報身佛) (Kalmakaya), 형상이 있는 또한 업보(業報)가 있는 부처라는 뜻. 그리고 셋째는 화신불(化身佛) (Sambogakaya), 교화(敎化)하는 부처님의 몸.

아미타불은 실재(實在)하는 보신불(報身佛)로서 우주 법계의 덕과 같으며, 우주의 체상(體相)을 구비하였다. 그리하여 열반(Nirvana)의 경지에 있는 부처님이시다. 열반이란 모든 망념(妄念)에서 벗어나 깨달은 경지를 이르는 말이다. 이것이 와전되어 흔히들 입멸(入滅)하였다 죽었다는 것을 열반하였다고 쓰는데, 이는 잘못이고 그것은 반니르바나를 가리키는 말이다.

극낙(極樂)을 역시 천당(天堂)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이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 기독교의 천당은 지옥(地獄)에 대한 것으로 심판(審判)에 의하여 선악(善惡)의 보상(報償)을 받는 것이라고 하지만 베다(Veda) 성전(聖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불교에는 그런 것이 없다. 이런 것은 불교의 근본 문제도 아닐 뿐더러 이를 부인하는 것이며 극락세계란 천당과는 완전히 다르다. 극락(極樂)은 극고(極苦)와 대비된다.

> 무명에서 망상이 일어나고
> 온갖 욕심이 생기는 것이며
> 큰 고통을 받게 된다
> 환히 밝아졌을 때
> 깨쳤다 하며 도통했다 한다
> 깨친 다음에는 망상은
>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 이 경지를 열반이라 한다

이 두 개의 세계는 누구의 심판에 의한 것도 아니고 선악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절대경(絕對境)을 이르는 말이다.

우리들이 지금 많은 고통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밝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이것은 무명(無明)이라고 한다. 밝지 못한 여기에 우리들이 매어달려 헤매고 허우적거린다. 이에서 망상이 일어나고 망상이 일어남에 따라 온갖 욕심이 생기는 것이며 욕심을 만족치 못할 때에 큰 고통을 받게 된다.

무명이 오관(五官)을 통해서 움직이는 동안 욕망을 충족시킬 때도 있고, 그리 못할 때도 있어 많은 고통을 받는다. 이를 칼마(Karmr)라고 하여 업(業)이라고 하는 그것이다. 나는 이것을 '짓'이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깨칠 것 같으면 우리들은 이제 망상에 움직이지 않고 모두 환하게 밝아진다. 환히 밝아졌을 때 우리는 이를 깨쳤다고 하며 도통(道通)하였다고 한다. 깨친 다음에는 망상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깨쳤다느니 하는 이 경지를 열반(涅槃)이라고 하는 것이다. 깨쳤다 할 때에는 커다란 광명(光明)이 있다. 오로지 광명뿐이다. 이것을 도통했다고도 한다.

광명이 있으면 그저 환히 밝기만 하다. 어두운 것은 왜 어두운가? 무슨 원인이 있는 것인가? 어둠, 그 자체를 포착하려 들면 퍽이나 어두워진다. 그러나 광명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진다. 어두운 것은 광명이 없어졌을 때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비쟈(Abija) 무명(無明)이란 것은 깨치지 못하였을 그때에 있는 현상이다. 무명이 없어졌다, 할 때는 우리들이 부처가 되었다. 깨쳤다 할 때다. 그러므로 깨쳤을 그때에는 우리에게는 환희와 보은(報恩)과 대자대비(大慈大悲)가 있고 오직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따름 아무런 고(苦)가 없다는 그때를 일컬어 부처님이 대각(大覺)을 성취했다고 한다.

이 지경이 극히 낙되는 곳, 극낙세계(極樂世界)다.

자기 한 몸으로 우주와 전 인류를 가름할 수 있고, 전 인류가 자기 자신에게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지경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면 자기와 남이라 하는 그런 차별 관념이 전연 없고 자기와 일체중생, 전사회가 자기다 하는 그런 사명을 깨달을 뿐이다.

이런 때 모든 고(苦)는 사라지고 없다.

고가 사라지고 없을 때 그것은 깨친 상태를 말하여 준다.

고는 조건의 집합(集合)이며, 무명의 원인은 집(集)인데 부처님은, 이 세상은 고(苦)다, 고통의 조건은 모든 것이 모여서 그런 것이다 하시고 이를 고제(苦諦)라고 하여, 고의 원리로 삼으셨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전통식품교육사

전통식품교육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전통식품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전통식품교육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전통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목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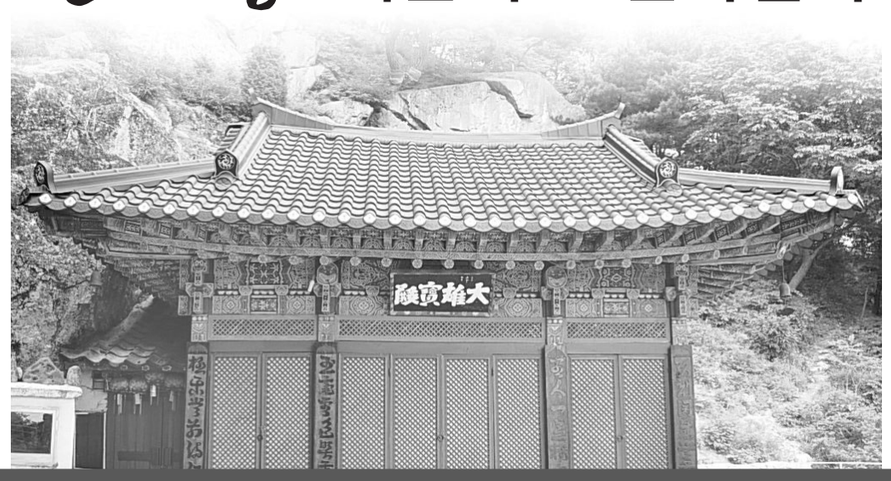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제 기 동 02-966-0020 창 원 055-243-6333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이 세상이 바로 연화장 세계”

추사가 섣달이 가까워지는 어느 날인가 초의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편지의 말미에 과도인(果道人)이란 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천 시절에 보낸 편지임이 분명하다. 섣달이 되면 늘 새로 나온 책력을 챙겨 초의에게 보냈던 추사였다. 한동안 이들의 편지를 내왕해 주는 인편이 없었던 지, 추사는 ‘아직 섣달이 된 것도 아닌데 일체 소식이 없다 ‘고 말했다. 이처럼 소식을 전하지 않는 초의의 변화된 마음은 ‘산으로 들어가 더욱 깊어져서 인간세상과는 함께하지 않고 자연과만 소통하려는 것인가 ‘라고 반문한다. 이는 추사의 심사를 반영한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대흥사의 깊숙한 암자에서 선삼매에 몰두하고 있는 벗, 초의를 이리 표현한 것이리라. 이 무렵 과천초당에서 어렵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던 그는 실로 불경과 차를 통해 정토의 세계를 구현하려했던 것은 아닐까. 과천초당에서 초의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며 보낸 그의 편지는 다음과 같다.

과천에서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2통의 편지.

아직 섣달이 된 것도 아닌데 일체 소식이 없으니 산사람은 산으로 들어가 더욱 깊어져서 인간세상과는 함께하지 않고 자연과만 소통하려는 것인가요. 인간 세상이 곧 별세계는 아니다. 정토세계가 바로 이(인간) 세계이고, 연화장 세계의 바다가 또한 곧 이 (인간)세계입니다. 매번 그대들은 보면 정토에 살기를 원하고, 연화장세계의 바다에 살기를 원하여 다만 이 세계로 향하지 않으니 이는 십만 알고 (십이)다섯의 쌍이 된다는 것은 모르는 것인가요. 요즘 추워지는데 수행은 편안하고 편리한지요. 늙어지면 더욱 건강해야합니다. 마치 수컷 소와 같은 성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요즘 날로 괴로움이 닥치니 이에 껄껄 웃지요. 벼루가 얼어서 대략 알립니다. 섣달 6일 과도인. 책력 2개를 부칩니다. 또 책력 하나는 견향(見香)에게 전해주세요(非將臘而一切無聞 山人入山更深不與人世通人烟耶 人世卽非別世界 淨土卽此界 華藏海亦卽此界 每見師輩 願生淨土 願生華藏海而獨不向此界來 是知十而不知雙五者耶 邇寒禪安方便 老而益健如牛王否 俗狀日以及艱 此呵 凍硯略申 臘六 果道人 二曆付從 又一曆轉付見香)

‘벼루물이 얼어 대략 알린다’ 고 하였으니 분명한 겨울에 보낸 편지일 것이다. 어지간한 추위에는 벼루의 먹물이 얼지 않는다. 먹물이 얼어 버릴 정도로 추운 겨울, 초의의 소식이 못내 그리웠다. 특히 그의 불교적 담론은 ‘인간 세상이 곧 다른 세계는 아니다’ 바로 ‘정토 세계가 이 세계이고, 연화장 세계의 바다가 또한 곧 이 (인간)세계, 라고 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분명 인간 세상이야 말로 가장 소중하며, 정토나 연화장의 세계로 구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바로 추사의 현세관(現世觀)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초의를 향한 추사의 질타는 이어진다. 초의가 속한 불교계에서는 정토나 연화장 세계만을 동경할 뿐 인간 세상이 정토이며, 연화장 세상인 것을 모른다. 바로 십이란 십(十)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섯이 둘이면 열이 된다는 이치를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 후기 불교계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자신의 견해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편협성과 획일성을 지적한 듯하다. 바로 표면에 드러난 것만 알뿐 속내의 깊은 이치를 모르는 현실을 점잖게 힐난하였다. 한편 늙어가는 이들의 현실은 피할 수 없었던가 보다. 자신과 동년배인 초의의 늙어짐을 못내 걱정하여 ’늙어지면 더욱 건강해야합니다. 마치 수컷 소와 같은 성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우왕(牛王)은 수컷 소처럼 튼튼하고 기세 좋은 성인, 혹은 신선을 의미한다. 혹 부처님을 인중우왕(人中牛王)이라 하니 우왕은 부처님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자신도 초의도 이미 늙어가지만 모두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추사의 마음은 이처럼 간절하고도 애틋했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불교국 각나라 승가회 대표들의 동참과 적극적인 협조로
세계불교법왕 및 승왕 추대 의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전에 부끄럽지 않는 불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실
각 종단 종정예하 총무원장님들을
법왕청 중앙정부에 모시고자 초대합니다

[2월 18일 화요일 11시 임시 각료회의 개최]

10월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의 세계불교법왕 및 승왕 추대위원회 출범식을 성대하고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동참해주신 대덕 큰스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정각회 국회의원님들과 불교국가 대사님, 미얀마 연방 정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축하사절로 종교성 부장관의 참석,연방 승가회 회장스님의 축사, 120여 각 종단 대표 스님들의 동참
그리고 연합뉴스에서까지의 보도 등 전례가 없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세계불교법왕청은 전세계 모두가 공감하여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들이 역시 그분이라면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고 추앙받는 불교의 최고의 어른을 선정 추대 하고자 극비밀로 은밀하게
움직여 놀라운 큰 성과를 거두어 출범 일주년 무렵에는 장엄한 국제 추대의식 행사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社團法人 世界 佛教 法王廳
세계불교 고승 및 최고 지도자들의 모임 1080인 委員會
법왕청산하 소속 350여 종단 및 단체 총연합 협의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위원장 대승정 목 탁 – 혜 은 합장
02-733-5665. 011-229-6061



〈2014년 (불기2558년) 주요 행사〉
1. 각료 임명식 : 임명식 행사의 건 의견 청취
2. 출범핵심 각료 선정 (특명대사) : 중국.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일본 등
3. 대외 활동 홍보 및 고유 의식으로 중국 지장도량 및 관음도량 성지순례 및 단합대회
2014년 5월 9일 지장도량, 관음도량 6일 성지순례 및 임원진 단합대회 개최. 세계불교법왕, 이 회의에서 승왕 추대 명단 확정하고 취임식 준비에 따른 의견 청취. 세계불교 법왕청과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이름으로 고승단 및 임원진 高僧. 대종사 품수 추대의식 봉행. (경비 없음) 선착순 108명 접수
4. 법왕추대의식 및 장소, 법왕청 준비.
5. 1080인 고승단 및 세계불교지도자 인명 대사전 발간 (경비없음)

『세계불교법왕청』이란 명칭은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정식 등록 허가된 곳은 목탁스님이 주관하는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뿐입니다.

“유·무형 불교문화 사랑 보현행원으로 회향”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

1월 25일 동해 삼화사에서는 1000여 명이 참석한 대형 기념법회가 열렸다. 지난해 삼화사 수륙재의 중요무형문화재 등재를 기념한 축하 법회였다. 각계의 수많은 이들 사이에서 흐뭇하게 법회를 바라보는 반백의 신사가 있었다. 바로 홍윤식 동국대 교수다.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는 역사교사를 지내던 1960년대부터 불교문화재 전반에서 활약해왔다. 전문학자가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던 홍 교수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한 원력은 바로 불교문화에 대한 사랑이었다.

서른 초반 학교 선생님의 불교 사랑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문화재에 대한 관심은 극히 희박한 상태. 사적지나 문화유물에 대한 관리는 정부에서도 과단위에서 관리할 뿐이었다. 동국대 사학과를 나와 1960년 국악예술학교에서 역사교사로 있던 홍 교수는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보조자로 참여하게 된다.

“당시 국악예술학교는 음악과 예능 전반의 무형문화재 발굴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사라져가고 있던 민속예술을 되살리는 그 노력이 지금도 눈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당시 박헌봉 교장선생님의 배려로 문화재 조사 보조자로 참여하게 됐는데 이 참여가 이후 저의 한평생을 문화재와 더불어 살게 된 계기가 되었죠.”

홍 교수는 불교문화재에 대한 관심은 우리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승무나 탈춤, 각종 민요 등 민속 예술의 대부분은 불교적 소재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억불숭유 시대를 거치며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왜곡된 상황이었단 점이었어요.”

홍 교수는 “당시 황수영 박사를 비롯한 수많은 학자들이 불교문화재의 위상을 높이는데 앞장섰어요. 하지만 유형문화재에 국한되었었죠. 무형문화재의 기능은 기생이나 광대 등 천한 신분에 의해 전승된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었다”고 말하며 ‘무형문화재의 가치인식’과 ‘천인들에 의한 전승’이란 화두가 계속됐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학교 선생님으로서 승무의 마지막 부분을 파계승의 행각이란 불교에 대한 풍자로 해석하는 통념을 뒤짚는다. 승무가 파계승의 춤이 아니라 법열을 느낀 선정에서 우러나오는 몸짓이란 새로운 해석이었다.

잊혀진 불교문화재 ‘범패’를 조명하다

홍 교수의 이러한 행보는 자연스럽게 당시 규정되지 않았던 불교음악인 ‘범패’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불교정화 이후 범패와 같은 소리를 하며 재의식을 하는 것은 무당들이 하는 것과 같다고 하여 이를 금기시 하고 있었습니다. 일제의 사찰령에 의해 절에서 범패와 의식무용을 하는 것도 금지돼 이미 인멸돼 가고 있었죠. 후에 불교신문 주필을 한 유엽 선생을 만나 신촌 봉원사에서 송암 스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범패와의 만남은 시작됐죠.”

홍 교수는 송암 스님에게 직접 범패를 듣고 대화를 하며 범패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매일 같이 전국을 다니며 소리를 녹음채록하고 한편으로 범패와 불교의식의 작법에 대한 자료를 구술로 채록해 자료화해 나가는 작업을 계속했다”며 “이 같은 내용이 1964년 불교신문을 통해 발표되기 시작하며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범패는 마침내 한국전통음악에서 판소리, 가곡과 함께 성악의 3대 요소로 완연히 자리잡게 된다.

홍 교수의 이러한 활동은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범패가 우리 전통문화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이 학계에 알려지며 관심이 쏟아졌지만 학문에 초년병인 홍 교수는 이를 감당하기 힘들게 된 것이다.

“서울대 이혜구 교수, 한만영 교수, 국립국악원 성경린 원장 등이 범패의 무형문화재 지정과 연구에 본격 참여합니다. 교사 신분인 나 한사람으로서는 범패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의견을 낼 형편이 못됐어요.”

하지만 홍 교수의 범패에 대한 정열은 멈추지 않았다. 홍 교수는 범패가 종합예술이기에 음악적 연구 뿐만 아니라 종합적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서울대와 국립국악원 측 입장과 견해가 달랐기에 방법론 등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홍 교수는 TV등의 토론회 등에 나서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다. 그 중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전승돼 온 팔공산 소리의 발견은 문화재계의 큰 성과였다.

“조사를 활발히 진행하며 금정산 국청사에 갔을 때였습니다. 김운공 스님이셨는데 단숨에 몇소리를 유연하게 뽑아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경산조가 경쾌하다면 이 소리는 은은한 감정을 자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과는 주요일간지에 크게 보도됐다. 원력을 가진 활동은 홍 교수에게 큰 영광을 안겨 주었다. 바로 32세에 문화재 전문위원이란 중책을 맡게 된 것이었다. 당시 불교계에서는 봉원사를 중심으로 옥천범음연구회가 구성돼 활발한 연구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홍 교수는 운학 스님등과 불교문화예술원을 창립해 이러한 활동에 불을 지폈다.

조계종 총무원 과장…성보보존위 기획

범패조사에서 시작된 불교문화에 대한 홍 교수의 관심은 불교의식 전분야로 옮겨갔고, 다시 불교의식의 대상이 되는 불교미술로, 다시 이를 종합하는 종교학과 종교사회학으로 까지 넓혀졌다. 이런 홍 교수의 학문태도를 두고 학계의 비판소리도 높아져 가고 있었다.

“학문이 주전공이 없는 잡학이라는 것이었죠.(웃음) 그러나 지금와서 보면 요즘은 학계가 요구하고 잇는 학제적 방법론을 일찍 터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연구방법론은 대학교수가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됐어요.”

학계의 비판과 달리 홍 교수는 문화재전문위원으로는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는 인물이 되고 있었다. 무형문화재 분야 뿐만 아니라 유형문화재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게 됐다. 여기에 당시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을 맡던 김운학 스님이 홍 교수를 천거해 총무원 문화과장을 겸직하게 된다.

“문제는 시간이었는데 조사연구를 휴일이나 방학때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어요. 겸직하는 일도 상당히 큰 난관이었습니다.”

홍 교수는 여러 스님들과 함께 전국 사찰의 유형문화재를 조사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이어 성보보존위원회 구성을 기획했다. 불교문화재란 사회통념을 성보문화재란 불교적 개념 하에 수용하자는 것이었다.

단청문양 조사의 시련, 학자의 길 다져

홍 교수의 유형문화재에 대한 관심은 전국 중요사찰의 단청문양을 조사 정리하는데로 이어진다. 문제는 재정과 시간이었다.

“촉박한 기간을 독촉해 조사를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었어요. 이 같은 조사사업은 처음이라 언론기관에서 무척 흥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미 보고서를 문화재관리국에 제출했는데 책임조사연구원이었기에 날짜를 정해 기자회견을 했어요. 당시 주요일간지에 소개가 됐습니다.”

기쁨은 잠깐이었다. 조사가 부실하다는 중앙일보의 지적이 일간지 보도 다음날 보도된 것이었다.

“일일이 모사해야 하는데 밑에서 스케치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에 쫓긴 일부 조사원들이 모사보다 스케치를 택한 것이었어요. 이를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었습니다. 당시 배정받은 예산으로는 3개 사찰정도가 적당했고 기간을 길게 잡았어야만 했음에도 처음진

역사 가르치며 불교문화재 중요성 느껴
‘범패’ 새 인식 주도, 종합 연구 주창
유·무형 문화재 각 분야 넘나들어

불교미술공모전·동대 불교미술과 산파
일본서 늦깍이 학자의 길 걸어
“서원세우면 언젠가 이뤄진다”



2001년 ‘동국대를 빛낸 사람들’ 상을 수상하는 홍윤식 교수



1974년 ‘마한백제 문화연구소’의 미륵사지 발굴조사 장면



홍윤식 교수는 … 1934년 경남 산청에서 태어났다. 해인농림고교를 나와 동국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교토불교대 문학석사와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73년부터 1986년까지 원광대 국사교육학과 교수를, 1987년부터 2000년까지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를 역임했다. 동국대 박물관 관장, 문화예술대학원장, 서울국악예술고 교장, 문화재전문위원, 문화재위원,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동국대 명예교수, 불교민속학회 회장 등으로 있다. 제21회 포교대상 공로상, 제2회 박헌봉 국악상 등을 수상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행하는 일이었기에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부득이 받은 임금을 내놓고 나머지는 사재로 충당해 재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홍 교수는 "하지만 이 조사에서 얻은 것이 많았다"며 "단청뿐만 아니라 많은 불화를 보는 안목을 갖게 해줬으며 불화를 중심으로 한 불교미술 학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불교미술가 등용문, 불교미술공모전의 탄생

단청문양조사사업의 실패 이후 홍 교수는 대내적으로 불교문화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한다. 그 결과 나온 것이 바로 현재 불교계 미술인의 등용문인 '불교미술공모전'의 개최였다.

"기획 이후 역시 문제는 재정문제였어요. 1969년대 우리나라 경제사정은 문화사업에 기부하는 인사는 극히 한정돼 있었어요. 더군다나 스님도 아니고 총무원의 양복쟁이가 기부를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죠. 마침 조계종 신도단체로 '관음클럽'이 있었습니다. 불교신도로 정치계와 경제계 인사의 부인들로 구성된 모임이었어요. 이런 인연을 살려 故김성곤 쌍용회장 등을 찾아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 선정과 기준 등을 마련해 마침내 불교미술공모전이 열리게 됐으니 1970년 여름의 일이었다.

홍 교수의 행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동국대 사범대에 미술교육학과 설치 추진을 불교대학 내에 미술학과 설립으로 이끈다. 동국대 불교미술학과의 탄생이었다. 문화재관리국의 인맥과 영향이 큰 홍 교수의 역할이 컸다.

인드라망의 세계, 보현행원으로 풀 것

"당시 이런 경위로 설치되고 나니 자격도 없는 사람이 교수가 되려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불교미술공모전과 불교미술학과 설치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돌아온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한다는 비방이었습니다. 인연이 여러모로 다 되었구나 하고 생각을 바꾸어 품지 않을 수 없었어요."

홍 교수는 그 것이 일본 유학을 결심하게 될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 유학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36세의 나이에 교토불교대학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홍 교수는 불교사와 불교문화사, 불교사상사를 공부하고 문학석사와 박사를 취득해 돌아왔다.

"일본은 실제 생활을 바탕에 두고 불교의례와 의식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 불교가 하나의 문화로 완연히 자리잡고 있었기에 한국에서도 불교문화가 사람들의 의식에 자리잡고자 하겠다는 원력이 컸어요."

홍 교수는 귀국해 원광대에서 미륵사지를 연구하는 '마한백제문화연구소'를 설립해 국내활동을 전개하며 교수로의 길을 걷는다.

1987년 동국대 교수로 자리를 옮긴 홍 교수는 같은 해 4월 문화재위원회 개편에 맞춰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된다. 전문위원 20여년을 거쳐 50대 초반의 나이였다. 홍 교수와 '범패'와의 인연은 여기서 다시 이어진다. 바로 '영산재'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일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보유자를 어떻게 발굴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대체로 태고종 측이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조계종은 장엄 기능을 지닌 정순정 스님이 있었어요. 영산재의 무형문화재 지정으로 영산재가 지닌 문화요소가 새롭게 주목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홍 교수는 1989년 동국대 박물관장을 맡아 고려불화전을 개최하고 강화 선원사 대장경 판각지 조사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1999년 퇴임한 홍 교수는 2000년 서울 국악예술고등학교에 교장으로 4년간 활동했으며 일본 수학의 인연으로 동국대에 일본학연구소를 세워 한일관계 개선 등에도 앞장섰다.

홍 교수는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가 시시각각 고통과 역경이 다가올 때 반드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힘을 얻게 합니다. 큰 원력을 세우고 그에 맞춰 끊임없이 정진하다보면 그 것이 힘이되어 인연이 닿아 이뤄지게 되있어요. 스스로 원력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러한 삶을 보현행원으로 회향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족한 역량으로 학문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은 조명기, 안계현, 황수영 선생님을 비롯해 류가이, 마키다 타이료 선생님 등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의 인드라망으로 이어져있음을 알 수 있어요. 저는 남은 인생은 보현행원에 의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나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고 조금이나마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해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965년 1월 조선일보에 소개된 홍윤식 교수와 김운공 스님의 범패 기사



1970년 2월 대한불교에 보도된 불교미술공모전 개최 관련 기사

전법일기

인연은 돌고 돌으니 '필연'

군에 있으니 인연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많아진다. 특히 신병교육대대가 있는 부대 법당에서는 매 기수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인연의 흐름이 잠시도 쉬지 않고 지속된다. 매주 새로운 스물 한 두 살의 꽃다운 청년들과 새로운 인연은 시작된다.

지난해 한 훈련병의 이야기를 접하고 몹시 가슴 저린 기억이 난다. 이 친구는 입대 전 오랜 기간 사귀었던 애인이 사망한 슬픈 일을 겪었고 그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훈련소에서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항상 의욕이 없고, 훈련 열외 등을 반복하는 실정이었다. 부대 관계자에게 이 병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자청하였다. 이 병사에게 삼장법사로 친숙한 현장스님과 고창국의 왕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동남쪽에 자리한 고창(高昌)국은 지금은 폐허가 되어 고성의 흔적만 남아 있지만, 한때 서역 최대의 국제도시요 종교 중심지였다. 그곳에 실크로드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현장스님과 고창국의 왕 국문태(麴文泰) 사이에는 아름답고도 슬픈 인연이 깃들어 있다.

현장스님은 629년 천축으로 불경을 구하기 위해 장안을 떠났다. 황량한 사막을 지나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며 천신만고 끝에 고창국에 당도했다. 신실한 불교 신자였던 고창국 왕 국문태는 현장스님이 당나라에서 온 고승이라는 말을 듣고 법회를 열어달라고 간청했다. 스님은 왕의 간청을 받아들여 2개월간 고창국에서 법회를 열었다. 스님이 고창국을 떠날 때 국왕은 천축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자신의 나라를 찾아달라고 간청했다. 그뿐 아니라 스님이 인도로 떠날 때 서역 24개국의 왕국에 통행을 허락하라는 조서를 써주고



그림 · 박구원

말 4마리, 부역꾼 25명, 가사 30벌, 황금 100냥, 은 200매, 비단 500필 등을 하사했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스님이 떠나는 날 옷자락을 잡고 울며 100리 밖까지 배웅을 갔다.

그로부터 10여 년 후 현장스님이 불경을 구해 당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고창국에 들러 국왕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려 했으나 안타깝게도 고창국은 이미 현장스님의 모국인 당나라에 의해 멸망하고 왕 역시 죽임을 당한 뒤였다. 16년의 세월을 보내며 인도에서 불경을 구해온 현장스님의 위대한 업적은 결국 고창국 왕과의 인연에 힘입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창국 왕의 극진한 후원을 받지 못했다면 현장스님 일행은 십중팔구 사막에서 죽음을 맞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창국은 멸망했지만 현장스님과 왕과의 인연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생사를 반복하는 윤회전생(輪回轉生), 만나면 반드시 헤어진다는 회자정리(會者定離),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자필반(去者必反). 모두 인연의 무한 운행 법칙을 강조하는 말들이다. 따라서 다른 시대, 다른 인생에서 둘은 다시 만나 좋은 인연을 맺었을 것이라는 사유가 충분히 가능하다. 인연이 있으면 천리 밖에 있어도 만나고 몇 생애를 돌고 돈 뒤일지라도 반드시 만날 수 있다고 했으니 가히 인연의 힘은 생사와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 병사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먼저 간 여자 친구가 너와 참 아름다운 인연, 좋은 인연이었고 인연의 힘으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렇기에 산사람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매일매일 더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하루하루 더 힘을 내어 잘 살아야한다고 말해주었다. 다행히 병사는 나의 말을 경청해주었고 한결 표정이 밝아졌다. 그 병사는 무사히 훈련을 마치고 지금은 자대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듯 인연이 조성되면 반드시 이야기가 생성된다. 군에서 수많은 병사들과 접촉하며, 특히 신교대에서 새로운 훈련병들과 함께하며 옷깃이 스칠 때면,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부처님과 진실한 인연을 맺게 하면서 행복한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할까 매일 밤 고민에 휩싸인다. 새로운 얼굴들, 새로운 인연들…



아! 다정(多情)도 병(病)인양 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여정 군승 법사(5사단 사령부 광복통일사)

[사단법인 등록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 반명함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 · 동아매일신문사 사장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 종정실 의전실장 황정재)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회 장 석무겸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부 의 장 석월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만오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총무부장 석윤오
재무부장 석법담
정보부장 석보각
행사부장 석지혜
사무총장 석초오
부 원 장 석용암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혜주
동원부장 석법원
의전부장 석근홍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법호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부 원 장 석법승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 원 장 석대명
강원원장 석법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제 14기 영남(통도소리)범음범패 교육생모집"
범음(홋소리,짙소리) 범패(강쇠, 북, 태징)
- 기초 2개월 _ 도량석, 종성, 각단 예불, 불공, 시다림,
- 고 등 1년 _ 중노릇 잘 하는법, 상주권공, 구병시식등, 천도재,
- 전 문 2년 _ 시왕각배, 예수재, 영산재, 수륙재,

(기초의식부터 ~ 전통전문분야등 범패의 모든 것)
개강일 : 2014년 3월 첫째주 금요일부터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2014 다보스 포럼, '마음 · 몸 조화'에 주목

리카르 스님 · 골디 혼의 '명상 세션'도 열려

스위스 다보스에서 1월 22일부터 3박4일 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 44차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명상 세션'이 마련되어 주목된다.

〈Raw Stroy〉 지는 "올해 다보스 포럼에 참여한 정치와 경제계 인사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불리는 마티유 리카르(Matthieu Ricard, 프랑스) 스님과 헐리우드 영화 스타 골디 혼(Goldie Hawn)의 지도로 명상을 이해하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3일 이른 아침 1시간 30분 간 진행된 명상 세션에 참여한 250여 명의 정치 · 경제계 인사들은 '히말라야의 산기슭 암자에 은둔한 수행자의 삶'을 엿보는 한편 자신들의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깊은 관심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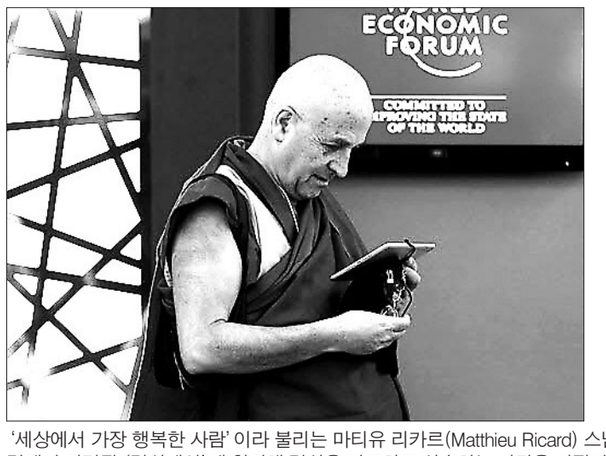
이날 명상 세션의 지도법사로 참여한 마티유 리카르 스님은 "명상은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해주는 것은 물론 그 생각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명상의 목표는 자신과 타인을 놓아버린 '완전한 자유'이며, 이 자유는 결코 이기적이지 않는 '자비심'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티유 리카르 스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알려진 티베트 불교계 스님이다. 스님은 파스퇴르대학에서 세포유전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 티베트 스승들의 수행과 삶의 모습을 흠모하여 홀연히 히말라야로 떠난 후 40여 년간 명상 수행자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마티유 리카르 스님은 '마음과 삶 연구소(Mind and Life Institute)'에서 명상신경과학의 석학인 리처드 데이빗슨(Richard Davidson) 교수와 함께 명상과 뇌의 가소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Raw Stroy〉 지는 "명상 세션에 참여한 정치 · 경제계 인사들은 세계적인 명성을 받고 있는 미티유 리카르 스님은 물론 허리우드 영화 스타 골디 혼(Goldie Hawn)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껏 기대를 보였다"고 '명상 세션'의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Raw Stroy〉 지는 "이날 명상 세션이 열린 콩그레스 센터 홀에는 10개의 라운드 테이블이 마련되었는데, 마티유 리카르 스님과 골디 혼의 강연을 듣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자리를 털고 나선 정치 · 경제계 인사들로 빈자리가 없었다"며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들은 결코 '세계 정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불리는 마티유 리카르(Matthieu Ricard) 스님(왼쪽)과 헐리우드 영화 스타 골디 혼(Goldie Hawn, 오른쪽)은 다보스 포럼에서 마련된 '명상세션'에 참가해 명상을 지도하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뇌와 건강에 연관된 주제로 20여개 세션 진행

2008년에 비해 건강과 관련된 프리젠티이션 50%증가

이 자리에는 최근 '핵무기' 문제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하살 로우하니(Hussan Rouhani) 이란 대통령도 참여해 세션 안팎에서 시선이 집중됐다.

〈Raw Stroy〉 지는 마티유 리카르 스님의 말을 인용, "명상 세션은 '어떤 문제도 숨길 필요도 없고', '드러낼 필요도 없는' 시간이었다"고 전하고, "명상 세션은 '세계경제'라는 거대한 담론을 다루며 때론 날을 세우기도 해야 하는 참여자들에게 아침 햇살에 서서히 녹아내는 서리와 같은 편안한 한 시간을 주었다"고 의미를 더했다.

한편 골디 혼은 명상 세션 참여자들에게 '명상이 자녀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1972년부터 명상 실수를 해온 골디 혼은 허리우드의 대표적인 명상 옹호자이다.

"명상의 혜택을 차트로 보여줄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강연의 문을 연 골디 혼은 "위스콘신대학에서 '건강한 마음과 육체'를 주제로 한 임상연구에서 '평온한 마음에서 건강한 몸을 지킬 수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주목하고 "자녀들의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명상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포럼에서는 심리 건강과 두뇌와 연관된 기술의 중요한 잠재 효과 등을 다루는 20여 개의 세션도 함께 진행됐다. 지난 2008년에 비해 올해 포럼에선 건강과 관련된 프리젠테이션이 50%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에 대해 〈Raw Stroy〉 지는 "이는 올해 포럼의 관심이 지난 5년 동안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인해 빚어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시리아 내전을 겪었던 이들에 대한 연구, 이들의 스트레스,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Raw Stroy〉 지는 "이들 세션 중에서 '정신 건강과 관련한 질병 때문에 20년 뒤엔 16조 달러의 비용을 낭비하게 될 것' 리는 하버드대 연구진의 분석이 주목받았다"고 전하는 한편 "지난 2년 동안 로이드 은행그룹이나 바클레이스 등의 최고경영진이 스트레스와 에너지 소진으로 사임하는 것을 봐왔다"며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골드만삭스, 크레딧스위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은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Raw Stroy〉 지는 네리오 알레산드리 테크노짐 최고경영자(CEO)의 말을 인용, "정신 건강이 에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올해 다보스 포럼은 "건강은 조화이며 몸과 마음을 분리할 수는 없다"는 화두에 주목했던 포럼이었다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벌거벗은 스님이 지붕에 올라간 이유?

스님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中 식당 광고물, 비난 여론 확산
이틀 만에 조형물 철거해



중국 지안시의 한 식당이 설치한 광고조형물. 한 명의 스님은 지붕에 올라가 있고 다른 한 명은 지붕을 오르고 있다. 비난여론이 일자 식당 측은 부처도 담을 넘을 정도로 맛있다는 스프를 표현하기 위해 만든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부랴부랴 사과하고 이틀 만에 광고물을 내렸다.

격의 없는 유머일까 불교를 희화화한 것일까.

스님이 건물 지붕에 올라 있는 재미난 조형물이 이틀 만에 철거당했다. 불교신자들의 심기를 거슬렸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샨둥성 지안시 번화가에 위치한 한 식당이 광고 한 번 잘못했다 곤욕을 치렀다. 지난 18일 식당 지붕에 설치한 조형물 스님이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파격적인 '노출'을 감행한 까닭이다. 길이가 15M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데다 적나라하게 벌거벗은 뒷모습은 사람들의 시선을 독차지하고도 남는다. 조형물은 공개되자마자 논란의 중심에 섰다.

네티즌들이 중국 SNS인 웨이보에 이를 포스팅한 후 비난 여론은 더욱 확산됐다. 천년 이상 불교 문화가 뿌리깊이 내려온 중국에서 불교에 대한 존중의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일부 불교 신자들은 철거를 요구하며 레스토랑에 항의하기도 했다.

언론 또한 이를 보도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식당 측은 부랴부랴 사태수습에 나섰다. 식당 주인인 리쯔이 씨는 "누구도 불쾌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조형물 설치는 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절에서 참선 중이던 스님이 스프 끓이는 냄새를 참지 못하고 사찰 담을 뛰어넘었다는 이야기가 얽힌 포타오창이 레스토랑의 주 메뉴였던 것이다.

중국 광둥 지방의 최고급 요리 중 하나인 포타오창은 부처도 담을 뛰어넘어올 정도로 맛잇다 해서 불도장(佛跳墻)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포타오창은 상어 지느러미, 전복, 가리비, 해삼, 자라, 표고버섯 등 고급 재료를 단지에 넣고 소흥주를 가미한 한약맛이 나는 요리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선과 무의 발상지 소림사



소림사 유치부부터 성인까지 소림사 무술학교는 일반인들에게도 개방되어 있다. 주변 무술 학교에서 수련받은 학생 중 약 1만명이 소림사 경내 무술학교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
출처-리아 노보스티, 세르게이 피아타코브

무예의 요람으로 알려져 있는 소림사(少林寺). 중국 무술의 뿌리이면서 당나라를 건국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집단이 바로 이곳 스님들이었다.

중국 허난성 덩펑시 쑹산에 있는 소림사는 북위 효문제가 496년 창건하였다. 인도 불경들이 중국어로 번역된 곳이자 선종의 교리가 완성된 곳이기도 하다.

소림사 1대주지인 발타선사는 참선을 보완하는 수행의 하나로 무술을 도입했는데, 이 무술이 훗날 쿵후로 발전하였다. 현재 덩펑시에 있는 무술학교는 83개, 수련학생은 8만명이 넘는다. 소림사가 유명해진 것은 이연걸이 주연한 영화 '소림사' 덕분이다. 세계적인 무술붐과 함께 소림사의 상품가치도 덩달아 올라가면서 소림사를 찾는 관광객은 한해 평균 300만명에 이를 정도가 됐다.

소림사는 영리법인을 설립하면서 2백여 개에 이르는 관련 상표를 등록하는 등 해마다 상표권 사용료로 수십만 위안을 벌어들인다. 소림사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덩펑시 재정 수입의 30%를 차지할 정도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승의 가풍은 없어지고 지나치게 상업화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한다. 배현진 기자

티베트인, 中에 상권 뺏기고 거지로 전락

중국 내 티베트족 집단 거주지역에 한족 상인들이 몰려와 지역 상권을 장악하고 상당수 유목민이 거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티베트인권 · 민주촉진센터'가 발표한 '2013년 티베트 인권상황 보고서'를 인용해 한족 상인이 티베트족 자치주 등으로 대거 몰려들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다른 지역에서 온 한족 상인들이 자본과 경영력을 앞세워 현지 상권을 장악하면서 현지 티베트인 상인들의 생존 공간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목민들이 가축 감소와 인구 증가 속에 별다른 벌이 수단이 없어 거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은 당국의 현대화 정책으로 도시로 강제 이주당한 일부 유목민들이 구걸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 센터 측은 "지난 1년 동안 티베트인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티베트 자치주에서는 광산 등 자원 개발 영향으로 현지 주민의 90%까지 강제 이주된 곳들도 있다고" 장했다. 이나은 기자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나무차 소개」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마가목」효능방영
■ 2013년 10월 16일 수요일 - 오전 5시 50분 KBS 1TV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 마을「마가목」효능 방영

한방문헌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 031-773-7838
참나선원 대진스님

※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농협 : 227027-51-090791(예금주 : 남궁성균)

· 제조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4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 (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39위,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강식 및 수업일시
■ 개 강 식 : 2014년 3월 6일 (목요일)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 산 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 화 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 (소장 : 처명)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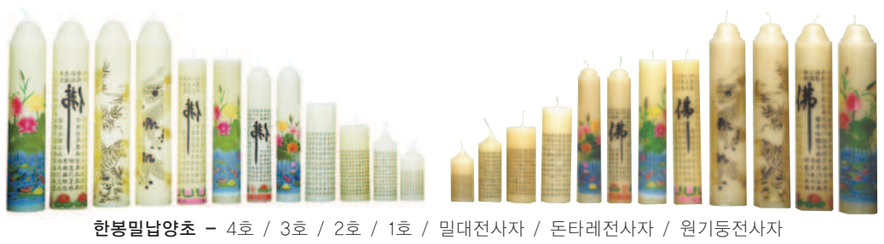
3×6사군자 (7.4ϕ×14.5㎝) 3×6식물성사군자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연꽃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ϕ×29㎝)



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ϕ×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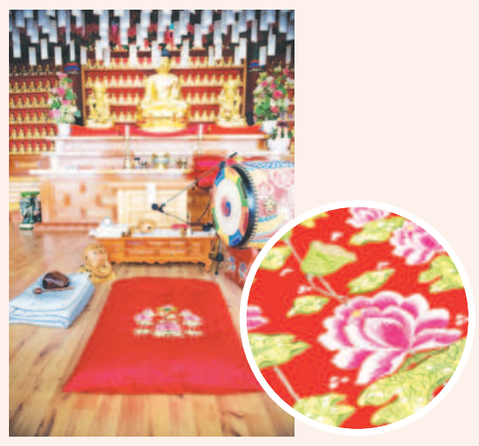
한봉밀납양초 – 4호 / 3호 / 2호 / 1호 / 밀대전사자 / 돈타레전사자 / 원기둥전사자



수공예예술양초 – 밀납 / 약쑥야광연봉연꽃양초 / 약쑥1호예술연꽃양초 / 야광 연꽃초

100% 핸드메이드 자수방석

사이즈 및 소재 맞춤으로 작업가능하며,
전화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상품으로 제작해드립니다.
수공예 전화상담 : H/P 010-3766-0242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한글/영어)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낯선 세상에서 만나는 또다른 나

박노해 아시아 사진전 '다른 길'… 세종문화회관서



박노해 아시아 사진전 <다른 길>이 2월 5일~3월 3일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 지하 1층에서 열린다. 사진은 '나날이 새롭게'

"우리 인생에는 각자가 진짜로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 분명, 나만의 '다른 길'이 있다"

80년대 〈노동의 새벽〉으로 노동자의 삶을 노래했던 박노해 시인이 카메라를 들고 티베트, 라오스, 파키스탄, 버마, 인도네시아, 인디아를 돌았다. 그 대장정의 시간을 렌즈에 담은 7만 여 컷 중 엄선한 120여 컷의 사진이 대중들을 찾는다. 박노해 아시아 사진전 〈다른 길〉전이 2월 5일~3월 3일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 지하 1층에서 열린다.

지난 14년간 오래된 만년필과 낡은 흑백 필름 카메라 하나를 들고, 지상의 가장 멀고 높고 깊은 마을과 사람들 속을 걸어온 박노해. 이번에 포커스를 맞춘 곳은 아시아다. 눈물 젖은 땅이었으나 그 슬픔의 힘으로 치유하고 소생하는 강인한 생명의 땅이자 영혼의 대지임을 보여준다.

자신이 무슨 위대한 일을 하는지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으며, 인류를 먹여 살릴 한 뼘의 대지를 늘려가는 전통마을 토박이들. '어찌할 수 없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어찌할 수 있음'은 최선을 다해가면서, 우리 삶은 '이만하면 넉넉하다'고 서로 기대어 사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의 사진 속에서는 티베트의 승려도 만날 수 있고 사원을 내려다보는 풍경도 만날 수 있으며 짜이를 끓이는 가족의 따뜻한 모습도 만날 수 있다. 한편의 풍속화나 풍경화를 연상케하는 작품들은 사진 이상의 의미를 담는다.

그래서 박노해의 사진은 눈에 띄지도 않고 역사에 기록되지도 않는 이름 없는 이들의 헌신과 고결을 묵묵히 포착해낸다. 이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이 세상 깊숙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삶의 전위'임을 그려 보인다. 그러나 이 낯선 세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그 안에서 마주하는 것은 정작 나 자신이다. 가슴 안의 무언가를 탁, 건드리며 근원적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힘을 경험하게 된다.

티베트에서 인디아까지 박노해의 뜨거운 '발바닥 사랑'으로 써온 다른 삶 속으로의 여정. 새해 아침, 내 마음의 순례길을 함께 걸어가 보자.

한편 박노해는 이번 전시와 함께 사진에세이집 〈다른 길〉을 출간한다. 전시작품을 포함한 총 140여 컷의 사진과 글이 수록되어 있다. (02)734-1977

정혜숙 기자

무료로 즐기는 만다라 체험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홍보관



소금 만다라 체험 장면

한국 전통문양 만다라 체험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눈길을 끈다. 종로구 우정국로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1층 홍보관에서는 매주 수·토·일요일 시민들에게 만다라체험을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색색으로 물들인 소금으로 만다라를 그려보면서 내면의 심리를 치유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인 스님은 "만다라는 인간의 내적 존재를 밝혀주고 균형을 이루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명상치료에 효과가 있고, 참 '나'를 만나는 자기실현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함께 템플스테이문화사업단은 손수건 염색 프로그램도 동시에 진행 한다. (02)2031-2000

정혜숙 기자

도심사찰에서 체험하는 발우공양

음식과 전통의 소중함 느껴보세요

청유사 식당작법 '공양소합쇼'





태고종 청유사 고양범패문화예술원은 공양의식에 작법무를 가미한 식당작법 '공양소합쇼'라는 프로그램으로 승화, 대중들을 찾아간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양'은 단순히 밥을 먹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탄생, 성도, 열반까지의 과정을 생각하고 불보살을 생각하고 자연과 뭇중생들의 노고를 떠올리며 보살로서 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서원을 다짐하는 거룩한 의식이다.

태고종 청유사 고양범패문화예술원은 이 거룩한 공양의식에 작법무를 가미한 식당작법 '공양소합쇼'라는 프로그램으로 승화시켰다. 식당작법은 총림의 스님들이 대법회시 설판재자가 준비한 공양을 받고, 대중스님들은 그 보답으로 법공양을 베풀게 되는 일련의 의식을 말한다.

작법이란 공양시 의식문이 범음, 범패로 행하여지며 이때 사물 즉 종, 목어, 운판, 북을 비롯한 각종 법구가 동원이 되고 법고무, 바라무, 착복(나비)무 등의 작법무가 베풀어진다. 그 의식규모와 절차가 매우 방대하고 복잡한데 '공양소합쇼'는 이런 과정들을 현대인들에 맞게 간소화 시키고 참여자들이 직접 공양의식에 참여해 음식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사무국장 청산 스님은 형식의 간소화로 대중들이 쉽게 공양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한다. "식당작법은 일반 발우공양과는 달리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배우기도 어렵고 또 진행에도 많은 인원이 필요해 자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영산재보존회가 있는 신촌 봉원사에서도 영산재가 거행되는 당일 날 한 번 거행되고 나면 좀처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이 좋은 의식을 대중들에게 자주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다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산재 당일 거행되는 식당작법
형식 간소화 시켜 대중에게 공개
재가자들이 불교문화 직접 체험
매주 셋째주 일요일 정기 의식

그렇다면, 오늘날에 전해오고 있는 식당작법은 불교의 어떤 사상이 내포되어 있을까? 식당작법에는 반야심경의 전문을 인용 공의 사상을 바탕으로 불제자로서의 기본적 자세를 확인하고 있다. 청산 스님은 "각 게송에 들어있는 '원(願)'자와 오관게, 정식게, 절수게 등에서 가리키듯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도 실천을 발원하는 내용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롯이 전해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변화되는 현대 문명에 정신과 신체가 지배되어 무너지는 신구의(身口意)를 청정하게 하여 자아를 증득시킬 수 있는 훌륭한 의식"이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공양 의식이 끝나면 각자의 발우를 깨끗이 김치로 닦아먹고 정리도 하면서 회향게를 하고 종성을 치면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다. 후에 스님들과의 대화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어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도 있다. 청산 스님은 "이 의식을 재가자들이 직접 함께 참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일단 불교문화를 몸소 접하면서 그 정신을 일깨울 수 있다. 또 요즘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음식을 남기지 않는 발우공양을 체험함으로써 풍요로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음식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그 의미를 전한다.

현재, 파주 금강사 주지 덕성 스님, 인천 영종도 정도사 주지 일원 스님, 영산재 문하생 덕운 스님, 진해 스님, 신덕 스님 등이 의식해 동참하고 있으며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6시에 청유사 법당에서 의식이 봉행되고 있다. 한국전통불교 의식을 체험하고 싶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참여 인원이 17명으로 한정되어 있다. (031)907-1062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익산 문화의 정수 한자리에…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

왕궁리 오층석탑 금강경판 미륵사지 수각형향로 등 전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유병하)은 익산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특별전 '전북의 역사문물전 12, 익산'이 2월 9일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동안 미공개 되었던 국보 123호 왕궁리 오층석탑 출토 금강경판과 무왕의 치아로 추정되는 쌍릉 출토 치아 등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미륵사지 출토 향로 '수각형향로'(보물 1753호), 후백제 때 만들어진 왕궁리 출토 금동불입상, 2012년 발견된 심곡사 칠층석탑 출토 사리호, 연안이씨종중 문적박물관 소장 이숭원(1428~1491)의 과거 합격증(보물 651호) 등도 주목할 만하다.

전북 익산은 고조선 준왕(準王)이 남쪽으로 내려와 정착한 곳으로 백제 무왕(武王)이 새로운 백제 건설을 위해 새로운 왕궁과 '미륵하생신앙(彌勒下生信仰)'을 바탕으로 미륵사를 창건한 곳이기도 하다. 아울러 백제의 부흥을 기치로 내건 견훤의 후백제 건설의 정신적 바탕이 된 곳도 익산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전라도의 신·구 관찰사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던 곳 또한 익산이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익산의 역사를 조명하는 특별전을 연다. 사진은 왕궁리 오층석탑 출토 사리갖춤

이번 전시는 1부 '마한의 중심', 2부 '백제의 고도', 3부 '부흥의 터전', 4부 '전라도의 첫 고을' 등 총 4부로 나누어 구석기시대부터 근대까지 익산의 역사와 문화를 망라하고자 했다. (063)220-1025

정혜숙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63, 64번째 저서 출간!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24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4권 출간!
운문 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신간! 바로보인 간당론(看堂論)
이와 같은 도리에서 적시적소에 맞게 주장자를 쓴다면 반드시 어떤 경우와 어떤 말끝에 치는 주장자냐에 따라 한 번을 쳐야 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와 어떤 말끝에 치는 주장자냐에 따라 두 번을 쳐야 할 때가 있으며, 또 어떤 경우와 어떤 말끝에 치는 주장자냐에 따라 세 번을 쳐야 할 때가 있다. 그러한 법리를 모르고 주장자를 친다면 눈먼 주장자라 하는 것이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현재 32종 64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국 내 산 (청도 불광사 사찰 內 재배)
'적하수오 된 장' '적하수오 고추장' 판매

■ 적하수오, 적하수오 된장 필하신분 연락바랍니다.
• 하수오 된장 : 1 kg 5만원 • 하수오 고추장 : 1 kg 5만원
• 하수오 건조분말 판매 개시(kg당)

하수오 된장, 하수오 고추장은 청도 서룡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하수오로 만듭니다.



1.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모종을 예약 분양합니다.
2.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서룡 농장 :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묘목 재배
계좌번호 : 농협 302-0332-7864-61 예금주 김남필

인터넷 검색 : 하수오 남서

문화人

“명상과 예술이 만나면 삶은 풍성·사랑은 두 배”

테라피 디렉터
권민희 대추씨 대표


사회적기업 대추씨의 권민희 대표는 오랜 수행과 다양한 문화 경험을 통해 오늘의 대추씨를 창업 각 기관과 기업 등에 힐링 프로그램을 전해주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대추씨는 망치로도 깨지지 않을 만큼 단단해서 새들도 먹지 못하는 씨앗이지만 잘 돌보고 가꾸면 싹이 트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추씨처럼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출발한 기업이 바로 문화를 통해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고자 하는 대추씨입니다.”

명상춤을 기반으로 음악과 미술 심리치료 등을 접목한 대추씨프로젝트는 대중들에게 놀이를 통한 힐링을 전해주고 있다. 사회적기업 대추씨의 권민희 대표는 오랜 수행과 다양한 문화 경험을 통해 오늘의 대추씨를 창업했다.

“처음부터 창업이 목표는 아니었어요. ‘어른이 놀이터’라는 힐링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이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속적으로 하게 됐어요. 개인의 정서적 문제가 다양한 문화와 접목해 치유가 되고 자기 삶 안에서 변화와 성장을 스스로 경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좋은 반응을 얻었죠.”

권 대표는 ‘대추씨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010년 청년 모임을 시작해 2012년 고용노동부 산하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청년등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2기로 선정되었고 같은 해 10월 ‘대추씨’라는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했다. 영화 사진 미술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프로그램 제작해왔으며 2013년에는 현대자동차에서 주관하는 H온드림 펠로우에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기업 단체 등의 지원 서비스는 물론 다문화 새터민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대추씨의 어른이놀이터는 주목받는 프로그램이다. 춤명상-그림 치유-글쓰기 등을 통해 내면 치유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치유프로그램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상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는 지난 10년간 권

명상춤 기반으로 미술 음악 등 접목한 ‘어른이 놀이터’ 개발 각 기관 학교 등서 외부 강연 기업 연계 프로그램 개발

대표 자신이 내면을 치유하고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했던 모든 에너지들이 집약된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108배 수행, 위빠사나 명상 등을 해왔어요. 여기에 춤명상, 요가, 애니어그램 등을 배워왔죠. 처음에는 제 내면의 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를 세상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 창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미술전시와 결합한 드로잉 힐링 서클은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동양화가 안진의 작가와 함께 한 ‘드로잉 힐링 서클’은 관람객이 표현 예술가가 되어보는 새로운 차원의 체험 프로그램이다. 그림 관람-소감나누기 및 토론-스트레칭-춤명상-명상-자기만의 만다라 그리기 순으로 진행, 심신을 치유하는 공동체 명상 프로그램을 완성했다.

“드로잉 힐링써클은 공유와 소통을 테마로 기획된 프로그램이에요. 관람객이 단순히 관람의 객체로 머물지 않고, 적극적 주체가 되어 소통할 수 있었고 작가 또한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작가와 관람객이 서로 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모두가 만족도가 컸어요.”

현재 자아개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권 대표는 앞으로 좀더 심도 깊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2012년이 찾아가는 프로젝트를 이끌었다면 2013년은 프로그램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어요. 임상심리상담가 비폭력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만들어 그간의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죠.”

현재, 대기업 학교 기관 등에서 대추씨 프로젝트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권 대표는 미소 짓는다. “앞으로 명상과 예술을 접목한 꾸준한 프로그램 개발로 대중들의 소통과 공감 능력을 기르고 내면의 사랑을 길어 올릴 수 있었으면 하고 싶어요. 이를 통해 누구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싶습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사)인순이와 좋은사람들이 주최하는 다문화캠프에서 부모 힐링 프로그램 진행


작가와 관람객이 하나의 예술가가 되어보는 체험 프로램 ‘드로잉 힐링 서클’

밤새도록 두견새 소리나 들었으면…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⑥ 서거정과 수종사 ㊦




나한도량으로 이름난 수종사 응진전 내부.

해박한 지식과 은근한 공감

〈성종실록〉에는 서거정이 불서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가 사찰을 읊은 시나 스님들에게 써 준 시편에서는 해박한 불교적 소양이 묻어난다.

용진강상고가람(龍津江上古伽藍)
석경기구입취삼(石徑崎嶇入翠杉)
억석루요영운과(憶昔屢邀靈運過)
지금유조원공담(至今猶阻遠公談)
계변주발용응복(溪邊呪鉢龍應伏)
석상번경호응참(石上 經虎應參)
백멸청혜오역재(白 靑鞋吾亦在)
상봉일소호계남(相逢一笑虎溪南)

용진강 위의 옛 절을 찾아 오르노라니
구불구불 돌길이 삼나무 숲으로 들어가네.
옛날에 영운의 발길은 자주 맞았으련만
지금은 원공의 말을 들을 길이 없네 그려.
시냇가에서 주문 외우면 용이 발우에 숨고
돌 위에서 설법하면 범도 응당 참여할 테지.
흰 버선 푸른 짚신이 나에게도 있거니
서로 만나 호계에서 한번 껄껄 웃어 보세.
–서거정 ‘수종사’ 〈사가집〉 보유편 3권

〈동문선〉에는 이 시가 ‘기수종사윤선로(寄水鍾寺允禪老)’ 즉 ‘수종사의 윤 선사에게 준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다. 그리고 수련도 약간 다른데 ‘龍江上山古伽藍 細經崎嶇入翠杉’로 시작된다. ‘수종사’란 제목은 서거정 자신이 편찬한 〈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다가 〈사가집〉의 보유편에 수록되었고, ‘기수종사윤선로(寄水鍾寺允禪老)’란 제목은 서거정 자신이 편찬한 동문선에 실린 것이다. 해석에 있어 그리 큰 차이는 없지만 내용상 이 시는 ‘윤선로(윤이라는 이름의 선승)’에게 써준 시가 맞다.

시의 도입부인 수련에서 서거정은 수종사로 가는 길의 풍경을 묘사한다. 용진강은 양수리를 용나루(龍津)라 하고 강을 용강이라 부른데서 온 말이다. 함련에서 서거정은 중국 남조(南朝) 때의 문인 사영운(謝靈運)이 산을 좋아 했던 것을 인용해 자신과 일체화 하고, 명유(名儒)인 도잠(陶潛), 육수정(陸修靜) 등과 친밀했던 여산(廬山) 동림사(東林寺)의 혜원(慧遠)을 끌어들여 ‘윤선로’를 빗대고 있다.

경련에서도 중국의 고승 섭공(涉公)과 축담유(竺曇猷)를 인용, 수도승의 법력을 노래하고 있다. 섭공(涉公)은 진대(晉代)의 고승(高僧)인데, 기우(祈雨)를 행할 때에 주문을 외워서 용을 굴복시켜 자신의 바리때 속으로 들어오게 하여 큰비를 쏟아지게 했다는 고사가 있다. 용을 굴복시킨다는 것은 고승의 신통한 법력(法力)을 의미한다. 또 진(晉)나라 때의 고승(高僧) 축담유(竺曇猷)가 풍성(城)의 적석산(赤石山) 석실(石室)에서 불경을 외고 있을 때 호랑이 수십 마리가 앞에 와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한 호랑이만 잠을 자고 있으므로 축담유가 지팡이로 자는 호랑이의 머리를 두드리면서 “너는 왜 경을 듣지 않느냐?”라 꾸짖으니, 모든 호랑이들이 다 설법을 들었다는 고사다. 이 역시 고승의 신통한 법력을 가리킨다.

미련의 ‘흰 버선’과 ‘푸른 짚신’은 두보(杜甫)의 시에서 인용한 것으로 세속을 떠나 초탈한 삶을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 호계에서 만나 껄껄 웃는다는 것 또한 여산 혜원 스님의 일화에서 나온 ‘호계삼소’를 인용한 것으로 격의 없고 시공을 초월한 경지를 의미한다.

결국 서거정은 수종사의 선승을 찾아가며 다양한 고사들을 통해 불가의 심오한 수행과 그 초월적 경지에 이르고 싶은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세속과 산사의 간격

서거정은 수종사의 윤상인(允上人 상인은 스님의 별칭)과 깊이 교류했다. ‘윤상인이 짚신을 보내 준 데 대하여 사례하다(謝允上人送芒鞋)’는 칠언절구를 남기기도 했다. 이 시에서도 ‘오늘 짚신 부쳐준 게 응당 뜻이 있으리(今日寄鞋應有意) 한 번 찾아가 선창의 담화를 나눠야겠네(相尋一去話禪窓)’라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용진강상고초제(龍津江上古招提)
아욕심사거불미(我欲尋師去不迷)
량이막문진세사(兩耳莫聞塵世事)
통소좌청두견제(通宵坐聽杜鵑啼)

용진의 강가엔 오래된 고찰이 있는데
내가 스님 찾아가려면 길도 모르지 않거니
두 귀로 속세의 일은 죄다 듣지를 말고
밤새도록 앉아서 두견새 소리나 들었으면.

산승장여영운한(山僧長與嶺雲閑)
장재산간불출산(長在山間不出山)
아타홍진공백발(我墮紅塵空白髮)
입산무계재인간(入山無計在人間)

산승은 길이 산 구름과 더불어 한가하여
산속에만 길이 머물고 산을 나오지 않는데
나는 속세에 떨어져 헛되이 늙어 버린 채
산에 들어갈 계책 없어 인간에 남아 있네.
–서거정 ‘기수종윤상인 2수’ 〈사가집〉 제28권

앞의 시는 탐진치가 묻어 있어 번뇌만 키워주는 세속의 소리를 듣지 말고 수종사 스님 곁에 가서 밤새 소쩍새 소리나 듣고 싶은 심사를 담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뒤의 시 역시 속세에서 허망하게 늙어버린 자신을 책망하면서도 산에 들어 갈 계획조차 없는 현실을 탄식하고 있다.

서거정은 격변의 시대를 매우 호사롭게 살아간 관료이고 지식인이며 시인이었다. 수종사와 관련한 시들을 보면, 그의 처세(處世)를 두고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이 그의 정신은 현실안주 보다는 초월적인 이상향을 갈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불교의식(범패) 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여법하게 의식을 진행할 인재양성을 위해 ‘제1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과정

– 상용의식 및 재의식 전반(시련~봉송)
– 바라무, 착복무, 법고무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북)다루는 법

• 교육기간 : 1년과정 • 대상 : 초심자, 전법사, 포교사
• 개강일 : 2014년 3월 5일(수요일)
• 강의시간 : 매주(수/목), 오후4시~5시30분
• 문의 : 031)907-1062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50-76, 503호 (풍동 중앙프라자B동) 청유사

한국불교 태고종 청유사 (사)고양 범패문화 예술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지혜의 보고 佛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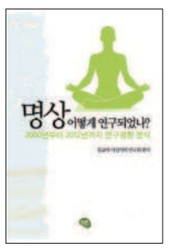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2 ~ 1/2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비울수록 가득하네	정목	쌤앤파커스
3	알고 보면 괜찮은	마가	불광출판사
4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5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6	붓다수업	법상	민족사
7	능가경 강의	남회근	부키
8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청전	한겨레출판사
9	붓다 한 말씀	이미령	불광출판사
10	An Encyclopedia of Korean Buddhism(영문판 한국불교사전) 해원David A. Mason		운주사



‘명상’ 연구를 연구하다



명상 어떻게 연구되었나?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저
올리브그린 펴냄
2만3천원

국내 ‘명상(meditation)’ 연구의 시작과 흐름을 분석하고 경향과 그 방향을 진단한 연구도서다. 본 연구서는 동국대학교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2011년 9월부터 ‘심신치유프로토콜 구축을 위한 불교와 사상의학의 융합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명상관련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볼 목적으로 저술됐다.

본 연구팀의 연구과제가 ‘심신치유프로토콜 구축’에 있기 때문에 명상과 관련된 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에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집필하게 되었다.

현대인들은 생활 곳곳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 개인의 욕망이나 사회적 불안 등 복잡한 현실 상황은 일상의 삶을 지치게 만든다. 이런 가운데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안정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바람은 근래 ‘힐링(healing)’이란 말이 유행하게 되는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힐링에 대해 관심이 큰 것은 그만큼 심신이 지치고 고단한 사람이 많으며, 지친 심신을 치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힐링의 다양한 방법 중에서 약물이나 다른 외부 수단이 아닌 스스로의 심신을 치유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의 하나로 언급되는 것이 명상이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심신수양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전래되어 온 명상은 시기, 지역적 특색, 종교의 차이, 목적이나 방법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명된다. 고요히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눈을 가볍게 감고 무엇인가에 집중하거나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명상은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참선이나 사념처 수행, 도교의 좌망, 유교의 좌정, 태극권이나 기공, 단전호흡, 묵상기도와 같은 것도 모두 명상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근래에는 학문 영역의 하나로 서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명상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에 소개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구체적인 명상법인 알아차림, 마음챙김 등의 표현도 명상이란 용어 못지 않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 동안 명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서양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에서도 명상 관련 연구에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명상 관련 연구 경향 분석을 시도한 논문이 몇 편 있지만, 본 연구와 같이 국내 등재 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는 없었다. 학문 분야가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연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명상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 분석함으로써 지난 연구의 주된

명상 연구 종합적 정리 분석
심리학계 위주 연구 여전 숙제
단독연구 아닌 학제간 연구 필요

흐름을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은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명상관련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양적 성장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연평균 56.6편에 이르는 논문이 발표됨으로써 중반 이후 명상관련 연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초기에는 심리학계 위주에서 중후반에 접어들어 종교학, 의학, 교육학, 체육학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논문이 발표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또한 초기에는 서구에서 들어온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는데 주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명상 관련 연구는 심리학계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학제간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예를 들어 존 카밧진의 ‘MBSR’은 명상전문가, 심리학자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수 년간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반해, 국내의 경우는 학제간 연구가 아닌 연구자 단독 연구가 대부분이고, 개발 기간도 1~2년의 단기간이다.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는 심리척도의 유의성뿐만 아니라 의학적 평가도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정도로 취약한 현실이다.

연구서는 국내의 명상연구가 지난 13년간 개별적이면서 양적인 측면을 위주로 발전해 왔다면, 이제는 학제간 연구를 통한 질적인 측면을 병행해야 할 전환기적 시점에 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서는 앞으로 명상관련 연구자가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서는 총 5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명상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하고 있다. 특히 불교명상을 중심으로 도교와 기독교 명상의 특징을 일별하고, 서양에서 개발된 주요한 명상치료프로그램의 내용과 특성, 그리고 불교명상의 관련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특히 연구방법론을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경향분석 논문을 분석하여 연구방법론에 적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3장에서는 대상 논문을 추출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했다. 명상 관련 논문을 검색하기 위해 명상키워드(명상, 마음챙김, 알아차림)와 분야별 키워드(심리, 의학, 뇌, 종교, 불교, 프로그램)를 설정하고 그 검색 결과를 추출해 가는 과정을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다.

4장에서는 연구동향을 분석했다. 명상과 알아차림, 마음챙김 등과 같은 키워드로 검색되는 명상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동향과 더불어 심리, 뇌 의학, 종교, 불교, 프로그램 등으로 명상과 관련된 분야를 구분하여 분석했다.

5장에서는 4장의 연구동향의 결과를 토대로 명상 연구의 전망에 대하여 기술했다. 부록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삼은 논문의 선별 과정과 분석 대상 논문들의 목록을 정리하여 향후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마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불교의 마음사상(유식사상입문)

요코야마 고이츠 지음 | 김용환, 유리 옮김
산지니 펴냄 | 1만8천원



“마음만큼 자신에게 가장 가까우면서도 파악되지 않는 것이 없다. 또한 마음만큼 자신을 괴롭히고 미혹하게 하는 것도 없다. 이 불가사의한 ‘마음’을 심층에서 관찰하고 분석하여 그 비밀을 훌륭하게 해명한 것이 유식사상이다.” 책 〈불교의 마음사상(유식사상입문)〉은 ‘유식(唯識)’ 입문서다.

삶이 괴로운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는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불가의 설명에 따르면 마음을 뒤덮은 번뇌로 인한 우리의 여러 활동이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마음에서 번뇌를 없애고 정화하는 법을 깨우쳐야 한다. 이를 위해 ‘오직 마음뿐’이라는 ‘유식’ 사상이 필요하다.

유식사상이란 기원후 3~4세기경 인도에서 무착논사에 의해 일어난 불교사상이다. 무착논사는 〈해심밀경〉과 〈십지경〉 등 대승경전의 유심사상을 종합하여 모든 것은 마음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마음에 의하여 현상계가 창조되고 실현된다는 유식사상을 열었다.

불교는 석가모니부처님 생존과 사후 수십 년간의 원시불교, 이후논쟁과 분열을 거듭하다 발흥한 부파불교(소승불교), 자기보다 타인의 해탈구제를 우선으로 하는 대승불교 순으로 발전했다. 대승불교는 사상적으로 〈반야경〉에 근거한 ‘공사상’과 〈해심밀경〉 등에 근거한 ‘유식사상’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후자를 추구한 집단을 ‘유가행파’라고 부르는데, 이 유가행파의 사상이 유식사상이다. 유가행파의 유식사상은 반야의 공사상을 답습하면서 ‘식’이라는 존재를 어떤 의미로 인정함으로서 공사상의 허무적인 측면을 시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존재와 작용이 오직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에 불과하다는 이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흔히 ‘유식 3년, 구사(俱舍) 8년’이라고 해서 유식학을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3년이 걸린다고들 한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구사학을 마스터한 다음에야 비로소 유식학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식학을 완전히 해득하기 위해서는 11년이나 걸린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매일 배우면 그만큼 걸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식학은 상당히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는 한, 그 진의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유식사상 입문서인 〈불교의 마음사상〉은 일본에서 30쇄 이상 출간된 스테디셀로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익숙한 사례와 다양한 도식을 들어 난해한 유식을 그 근본부터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단순한 이론 습득을 넘어 인간의 마음을 정화하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실천적 가르침으로서의 유식사상을 접하게 한다.

책은 먼저 서론에서 유식사상을 개설하고 제1장에서 그 역사를 기술한 다음, 제2장에서 유식사상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따라서 유식사상을 처음 접하는 독자는 서론부터, 또 조금이라도 유식을 알고 그 사상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독자는 제2장부터 먼저 읽을 것을 권한다. 박재완 기자

자신이 바뀌면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

미리하는 인생공부

성담 지음 | 셀프컬쳐리서치 펴냄 | 1만5천원



“죽음을 알 때 삶이 더 소중해지고 늙음을 알 때 지금 더 잘하게 되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을 생각하는 삶은 다릅니다.”

책은 성담 스님이 ‘노후대책’이라는 주제로 대중에게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삶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일은 결국 노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은 단순히 노년기를 맞이할 사람을 위한 책이 아니다. 현재와 미래는 연결되어 있어 누구나 늙어가고 죽음에 이르지만 지금 잘하지 못한다면 노년과 죽음은 고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삶은 쉽지 않다. 늘 어려움의 연속이다. 책은 아무리 삶이 어려워 보여도 우리는 여전히 자기를 향해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한다.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질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삶의 흐름과 완성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서 누구도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책은 우리 삶의 흐름과 그 끝에 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주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준다.

사람의 삶은 아이러니하게도 살아있기 때문에 죽을 것을 걱정하고, 젊기 때문에 노후를 걱정한다.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애쓰고, 무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잘 하길 원한다. 걱정과 불안투성이이다. 그러나 죽지 않음을 알면 걱정할 죽음이 사라지니 죽을 걱정이 필요 없고, 늙지 않음을 알면 걱정할 노후가 사라지니 노후 걱정이 필요 없다. 이미 부자임을 알면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애쓰지 않으니 자기 한 몸 못살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미 성공하고 있음을 알면 이루어야 할 성공이 사라지니 성공에 대한 불안이 사라진다. 이처럼 책의 부제에 있는 ‘확인하는’이라는 문구의 의미는 걱정할 것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미 삶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져 있음을 확인한다는 의미이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고통스럽다. 그리고 행복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고통스럽다. 그리고 행복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면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도 당장 행복해질 수 있고, 점차 삶의 흐름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할까. 책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바라보는 세상은 바뀌지 않았어도 바라보는 자신이 바뀌면 세상은 다르게 보이며 삶은 자신이 보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책은 지금 잘 준비한다면 노년은 완성된 자신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할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박재완 기자

SINCE 1974(통권 472호) 한국불교의 대표잡지

마음이 풍요로운 삶을 위한 나침반 「불광」

2013년, 2011년 문광부 우수콘텐츠잡지 선정 | 2012년 대원상 재가부문 포교대상 수상 | 2008년 문광부 우수전문잡지 선정 | 2005년 한국잡지협회 우수잡지 선정

2월호 특집
진리의 숲에 들다

“불교를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다.
진짜 불교를 알고 싶다면 공부를 하라. 기왕이면 즐겁고 재미있게 하라.
기초예절부터 심오한 교리까지, 그 깊이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줄 대표사찰들을 찾았다.

화보 봉은사 기초학당의 풍경
에세이 나의 불교 공부 이야기(김봉래 BBS 전법후원단장)
절에서 배워요 대구 한국불교대학 | 성북동 길상사 도서관 | 부산 홍법사 청소년 문화강좌
인터뷰 불교 교육의 현황(목경찬 교수)

행복찾기 내가 만난 불교 – 동물원 멤버 박기영의 ‘그 겨울 전등사에서’ | 사찰불화기행 – 법주사 팔상전 ‘팔상도 사문유관상’
아름다운 삶 바닷가 그 절 – 양양 죽도암 · 휴휴암 | Art & Heart – 한국화가 박정영 | 고전산책 – C. 레비 스트로스의 『야생의 사고』
세상 사는 이야기 사색의 뜰 – ‘문화복지’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 생명살림 민족생활의학 – 치유의 힘, 면역력을 높여라
대자유를 찾아서 신화의 길, 깨달음의 길 – 거울 속 ‘그’와 ‘나’는 둘이 아닌 하나 | 보리달마 공략집 – 예의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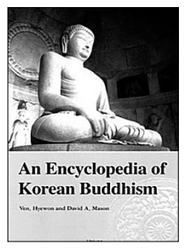
월간 불광 구독 및 후원 신청 | 대표전화 02) 420-3200 | 홈페이지 www.bulkwang.co.kr
1년 정기 구독료: 60,000원 1권: 6,000원(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 태블릿PC에서도 월간 「불광」을 만나세요
애플과 안드로이드 기기
애플리케이션 ‘파오인’ 내려받기 > ‘라이프 리빙’ 분야 클릭 > ‘월간 「불광」’ 선택

* 순수불교잡지 월간 「불광」을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당신의 행복이 「불광」의 행복입니다!

570개 키워드 통해 본 한국 불교문화

An Encyclopedia of Korean Buddhism(한국불교 영어백과사전)



혜원스님 & 데이비드 A 공저
운주사 펴냄
3만5천원

한국불교의 다양한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는 최초의 영문 한국불교 백과사전이다. 1,600년 한국불교의 모습을 570여 개의 표제어와 180여 컷의 사진에 담았다. 외국인 눈높이에 맞춰 항목을 선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한국의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

우리나라를 찾는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00만 명을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외형은 성장했지만 내실은 부실하다. 얼마 전 조사 보고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느끼는 한국여행의 가장 큰 문제는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한국은 쇼핑밖에 할 게 없다는 비판이었다. 한마디로 고급문화의 부재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전세계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고급문화가 분명히 존재한다. 제대로 포장해서 보여주고 있질 못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전통 불교문화다. 대표적인 예가 템플스테이다.

템플스테이는 외국인에게 가장 인상적인,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한국불교가 가진 잠재력중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렇게 한류를 필두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 불교문화의 전통을 소개하는 자료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불교문화를 외국인에게 제대로 정리해서 소개한 자료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 책을 기획 편찬했다.

이 사전은 한국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570여 개의 키워드와 180여 컷의 사진 자료를 통해 한국의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즉 한국불교가 가진 유 · 무형 유산 및 자산들에 대해 가능한 평이하게, 외국인 눈높이에 맞게 설명함으로써 그들이 한국불교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도록 구성했다. 그래서 이 책은 'dictionary'가 아닌 일종의 백과사전, 즉 'ency-clopedia'라고 이름 붙인 이유다.

이 책에 소개되는 주요 분야는 △한국불교의 역사와 시대별 특징 △불교전래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끼친 인물 △전국 각지의 주요 사찰 △수행자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수행 모습 △각종 의례와 의식 △건축, 회화, 조각, 공예, 차문화, 용어 등이다.

외국인 눈높이에 맞춰 항목 선정
역사, 문화, 의례 등 영어로 해설
180여컷 사진자료 이해 도와
한국불교 관련 내용 표제어로 뽑아

이 책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불교 안내서다. 따라서 한편으로 최대한 외국인의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서술하려는 저자들의 노력이 책 곳곳에서 엿보인다. 또한 우리 눈에는 좀 번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고유명사에 한자를 병기함으로써 중국인이나 일본인도 활용할 수 있게 배려했다.

부록으로 탑, 부도, 불상, 범종, 전각 등의 도면을 실어 이해를 돕고 있으며, 색인(index)에 영어 로마나이즈색인, 한자색인, 한글색인 등을 두어 사전 활용의 편리함을 도모했다.

이 책이 백과사전 형식이지만, 한국불교의 유구한 역사를 고려할 때 이 한 권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책의 주 대상이 외국인이다. 따라서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불교와 관련해 비교적 자주 접할 수 내용들을 뽑아 표제어로 소개했다. 하지만 행여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불교사에 의미있는 항목들 또는 외국인들이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을 선별해 놓았다. 이외에도 내용 설명에 있어서도 외국인 수준을 고려해 쉽고 자세히 서술했기 때문에 한국불교에 대한 개괄적 안내서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을 공동 저술한 혜원 스님은 현재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이며, 2009년 〈한국불교문화사전〉 한글판 편찬위원장을 맡은 인연으로 이번 영문판 편찬에 참여했다. 또한 메이슨 교수는 현재 남서울대 교수이며, 이미 한국의 전통문화와 관련한 몇 권의 저서를 출간했을 정도로 한국의 전통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와 그 결과물을 소개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한중일 불교 결사의 변천사 처음으로 규명

동아시아 염불결사의 연구

김성순 지음 | 비움과 소통 펴냄 | 1만5천원



이 책은 동아시아 한 · 중 · 일 삼국의 불교결사의 보편성과 차이, 그리고 그 실천의 변천사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최초의 저술이다. 불교결사운동이 동아시아불교사에서 갖는 의미나 지분에 비해 그 동안의 연구결과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더군다나 동아시아라는 통합적 시각에서 조망하는 연구는 없었다.

이 책에서 제시한 동아시아 불교결사의 현상을 관찰해보면 결사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실천들은 설령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의미가 퇴색되거나 상실할 지라도, 기본적으로 대승불교의 교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동아시아 불교결사의 주요 실천으로서 아미타내영신앙, 참회의식, 경전신앙, 지계, 선정쌍수적 수행론 그리고 실천 배경이 되는 정토신앙의 교의로서 말법사상, 염불, 천태교단의 제종융합적 성격 등을 제시한다. 이들 교의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며, 각자 서로의 근거가 맞물리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동아시아 불교사에서 지도자들의 역량과 구성원들의 열정, 그리고 조직의 운영방식이 잘 어우러지는 결사의 경우에는 독립된 교단으로 성장하기도 한다. 특히 모체가 되는 교단을 부흥시키는 토대가 되기도 했다. 아울러 기존 불교가 그 본질을 잃고 부패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승려들이 결사 형식으로 새 수행기풍을 진작시키는 전위부대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불교결사운동이 갖는 그 역동성과 진취성으로 인해 새 수행론을 실천에 접목시키는 온상으로서의 역할을 해냈다는 것이다. 이런 불교결사운동은 정토왕생을 궁극의 구원으로 지향하는 아미타정토신앙결사, 즉 염불결사가 단연 수적으로 우세했으며, 그 중에서도 천태교단과 관련된 결사들의 활동이 규모면에서도 크고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정토신앙을 배경으로 하는 대부분의 신앙결사들은 결사운동이 곧 다수의 신도들을 상대로 한 포교운동이기 때문에 모두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염불을 주요수행론으로 채택하는 보편성을 보여준다. 저자의 연구가 천태교단의 염불결사운동에 집중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나아가 저자가 원광대대학원 석사 시절부터 천착해 온 주제인 수행론을 결사연구라는 주제에 접목시켜서 불교결사의 배경이나 조직 분석, 교의보다는 결사 구성원들의 실천에 집중했다.

동아시아 불교결사는 일반적으로 종교적 지향을 공유하는 이들끼리 연대성의 기반 위에 동일한 신앙과 실천 약속을 맺고, 주기적으로 집회와 수행을 함께하는 신앙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정토왕생을 목표로 하는 아미타신앙을 실천했던 염불결사를 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동아시아 염불결사의 수행론은 화석화된 전통으로 계승돼 온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다른 교의와 융합되는 과정을 통해 새 형식과 내용들을 채워가는 유기적 생명력을 보여준다.

동아시아 염불결사는 교단의 부흥, 기존 교단의 위기에 맞서는 개혁의 의지, 새 신앙이나 수행론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주로 결성돼 왔다. 따라서 염불결사의 집회에서는 교단 내의 정통 수행론을 고수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원 내의 법회보다는 상대적으로 새 수행론이 쉽게 수용될 수 있었다. 실제로 동아시아 불교사에서 수행론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했던 승려들 대부분이 결사활동을 지도했음을 볼 수 있다.

모든 결사 대승불교 교의 바탕
성공적 결사는 독립 교단으로 성장

이 책을 구성하는 다섯 결사는 모두 한국과 중국, 일본의 아미타신앙결사를 대표할 수 있는 염불결사들이며, 각자 아미타정토왕생이라는 구원관에 근거하면서 자신들만의 특색 있는 수행론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아미타신앙결사의 공통적인 수행론이라 할 수 있는 염불을 기반으로 하여, 견불(여산 백련사), 영강(이십오삼매회), 참법과 수계회(사명지례와 자운준식의 천태결사), 지계와 염불(모자원의 백련채), 경전 독송과 배포(원묘요세의 백련사) 등으로 각 결사마다 주요 수행론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본서에서는 정토왕생이라는 동일한 지향을 가진 염불결사들의 수행론이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원인과 그 배경에 대해 고찰했다. 먼저 서술의 대상이 된 각 결사들을 시대 순으로 배열하고, 지도자 승려가 결사의 주요 수행론을 채택하고 구성원들의 수행 역량에 맞추어 정비해나갔던 과정과 배경을 추적했다.

또한 전 시대의 결사에서 실천되었던 수행론과 후대의 재정비된 것 사이에 나타나는 변화들을 비교해 보는 작업을 통해서 동아시아 염불결사의 수행론의 전개 양상과 그 수행론 안에 내재된 재해석의 요소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김주일 기자

인과 법칙 실천법 현대적 해석 강설

깨달음의 실천

성엄선사 지음 | 오용석 옮김
해조음 펴냄 | 1만5천원



이 책에서 저자는 〈금강경〉 사상을 '마음의 생태학' '자아의 승화' '사회의 정화' '복혜자재'의 네 가지 핵심 주제로 파악해 해설했다. 즉,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쓰고 가꾸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사회를 정화할 것이며, 어떻게 인과의 법칙을 복덕과 반야로 승화시켜 대승의 서원을 실천할 것인가를 현대적 안목과 해석으로 강설한 내용이다.

저자인 성엄 선사는 우리가 '소아(小我)' 적 자아를 극복하고, '대아(大我)' 적 자아를 극복하여 '무아'를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 이름'으로서의 자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지혜란 '번뇌'를 끊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번뇌를 만들지 않는 것, 즉 '번뇌가 생기더라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수행과 깨달음은 '이기적 자아'를 '자비의 작용'으로 변화시키는데 있는 것이지, 그저 '이기적 자아'를 극복하는 데만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무아의 실천은 '무아'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이런 점이 〈금강경〉을 통해 나타난 대승의 '자아관'임을 역설한다. 저자인 성엄 선사는 〈금강경〉서 말하는 이타행의 궁극을 '복과 지혜'를 통해 설명한다. 복과 지혜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으로 이 둘은 반드시 병행돼야만 하는 것이다. 만약 복만을 닦을 줄 알았지 지혜가 결핍되어서는 안 되며, 복의 닦음이 지혜로 나아가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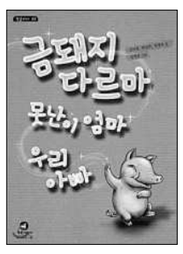
성엄 선사는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우리가 환경에 대해 집착하지 말아야 함을 말하지만, 동시에 노력해서 개선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때에 생겨난 마음은 지혜와 자비의 마음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모든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로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그의 해석은 〈금강경〉 핵심 경구인 '응무소주이생기심'을 가장 현실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김주일 기자

엄마, 아빠 소재의 불교동화 세 편

금돼지 다르마 못난이 엄마 우리 아빠

강미정 · 박섬주 · 정경숙 지음
참글 어린이 펴냄 | 9500원



이 책은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 우선 〈금돼지 다르마〉는 불국사 극락전 앞마당에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금돼지와 그런 금돼지에게 기도하러 온 귀여운 보리의 이야기이다. 엄마의 일 때문에 시골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보리는 체험학습으로 불국사 극락전에 왔다가 금돼지 다르마를 보고 소원을 빌고 천일 기도도 올린다. 엄마가 보리를 이제 서울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계속 할머니와 살게 해달라고 말이다. 보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은 다르마는 연잎의 지혜를 발휘해 보리 엄마의 마음을 바꾸고 정말로 보리의 소원을 들어 준다. 〈못난이 엄마〉는 엄마와 둘이 살고 있는 녹두 이야기이다. 2년 전 교통사고로 아빠를 잃은 녹두에게는 새로운 걱정이 생겼다. 돌아가신 아빠가 남긴 담배를 한 번 피워 보던 엄마가 이제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게 돼 버린 것이다. 녹두는 엄마도 아빠처럼 돌아가시면 어쩌나 걱정이 많은데 엄마는 그런 녹두 마음을 모르는 것 같다. 녹두는 엄마의 생일을 맞아 엄마에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선물과 편지를 준비한다. 엄마의 생일이자 아빠의 제삿날, 아빠의 위패를 모신 절에 다녀오면서 엄마는 이제 건강한 녹두 엄마로 다시 돌아오기로 약속한다. 〈우리 아빠〉는 시골서 농사 짓는 경두네 이야기이다. 어느 날 경두와 아빠는 산에서 아기 고라니 한 마리를 잡아 집에 데려오게 됐다. 경두가 아기 고라니를 열심히 보살펴 주는데, 어느 날 경두 아빠에게 돈을 빌려 준 빚쟁이와 그 아들이 나타나 경두의 아기 고라니를 갖고 싶어 한다. 경두 아빠는 빚쟁이에게 고라니를 보내지만 얼마 되지 않아, 고라니는 비실비실 아픈 몸으로 다시 돌아온다. 경두는 다시 돌아온 고라니에게 '우리'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돌보지만 결국 고라니는 하늘나라로 떠나 버린다.

이 책은 불교신문 신춘 문예 동화 부문에서 당선된 작품들을 모은 책이다. 강미정의 〈금돼지 다르마〉는 2012년에, 박섬주의 〈못난이 엄마〉는 2010년에, 정경숙의 〈우리 아빠〉는 2011년에 각각 당선됐다.

김주일 기자

"(주)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항공)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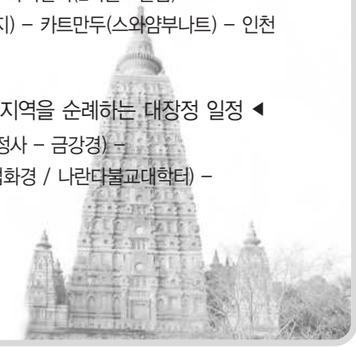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뭄바이 – 엘로라 / 아잔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가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인천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2.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팁 포함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5.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7.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8.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10.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 8대 佛教聖地 지역 안내 ▶

❶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❷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첫 설법을 하신 곳, 佛 · 法 · 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❸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 / 능엄경 / 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❹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❺ **바이샬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밀(猿王奉蜜)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❻ **쿠시나가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❼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룡못이 있는 곳.

❽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INDIA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마루 티에스 Maru Tour Service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 김영곤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 maru@maruts.co.kr

“사욕에 가려지지 않는 마음이 곧 ‘天理’”

불교로 읽는 古典

왕양명의 ‘전습록’ ㊤



송재운
동국대 명예교수

〈전습록〉은 ‘양명학’의 교전(教典)이다. 양명학은 “우주가 바로 내 마음, 내 마음이 곧 우주”라고 하여 유가에서 유심론을 제창한 송대(宋代)의 상산학(陸象山의 학, 象山은 호. 이름은 陸九淵 1139-1192)을 이어서, 명대(明代)에 유가 심학(心學)을 완성시킨 왕양명(王陽明, 陽明은 호. ‘양명학’은 그의 호를 따서 붙여진 학명. 이름은 守仁 1472-1528)의 철학사상을 일컫는 말이다. 물론 넓은 의미로는 양명 후학들의 사상까지를 포괄하지만, ‘양명학’하면 대체로 왕양명 자신의 철학사상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왕양명의 철학사상을 오롯이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전습록인 것이다.

전습록과 양명학

송명(宋明) 유학은 정주(程朱)의 성리학과 육왕(陸王)의 심학(心學)으로 대별되는데 오늘 날 학계에서는 정주학과 육왕학을 합쳐 ‘신유학(新儒學 Neo-confucianism)’이라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전습록(傳習錄)〉은 주자학의〈근사록(近思錄)〉과 함께 신유학의 빼놓을 수 없는 고전(古典)이다.

〈전습록〉은 왕양명의 어록, 제자 및 당대의 학자들과 학문을 논한 편지글 들을 모아 집대성한 책이다. 모두 상 중 하 3권으로 상권은 1518년(양명 47세)에 문인 설간(薛侃)이 서애(徐愛) 육징(陸澄)과 설간 자신이 기록한 선생(왕양명)의 어록을 모아 판각한 것이고, 중권은 역시 문인 남대길(南大吉)이 1524(양명 53세)년에 초간 전습록을 상책으로 하고, 왕양명이 학문을 논한 편지 글 8편을 모아 하책으로 하여 절강 소흥(紹興)에서 각간한 것이다.

그리고 1556년 문인 전덕홍(錢德洪)이 하권을 포함 상 중 하 3편을 한데 묶어 펴내니, 이것은 왕양명 사후 26년의 일로서 〈전습록〉의 총 완성본이 된다.

상권(132조)은 왕양명 40세 전후의 어록이 많고, 중권의 학문을 논한 편지 글들(8편)과 하권의 어록(142조)은 50세 이후 만년에 설한 내용들이 중심이다. 왕양명은 57세에 객향(客鄕)에서 공무수행중 병으로 사망하니 50세 이후는 그에게 있어 만년에 해당 한다. 전습록은 왕양명이 평생토록 설한 철학사상을 빠짐없이 담고 있으며, 그 후학들 사상 형성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양명학 연구의 기본서 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왕양명의 사상이 불교의 선학(禪學)과 같다하여 조선시대에 크게 배척을 당했다. 그 결과 이 책은 활발한 유통이 불가 했으며 언해 또한 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조선 시대 양명학 연구자는 하곡 정제두 등 몇 사람에 불과 하다. 따라서 전습록이 한글로 번역되어 간행된 것도 아주 최근의 일이다. 주자학의 융성과는 달리 양명학은 불모지에 있었다. 〈전습록〉이란 책이름 자체가 아직도 우리들에게 낯 설은 것은 모두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 책의 제목 〈전습록(傳習錄)〉은 논어 학이(學而)편 증자(曾子)의 말에서 따왔다고 한다. 증자는 말하길 하루에 세 가지를 살피는 데 그 중 한 가지가 “전해 받은 것을 충분히 익히지 않았는지(傳不習乎)?”하는 것이다. 이 전불습(傳不習)에서 ‘불(不)자’를 빼고 “전하고 익힌다”는 전습(傳習)을 따 거기다 ‘錄(기록)’을 붙여 책 제목으로 만든 것이다. 제목에 ‘학문연구’의 의미가 깊다.

心卽理-마음이 곧 天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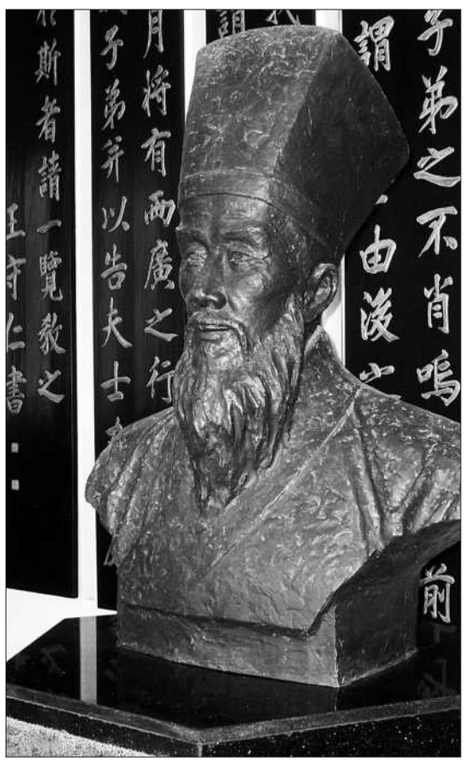
〈전습록〉에 담긴 왕양명 철학사상의 골간은 심즉리(心卽理), 지행합일(知行合一), 치양지(致良知) 그리고 만물일체관(萬物一體觀) 이다. 이 4가지 관점과 이론 들은 종래의 주자학(朱子學)과는 상반되는 개념들이다. 심즉리설은 주자학의 성즉리(性卽理)설을, 지행합일은 주자학의 선지후행(先知後行)론을, 그리고 치양지는 주자학(朱子, 朱熹의 존칭. 1130-1200)의 치지(致知)설을 철저하게 비판 하는 가운데서 세워지는 이론들로, 주자학에서의 중심인 이(理-太極)는 마음(心)으로 그 자리가 대치된다. 만물일체관 역시 불교처럼 우주의 삼라만상이 모두 일심(一心)의 소현(所現)이라고 하는데서 얻어지는 결론이다. 그러므로 ‘심즉리’는 양명학의 핵심이다. ‘심즉리’란 용어를 유가에서 먼저 쓴 학자는 전술한 육상산이다.

상산은 “사(四)단은 곧 마음 이고, 천지가 나에게 준 바도 곧 마음 이다. 사람은 모두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理) 역시 갖추고 있으니 ‘마음이 곧 이(心卽理)’이다”라고 하였다(상산전집 與李宰二書).

그러나 왕양명의 ‘심즉리’는 용어와 내용은 상산과 다르지 않더라도, 상산학을 연구하여 이어서 그것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일찍부터 주자의 격물치지(格物致知-大學)를 화두로 삼고 있다가 귀양살이 간 귀주 용장(龍場)에서 어느 봄 날밤 명상 끝에 홀연히 “일체 성인의 도가 나의 성(吾性)가운데 자족하니 사물에서 이를 구함은 잘못이다”라고 깨우친데서 비롯 된다. 주자에서 격물은 나 밖의 사물에서 이를 찾는 것이다.

주자의 ‘성즉리(性卽理)’는 사사물물에 각각의 이가 내재 한다는 이론인데, 격물은 바로 그 사물의 이를 찾는 궁리(窮理)다. 왕양명이 ‘일체 성인의 도가 내 마음에 자족한다’고 깨우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나의 마음이 이(心卽理)’라는 뜻이다. 이가 내 마음인데 이를 내안에서 찾아야지 왜 밖의 사물에서 찾는다는 말인가. 그래서 뒷날 왕양명은 제자인 서애에게 “마음이 곧 이다(心卽理也). 사욕의 가림 없는 이 마음이 곧 천리(天理)다”라고 가르친다. 이래서 왕양명에 있어 격물(格物)은 궁리가 아니라, 인욕의 제거(去人欲)로 해석 된다.

주자학과 양명학의 분기점은 바로 이 격물설의 다름에 있고, 양명학이 선학과 같다(似禪)는 평을 듣는 것도 우선은 ‘심즉리’설에 기인한다. 그리고 주자학에서의 ‘성즉리’는 성리학, 왕양명에서의 ‘심즉리’는 심학이라는 각각의 명칭을 갖는 소이연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주자학이나 양명학에서 다 같이 핵심개념을 이루고 있는 이(理)는 어디서부터 유래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천착할 필요가 있다. 그 까닭은 정주, 육왕으로 대표되는 신유학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다.



왕양명(1472~1528)의 고향 저장성 여요에 있는 왕양명의 흉상. 그는 형식화된 주자학을 비판하고 새로이 양명학을 창시했다.

유교 대표 학설 양명학의 교전
불교 禪과 비슷해 조선 배척
화엄 · 성리 · 양명학, ‘理 사상’ 다뤄
‘心卽理’, 화엄 이사법계관에 뿌리

화엄학과 신유학

당대에 성립된 화엄학(화엄종 철학)은 일심(一心)을 주제로 하여 이사법계관(理事法界觀)을 세우고, 송대의 성리학은 태극(성)을 중심으로 하여 이기론을 확립하며, 명대의 양명학은 역시 마음(心)을 주체로 양지학(良知學)을 완성한다. 화엄, 성리, 양지학이 이처럼 각각 명칭이 다르고 종지가 판이 하지만, 이 세 학(學) 가운데 공통적으로 흐르는 맥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이(理)의 사상’이다. 화엄에서는 이가 마음(心)과 동일하여 사(事)를 이루는(衣理成事-淸凉澄觀) 형이상의 존재로서 사(現象世界)의 체(體)가 되고, 성리학에서는 이가 곧 태극으로 역시 형이상의 도로서 기(氣) 속에 내재해, 만물의 본성이 된다. 그리고 양명학에서 이는 화엄과 마찬가지로 마음과 동일하여 만물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를 마음 안의 존재로 규정한다.

화엄에서 이는 마음이고 사의 체다. 성리에서 이는 태극으로서 성이며, 양명에서 이는 마음이고 역시 만사를 이루는 근본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는 심(心) 또는 성(性)으로서 이 세 학문에서 공통적으로 형이상의 존재가 된다. 존재론적으로 본다면 ‘이와 심’은 화엄과 양명에서 존재 그 자체 즉 실재(reality)로서 ‘심즉리’이다. 성리에서는 ‘이와 성’이 실재로서 ‘바로’성즉리’다.

이상 불학(佛學)과 신유학에서의 이의 성격과 그 의(義)를 살펴보았다. 세 가지 학문이 모두 이를 빼놓고는 성립이 불가능 할 만큼 이는 중요한 개념이다. 그렇다면 중국사상사에서 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철학의 중심이 되었는가? 불학에서 인가, 유학에서 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불교 화엄학의 성립부터라 할 수 있다.

원래 이(理)자는 옥(玉)자와 리(里)자로 결합된 형성자(形聲字)이다. 玉은 글자의 형방으로 뜻을 표하고 里는 성방으로 음을 나타낸다. 이의 주요 의미는 옥을 기초로하여 형성되고 있다. 옥으로 다듬어지기 전의 옥석은 자연적인 문리(紋理)를 가지고 있다. 紋은 무늬이고, 理는 결을 뜻한다. 공장(工匠)이 옥을 만들려면, 그는 무늬와 결을 따라서 절차탁마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이 理는 중국 고대에서 옥석의 紋理를 지칭함과 동시에 또 문리에 순응하여 옥을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紋理 와 治玉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리는 물리(物理), 치옥은 사리(事理)라는 의미로 발전하며, 사회 문화적 확대에 따라 점차 다의적 개념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역전(易傳)에서는 천하지리, 성명지리(性命之理), 의리, 물지리(物之理)로, 도가에서는 물리(物理), 생리(生理), 인리(人理)로, 맹자에서는 의리(義理), 순자에서는 예리(禮理) 등으로 그 의미가 고양되고 있다 애초 옥의 무늬를 뜻했던 이가 역사가 흐르면서 매우 추상성을 함의한 어휘로 발전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유가나 도가 쪽 어디에서도 이가 마음이나 성과 결합하여 ‘존재의 이’로 전화하지는 못했다. 이가 ‘철학적 실재’의 개념으로 되기까지는 당(唐)대의 화엄학을 기다려야 했다.

두순 · 지엄 · 법장 · 징관 · 종밀 등 당대 화엄종사들은 화엄경을 탐구, 그것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관점은 같지 않았지만 불교라는 종교이면의 비밀 경험들을 체득하고, 그런 연후에 그것들을 철학지혜, 즉 이성의 문자(rationnal language)로서 경속에 담긴 불교 진리들을 철리(哲理)로 다시 정립하는데 성공하였다. 우리가 화엄학을 ‘화엄철학’이라고 부르는 소이도 이런데 있다.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이론들이 이사법계(理事法界)론 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법계론 이전에 먼저 화엄경문에서 심이 갖는 의(義)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사법계는 오직 일심(一心)의 연변(演變)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그림 그리는 화가가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림을 그린다.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心如工畵師) 모든 세간을 그려내는데, 오온이 다 마음 따라 생기어 법을 만들지 않음이 없다. 심과 불이 이와 같고, 불과 중생이 또한 그러하다. 마땅히 심과 불이 이러한 줄 알면 체와 성이 모두 무진함을 알 수 있다. 심행(心行)이 세간(世間)을 두루 짓는 줄 아는 이 있다면, 이 사람 佛을 보아 참다운 성을 알게 된다. 만일 누가 삼세(三世)의 일체불(一切佛)을 요지(了知)코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임을 보아야 할 것이다”(80화엄 야마천궁품).

화엄경문의 그 유명한 ‘일체유심조’법문이다. 그림 그리는 화가가 그 그림이 자기 마음의 소산인 줄을 모르고 있듯이, 우리 중생들도 나의 일체 심행이 세간을 두루 짓고 있는데 그것이 마음인 줄을 모른다. 일체가 ‘유심조’임을 아직 깨우치지 못해서다.

이와 같은 일체유심조의 일심(一心)은 화엄종사들에 의해 사법계로 설해진다. 즉 심은 만유를 융통하여 사종법계를 이룬다. 청량징관은 “법계의 상(相)은 요약하면 오직 셋이나, 그러나 모두 사종을 갖추고 있음으로 1은 사법계(事法界)요, 2는 이법계(理法界)요, 3은 이사무애법계(理事無碍法界)요, 4는 사사무애법계(事事無碍法界)다”라고 한다(화엄법계현경). 그리고 이와 같은 징관의 사법계(四法界)를 규봉종밀은 더욱 상세 하면서도 간요하게 해석을 내리고 있다.

1. 사법계니 界는 分의 義인 바, 일일차별의 分齊가 있기 때문이다.

2. 이법계니 여기서 界는 性의 義인 바, 事法이 무진하나 同一性인 까닭이다.

3. 이사무애법계니 性과 分의 義인 바, 성분은 무애한 까닭이다.

4. 사사무애법계니 일체 分齊의 事法이 一一如性으로 융통하여 중중으로 끝이 없는 까닭이다(주 화엄법계관문).

일반인이 평소에 화엄 사(四)법계관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위 종밀선사의 주석을 보면 아주 쉽게 알 수가 있다. 같은 계(界)자라도 사와 이에서 뜻이 정반대다. 사법계에서는 나뉨(分)인 바. 이것은 사법계가 우리들 안전에 현전(現前)하는 사사물물로 각기 차별상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다. 다음 이법계에서 계(界)는 성(性)인바, 일일차별의 사사물물이 중중무진이라도 그 안의 성(性)은 동일하다는 뜻이다. 주자학의 ‘성즉리’는 바로 이 이법계(理法界)의 ‘이성(理性)’과 같다. 주자에서 ‘태극은 이’이고, 만물은 각기 태극을 그 안에 가지고 있으니(萬物各具一太極) 곧 사사물물에 동일성의 理(태극)가 똑 같이 들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태극인 이 이를 사람에 있어서는 성(性)이라 하고 사물에 있어서는 이(理)라고 부르는 차이 뿐이다.

왕양명에 있어서도 화엄의 4종법계 모두가 일심의 소현이고 특히 만물에서 체성(體性)을 갖는 이법계가 바로 심인 바, ‘마음이 이(心卽理)’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도출되는 이론이다. 이렇게 보면 주자학의 ‘성즉리(性卽理)’나 양명학의 ‘심즉리(心卽理)’는 모두 화엄의 이사법계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할 것이다.

옥의 무늬(紋理)로 시작한 ‘리(理)’가 드디어 당대의 화엄학에 이르러 마음과 결합, 철학적인 형이상의 ‘실재’로 개념이 크게 승화되고 있다. 불학이 유학보다 마음(心)의 형이상적 바탕이 그 만큼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계속〉

佛紀 2558年 甲午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24교구
성 불 사
주 지 월은 종명
명예회장 진여심
신도회장 정각행
거사회장 성문수
■ 전북 군산시 경암동 서래내길 34
☎ 063)445-3266
http://seungbulsa.com/

제 3기
영남범음범패 학인모집
▣ 개 강 일 : 2014년 3월 4일 화요일 오후2시
▣ 기본과정 :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예불 사물다루는 법
▣ 중급과정 : 시다림,49재의식, 천도재의식, 점안의식
▣ 고급과정 : 오공양무,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교육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6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음
▣ 강 주 : 상일 스님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향운 교육부장 상일 합장
◈ 장소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 2리 376~3 (고왕사)
◈ 전화 (총무원) : 052) 262-6857 010-9707-8850

호법봉사단원 모집
삼보에 귀의하옵고
본 대일불교조계종 종단 산하 선원에서 호법봉사단을 창립하여 그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제방에 계시는 종단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불법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과 ‘사회정화, 복지구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 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며 언제나 법향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대일불교조계종
호 법 봉 사 단
선원장 구룡 합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 스님께 알려드립니다 *
스리랑카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사리구)를 중창불사에 뜻을 두신 스님들께 보시하고자 하오니 인연맺을 스님들을 기다립니다.
대일불교조계종 호법봉사단장 구룡 합장
[010-5367-1340]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일불교”를 검색해 보세요.

정체 평형 일침요법
전문과정 수강생 모집
일침법은 단혈요법으로 한 가지 병에 침 하나로 치유되며, 혈명의 통속화로 요통혈(허리), 슬통혈(관절염), 두통혈(머리), 위통혈(위장), 익히기 쉽고 바로 쓸 수 있으며 전통혈의 90%를 감축시키면서도 다양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일병, 일혈, 일침에 의한 쾌속한 효과와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임상결과 유효율이 99%이고 현효율이 96.25% 치유율이 86% 그 가운데 일침치유율이 15%임.
(38개의 혈로 248개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음)
■ 모집인원 : 약간명 수시모집
[공인] - 중국노동사회보장부 발행 평형 침구보건사 자격취득 가능 (중급, 고급)
- NGO. 밝은사회 국제봉사단 회원가입 가능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민간 단체임)
원인 모르는 질병 상담환영
약 사 여 래 도 량
보 금 정 사 주지 혜문 합장
경북 고령군 운수면 화암 2리 1195번지
054)954-7744 / 010-3535-9797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비구여, 마음이 몸을 떠나면 몸은 썩은
통나무처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어 땅바닥에 버려질 것이다.
(법구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대웅전 불사 원만 성취 발원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백발백중 귀장술

초보자 환영
쉽게보는 원판제공
다음. 네이버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외울 필요 없음
010-8558-2345



최면

전생 • 미래
빙의 • 퇴마
- 심리치료, 습관교정, 성격개조 (개인지도 및 직접 상담)
- 최면요법 전과정 7회 완성
1회 무료강의 후 상담접수
- 역학(정통명리) 개인지도
(부산 현불사 최면센터)
010-9342-9794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관 상 (손 금)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얼굴 손금만 봐도 어떤 질병이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암,질병,산소,조상,재판,가족,교통사고)
전국 어디든지 출장 가능함
개인지도 나이관계 없음
서울 영등포사무실
대구사무실,마산,창원사무실
스님 특별 개인지도
010-4014-8822

획기적인 생약개발

관절염 비염 각종통증
옻 안타는 사람
(옻나무+장수버섯)
옻 타는 사람 (함초.우슬 환)
35~40일분 8만원
황보건강 amesil.kr
010-5556-1526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빙의 기치유 한방쑥뜸

대구 심향사(약사도량 : 법화경)
전통사경,사불,현대사경,작품사경
(법화경 금강경 탑다라니
범어 외.. 등 경전)
다음카페 : 심향사 사경원
010-3677-3845 보성 합장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서울 금호동 관음사)
010-6260-3310

행자 인연 찾습니다

(남녀불문, 서울지역)
010-4586-4525

월세 구합니다 산속에 있는 암자나 토굴 구함

(경상남북도 소백산지역)
051)632-5539

미니굴삭기 공사전문

(충청남북도 전지역)
010-3177-3627

인로왕보살은 스님들입니다 춤으로 인도 하십시오

승무 · 관음춤 · 지전춤 · 살풀이 · 오행춤
반야용선춤 · 길배춤 외 기타 의식춤
스님 직강
010-8510-0108 보성 합장

방생포교에 뜻 있는 스님, 법사님 구합니다

(방생도량 양도함)
010-3840-8277 老僧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종로)
010-5219-7021
010-3621-5539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신토불이 천연 약초로 약을 짓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특수한 기도법

●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불안,각종공포증,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1-772-4606 제행 합장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 출구

인연있는 분께 미륵불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010-4630-800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길음동)
010-3774-4099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가족세우기 지도자과정 모집

대 상 : 가족세우기, 조직세우기, 지도자 원하신 분
자신의 가족관계 치유를 원하신 분 (조상,부모, 부부, 자녀)
성공, 번영, 풍요, 건강 관계치유를 원하신 분
명 상 : 깨어남코스와 인도명상 여행안내
네이버 카페 - 원네스 행복한 가족세우기 참조하세요
신청 및 문의 :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영가 찾는법 강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야양교역 2번출구)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화요일 저녁반, 목 · 금요일 오전반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노후를 절에서 사실 분

1인 1실. 신축건물 청정지역
5천만원 시주하시면 평생 생활비 없이 지낼 수 있음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다음카페 "연꽃마을 복지관" 검색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914번지
054) 383-8553 / 010-8585-4908
〈혜봉스님 직통〉

학 인 모 집

치문반,사집반 매주 화,목 오후2시
서예, 선화 특강 매주 일요일 오후2시
대 상 : 종단관계없음, 누구나
개 강 : 2월 11일(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로 42 520호(토월복합상가)
055)262-2045. 010-3749-4553
유점사 불교전문강원 강주 세운 합장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용담사
- 주 지 : 나현(곽정선)
- 주 소 :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861-1

위 사찰과 위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5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스님 신발 및 불자용 신발

스님, 불자여러분 신발 고르기 힘드셨죠?
스님들에게 보시하는 마음으로 좋은 품질과
편안한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시중의 거품은 빼고, 우수한 품질로
직접 생산해서 판매합니다.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공장이라 믿을 수 있습니다
15년 신발 산업의 노하우와
경험으로 발이 편안합니다.
법복과 더욱 어울려 품격 있는
아름다움을 연출 할 것입니다.



※ 제품의 사이즈 교환,
A/S까지 가능합니다.





판매가격 : ₩ 35,000원
(※ 5만원이상 주문시
택배비 무료)

♣ 입금계좌 : 부산은행 061-01-040795-8 (예금주 : 박선영)
♣ 판매문의 : 경도상사 051) 338-5408 / 018-556-8911

新 영성(정신성) 향상법 수련회원 모집 (제3기)

- 회원대상 영성(정신성)의 수준을 높여 生死一如와 무주처 열반의 경지에 살면서 더욱 높은 과학적 포교에 힘쓰려는 스님, 재가자 특히 재발을 두려워하는 암환자 분들 환영
- 수련기간 2014년 3월 6일 (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 하루 3시간씩
(오후 2~5시) 2개월.
회비 30만원. 수료증 수여.
인원제한 있음.
- 수련학습 내 용
영성의 중심기둥 세우기 수련
브라이언 박사의 스트레스 힐링(듣기명상)수련
프랭크 킨슬러 박사의 순수자각과 유필링(행복감) 수련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과 초월적 성장론
윤회전생과 카르마 (자기동일성)의 영속성
영적 존재 화이트 이글과 실버버치의 영적 가르침
운명을 개척하는 유전자 활성화법
뇌에서 스트레스를 지우는 종합기법
아리타 히데호 교수의 세로토닌 신경 활성화 걷기법 등
감동뇌, 공감뇌를 활성화하는
매일매일의 생활법 등

「레이키(氣치료법)」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레이키교육 단체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02)720-5682. 010-8392-2557
www.reiki.co.kr

2014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6기 수강생 모집 안내문

그동안 제1기에서 제5기까지 전국에서
7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
2. 사찰에서 스님을 도와 신도 관리를 하는 총무보살

◆ 교육기간 : 2014년 3월 초부터 6개월간
◆ 수 강 료 : 6개월 교육 전기간 무료
◆ 개강일자 : 2014년 3월 4일(화요일) 오후 1시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후로 자세한 안내문 보내드립니다)
◆ 책 자 : 책자는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이며,
책자대금은 별도입니다.
본회의 사주명리학 강의는 초보자라도
6개월간 교육을 마치면 누구나 적중률에서
일인자가 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의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배우시고 나면 큰 보람을 느끼십니다.

성 지 관 음 회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
전화 : 031)768-8414~6 팩스 : 031)768-841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접수일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가 격 : 1회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땅보다 무거운 것이 무엇이며 하늘보다 높은 것이 무엇인가. 바람보다 빠른것이 무엇이고 온 세상의 풀보다 많은 것이 무엇인가. 계율의 덕은 땅보다 무겁고 교만한 마음은 하늘보다 높다. 과거를 기억함은 바람보다 빠르고 떠오르는 잡념은 풀보다 많다.

- 잡아함경 -

사 찰 (급) 안 내

아름다운 사찰안내
- 위치: 창원시 진해구
- 바닷가 전망일품 입구 아파트 대단지
- 부지: 240평 주지실, 공양간
- 목조 법당: 24평, 목조 산신각 3평
- 가액: 5억 3천만원 ※홈페이지 사진열람

(급) 별장같은 토굴
- 위치 : 대전 계족산 황토길 마을
- 대지 200평 건물 60평
- 가액: 3억 6천만원

※홈페이지 사진열람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주소 http://cafe.daum.net/temple0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연산공인 중개사 사무소
직통 051-863-6622 (대표: 김의순)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만덕동, 다산타워 505호)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 영월 사찰
- 목조법당55㎡ 지장전,삼성각
- 요사채85㎡,토지1,600㎡
- 조용한사찰임
- 교통편리 동강부근임
- 양도금액3억5천만원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010-7347-1010(사찰전문)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 아파트 상가 3층 중 2층
- 약 60평
- 시설환경 A급
- 가액: 보증금 1천 월 45만원
- 시설비 2천 500만원

010-5173-3355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지하철 5분거리에 산속 암자
- 대지:300평
- 법당,요사체,산신각,기타등등.
- 가액: 12억

010-3867-474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
- 대지 800평, 대웅전 20평,
- 산신각 3평, 요사채 20평
- 주차장 100평
- 산세수려하고 기도도량
- 가액: 2억 3천만원

054)782-0659
011-9571-6559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대지 : 130평
- 법당 : 35평
- 요사 : 40평
- 가액 : 4억 8천
- 위치 : 한강이남
- 부지 : 45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20억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공인중개사 사무소(대표: 김용각)
02)723-4082 / 010-4586-4525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401호) (탑골공원길 21)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양도하실때는이박사에게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인연을 찾아드립니다.(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암자,토굴,포교원,사찰부지,매매임대전문중개사

010-7347-1010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대표:이규철)
010-3426-9393 이박사공인중개사(대표: 이현종)
주소: 강원도 원주시 모래내길 50(성일아파트 상가 108호)
■ 전국사찰.암자.토굴.포교원양도 급히 구함!!!

사찰(암자)안내
- 위치 : 충남 논산
- 천안,논산고속도로(세종)
- 서논산IC 10여분
- 대지 약 130평
- 텃밭, 용왕당
- 건물4동(법당,산신각,후원,요사)
- 가액: 1억 1천 2백만원

010-5338-4467

포교원(급)안내
- 울산 남구 신정 시장 입구
- 2층건물에 2층 평수 45평
- 법당 20평
- 공양간, 큰방, 작은방, 옷방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전세도 가능
- 시설비 상담후 결정
- 꼭 필요한 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9767-4119

포교원 안내
- 위치 : 하남시 천현동
- 건물 2층 건물에 2층
- 건평 74평
- 검단산 등산로 입구
  아파트뒷편 대로변
- 방3, 법당1, 주방1
- 보증금 4천만원, 월 130만원
- 시설비 협의

031)791-902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 중구(대전역 도보 8분)
- 3층 건물의 3층., 45평
- 법당1, 방2, 화장실2, 주방, 보일러 냉온풍기, 세탁기, 냉장고
- 햇살이 좋은 양택, 살림도 가능
- 보증금 5백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650만원

010-7450-9763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종교용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가액 : 8억 8천만원

010-3858-8335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예산군 예당저수지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8505-2032

주 택 안 내
- 경북 영양 대지 304평
- 건물 20평 1동, 22평 1동
- 한적한 마을 위치 다용도
- 도로 급수 전기 남향 개울접
- 가액 8500만원
- 주인직 주소공개

010-8899-8899
010-7621-7621

사찰 기도 터(급)안내
- 팔공산 갓바위 뒷편
- 좌청룡 우백호가 살아 있고, 계곡물이 사계절 흐르는 소쿠리터임
- 논3,000평내 60평가옥1동 화장실 2칸짜리 1동
- 집마당까지 대형차 진입
- 대지조성 완료
- 가액: 6억(상방 협의가 잘되면 5억까지도 가능)

011-9583-3107(철호스님)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대지 : 130평
- 법당 : 35평
- 요사 : 40평
- 가액 : 4억 8천

절 터 안 내
- 위치: 경북 문경소재 임야
- 낮은 구릉 3만평
- 3천여평 절터흔적 산재
- 약초재배 최적지
- 진입로 구비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345-9666

사찰(급)안내
- 위치: 대구 팔공산 지장도량
- 종교용지 227평 3층건물
  1층(50평) 후원 및 요사
  2층(30평) 법당, 3층(20평)선방
- 목조산신각 1평
- 영옥 봉안 납골당
- 원불, 석등, 영구위패단
- 가액: 7억 5천만원

053)983-0152

포교원안내
- 부산 기장 시장
- 평수 20평
- 법당, 방, 거실, 화장실
- 주차시설
- 보증금 1천, 월 35만원
- 시설비 1000만원

010-4870-8359

암 자 안 내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8505-2032

사찰 기도 터(급)안내
- 팔공산 갓바위 뒷편
- 좌청룡 우백호가 살아 있고, 계곡물이 사계절 흐르는 소쿠리터임
- 논3,000평내 60평가옥1동 화장실 2칸짜리 1동
- 집마당까지 대형차 진입
- 대지조성 완료
- 가액: 6억(상방 협의가 잘되면 5억까지도 가능)

011-9583-3107(철호스님)

사찰(급)안내
- 위치: 포항시 북구 양덕동
- 법당 28평, 단청완료
- 산신각 2평 단청완료
- 요사채 약 80평,(방6개) 심야전기
- 창고3개, 주차 50대이상
- 가액: 7억 5천(조정가능)
- 평수 대지, 개인도로 673평, 답 100평

010-6409-8114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북구
- 약 90평
- 시설완벽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010-8606-7918

사찰(급)안내
- 도심속에 산사의 맛을 풍기는 사찰
- 위치 : 부산 사하구 관내
- 대지 215평
- 가액 : 6억 5천만원
- 은행융자 3억원 (절충가능)

010-6237-5964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영도 남항시장 옆 대로변
- 총 38평 법당 사무실 주방 및 거실 욕실
- 아미타불 약사여래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 소불 108불 에어컨 2대, 인테리어 새로 단장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1500만원
  (법사, 보살님도 가능)

010-4880-1533

도심속의 암자(급)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역, 나들목, 터미널 10분이내
- 한옥 40평 (문중부지 200평)
- 5500만원
- 시설비 1500만원(상담후 조절가능)
- 몸만 오셔서 법회가능
- 상담 스님 최상

010-6651-6663

절 터 안 내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화리
- 절터포함 임야 1만 6천평(55.758㎡) 이 38필지로 분할되 있음
- 절이나 불자마을 건립 하시고져 하신분은 연락주세요
- 양도가: 임야 16,000평 × 20만 총 32억

011-296-3612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청학동
-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계곡 접 해발 700m)
- 대지 : 1815평 부지조성 완료 , 정동향
- 법당 목조 30평, 산신각 목조 7평
- 요사채 25평, 창고 1동, 해우소 1동
- 심야전기 및 전기판넬 사용
- 노인복지, 요양병원, 연수원, 선원 등 최적임
- 가액 : 13억

010-3403-3355

포교원 안 내
- 위치 : 부산 진구 전포동 (놀이터시장입구)
- 2층 건물 2층 법당, 방2개, 20평
- 보증금 6백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
- 위치 좋음, 즉시 법회 가능

051)817-1326
010-8872-1326

포교원 안 내
- 위치 : 마산 3층 건물에 3층 (160평)
- 포교원 10년 한 자리
- 삼존불,후불탱화,법당, 종무소, 방4,
- 화장실(실내 1, 실외 2), 법당과 모든 방에는 난방필름 되어 있음
- 시설완비,불사소임관계 부득이 양도
- 옥상사용 주차장완비 일체민원없고 조용함
- 보증금 : 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협의
- 바로법회가능

055)221-5182

사 찰 안 내
- 재벌을 길러낸터 포교최적지
- 부산시내 전철역세권 노선버스최다.
- 바로옆50m전방 재개발확정, APT2천세대
- 법당30평 부처님5분,천불전불사중 현재소불약300분진행중
- 1층-차고, 창고, 일주문.
- 2층-법당, 방 3개, 공양간, 화장실 2개.
- 3층-방 3개, 산신당, 빈공간 30평, 화장실 1개
- 대지 140평, 건평 107평
- 양도가 12억(웅자4억포함) 시세이하가
- 학업관계로 부득이 양도(절충가능) 부동산사절 꼭하실분만

스님직통.010-8634-7851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이자를 물고 계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33년 역사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으로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010-7314-2522

대출기간 기본5년(연기가능) / 근저당설정비 면제
제주도 포함 전국, 단체명의, 종단사찰 모두 가능 !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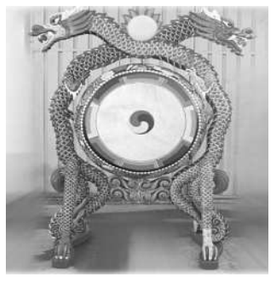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삶의 힌트

이츠키 히로유키 (일본 소설가)

〈5 · 끝〉 낫다

'죽음' 을 가슴 두근거리는 기분으로 받아들이세요

'완쾌 축하' 라는 게 있습니다. 병이 완치되어 병중의 호의에 감사하고자 여러 지인에게 감사의 선물을 보내 인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는 몸이 안 좋을 때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질색하는 편입니다. 문병하는 분의 마음은 감사하지만, 아무래도 내키지가 않습니다. 분명 '그렇게 폼 잡지 않아도 될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컨디션이 나빠서 죽을 지경인 상태를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은 여전합니다.

이건 병문안을 하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건강을 자랑하던 친구가 죄수복 같은 파자마를 입고,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다크서클이 내려와 침대에 누워있다면 역시 만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보고 있는 게 괴롭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괴로운 게 다가 아닙니다. 상대의 기분을 살피지 않을 수 없으니 더욱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최근 유행하는 플러스 사고라는 것에 통 익숙해지지가 않아서 사물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낫는다' 는 표현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완치되었다' 는 표현을 들으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낫는다' 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 '병이나 상처가 좋아져서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말의 의미는 그걸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 '낫는다' 는 말을 지극히 대수롭지 않게 쓰고 있습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약을 먹고 따뜻하게 하고 사흘 정도 가만히 누워 있었더니 완전히 나았습니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일전에 스키를 타다 삐었다면서? 이제 다 나았어?"라는 대화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감기나 발목은 나았어도, 좀처럼 원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견 나은 것처럼 보여도 정확히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게 어려운 부분도 있는 법입니다.

부러진 안경 원래대로 못고쳐

제게는 20년 동안 쭉 쓰고 있는 오래된 안경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가게에서 산 뒤로 렌즈만 바꿀 뿐, 오늘날까지 계속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반년 쯤 전에 안경테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구입한 가게를 찾아 새 안경을 찾았는데, 수십 년도 더 된 옛날 제품이라 같은 모양의 물건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별수 없이 부러진 플라스틱 테를 접착체로 붙이고, 그 위를 셀로판 테이프로 감고, 매직잉크를 발라 어찌어찌 때워서 쓰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완전히 고치는 것은 무리인지라 지금은 조심조심해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은 인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물며 사람은 물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섬세한 존재입니다. '나았다' 고 해도 결코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하물며 큰 상처를 입은 몸과 마음이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깨끗하게 나을 리는 없지 않을까요? 그것이 제가 쭉 해온 생각 중 하나입니다.

'원래대로 된다.' , '건강해진다' 라는 것과 '낫는다' 는 것은 어딘가 다른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봅시다.

예를 들어 병으로 학교를 쉬었던 학생이 건강해져서 다시 통학하게 될 때,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쉬고 있던 사이에 수업 진도가 부쩍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친하게 지내던 반 친구나 그룹 멤버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교사가 와서 수업 방식이 변경됐을지도 모릅니다. 학교도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전으로 돌아왔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상대편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사이에는 원래대로 돌아왔다고는 할 수 없는 관계가생겨나는 게 아닐까요.

'능력이 회복된다' 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제기한 마라톤 선수가 이전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전부 옛날로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모든 사물은 물 흐르듯이 시시각각 흘러가고, 결코 두 번 다시 같은 상태로 돌아오는 일은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고집스럽게 생각해왔습니다.

즉, 완전히 '낫는다' 는 건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에 받은 상처가 '낫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몸에 생긴 상처도 '낫지 않는' 게 아닐까요?

일견 겉으로는 예전처럼 돌아온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가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엎지른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일단 일어난 일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옛말에 '한번 엎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 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이야기인데, 무능하고 출세를 못하는 남편을 둔 아내가 남편에게 정나미가 떨어져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큰 출세를 하자 아내는 인연을 되돌리기를 원하며 남편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남편은 쟁반의 물을 땅에 흘리며 "이 물을 원래대로 되돌리면 당신의 말을 들어 주겠다"고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쩐지 심술궂은 남자라는 느낌도 들지만, 어쨌든 이 이야기의 교훈은 만사가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땅으로 쏟아진 물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두 번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쭉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릴 것 같으면 저 자신을 수시로 타이르며 명심해왔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역시 틀리지 않았다고 최근 새삼 생각하게 됐는데, 어느 유명한 전문의가 쓴 글 속에서도 이런 말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암이 낫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암세포가 퇴축했거나 또는 진행이 현저히 둔화됐다는, 둘 중 하나에 불과하다."



'낫는다' 는 원상태가 아닌 변화된 것
'낫지 않는' 부분 인정하고
'포기' 의 밑바닥에 도달해야
비로소 새로운 삶 꿈 꿀 수 있어

즉, 전문의의 말은 '암은 낫지 않는다' 는 뜻입니다. 이건 잔혹한 말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중에 암에 걸려 괴로워하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다면,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라고 눈살을 찌푸릴 만한 상황입니다. 하물며 당사자라면 깊게 상처입거나 충격을 받을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전문의의 말에는 거역하기 어려운 진실이 있습니다. 암이 완치됐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재발하지 않고 무사히 생존한 경우를 뜻할 때 자주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5년이라든가, 그런 기간을 견디고 재발하지 않았을 때 '나았다' 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의료계의 상식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계상의 수치는 둘째 치고, '나았다' 는 것과 '나았다고 간주하는' 것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요.

암을 노화의 한 표상으로 보는 방식에 저는 예전부터 순순히 동조했습니다. 인간은 늙어간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늙기 때문에 '노안' 같은 불쾌한 현상도 나타는 것입니다. 건망증이 심해지고, 반사 신경도 둔해집니다. 노화가 몸 곳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키도 작아집니다. 저 역시 30대 무렵에 비해 60대인 지금 1센티미터 넘게 키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권에 적혀 있는 키는 실제보다 1.5센티미터 정도 큰 셈입니다. 체중은 반대로 늘고 있어 곤란합니다.

60세를 넘긴 뒤부터는 직접 운전하는 것도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 레이싱 팀을 만들어 마카오 그랑프리에 참가했을 정도로 차를 좋아했는데, 올해는 아직 한 번도 핸들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혼잡한 도로나 교통 정체가 싫어서도, 체력이 떨어져서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시력 중에서도 특히 '동체 시력' 이 심하게 저하된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사 신경 역시 젊었을 때에 비하면 상당히 떨어진 느낌입니다. 그런데 요즘 차는 파워가 있어 누구라도 고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액셀을 가볍게 밟기만 해도 금세 시속 100킬로미터가 넘는 가속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저의 운전 능력은 떨어졌는데 차의 성능은 비약적으로 향상된 것입니다. 그 불균형이 불안해서 운전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덕분에 면허증은 금색 선이 들어간 5년 면허가 됐습니다. 운전하지 않는 한 위반도 교통사고로 일으킬 방법이 없으니까요.

노화는 자연의 이치

"70세가 넘으면 진회색 포르쉐 카레라를 몰 거야" 라고 동료나 젊은 친구들에게 공언했던 제가 바야흐로 뒷좌석에 앉게 되었으니 한심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운전에 용기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보다 더 용기가 필요한 것이 핸들을 잡지 않는 게 아닐까요.

예전에 남보다 차에 관심이 많아 운전 기술에도 잔소리가 심했던 저인 만큼, 저는 제 판단이 0.1초라도 늦는 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목표선에서 1밀리리터 벗어나 커브를 도는 것도 싫습니다. 그러나 동체 시력이나 반사 신경의 퇴화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나만큼은 노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을 정도로 저는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꾸준한 트레이닝과 정신 집중으로 어느 정도는 젊은 시절의 운전 기술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에 배는 냉정함이나 판단력, 성숙도라는 것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불쾌해도 용기를 갖고 자신의 노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포기' 도 하나의 지혜라는 걸 인간은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같은 지옥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기로 결심하고, 집념을 계속 불태웠던 사람들이 결국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쉽게 '포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 실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희망과 집념, 노력을 계속 유지한다면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는 생각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강한 의지와 한결같은 열정이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노화를 '낫게' 할 수 없습니다. 속도를 늦추거나 잠시 젊어지는 일은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엄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부인 중에 "저 사람은 귀신이야!"라고 주위 사람들이 수군대던 분이 있습니다. 그 부인은 나이에 비해 믿기지 않을 만큼 우아하고 생기발랄하게 일상을 보내는 분이었습니다. 저분은 영원히 나이가 안 들지 않을까, 라고 저 역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최근 20년간 모습이 변함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전에 한 지인에게 그 부인이 앓아 누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설마…' 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고는 깊은 한숨과 함께 '역시 그렇군'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분이 모두가 이야기하듯 '귀신' 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결코 서글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져서 안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육체는 늙어도 정신은 늙지 않는다, 오히려 성숙해지고 높아지는 것이다, 라는 의견에 저 역시 일면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노화는 단순한 퇴화의 과정만은 아닙니다. 나이와 함께 갈고닦여, 높고 깊게 성숙해지는 정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사람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높아지는 만큼 깎이는 것도 있습니다. 지성이 깊어지는 한편 시드는 정감이라는 것도 있는 법입니다. 그것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낫지 않는' 부분을 인정하고, '포기' 의 밑바닥에 닿은 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는게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낫지 않는' 부분을 지닌 존재임을 인정한 뒤에야 다른 방향으로 떠나는 여행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확실히 인간은 모두 내부에 암을 품은 존재입니다. 늦든 빠르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것을 순순히, 그리고 밝게, 가능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기분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부디 머리카락 한 올만큼 좁은 그 길을 언젠가 찾고 싶다. 그것이 지금 제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이나은 기자

이 글은 이츠키 히로유키가 쓴 〈삶의 힌트〉(지식여행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8-3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 전화 010-7415-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갤러리 색즉시공



오늘도

오늘도 산 하나 넘는다
무엇을 보았는가
나뭇가지 하나도 매일 자라고 있다

오늘도 절 하나 짓는다
무엇을 알았는가
석탑도 매일 부서지고 있다

오늘도 새벽이 있었다
얼마나 아팠는가
누군가 나 때문에 울고 있다

오늘도 후회한다
무엇을 얻었는가
새들도 매일 날고 있다

사진 · 글=박재완 기자

당신에겐 행복을 주는 음식이 있나요

Buddha in Comic & Ani

③ 허영만의 '식객'
ABE YARO의 '심야식당'



대표 한일 음식만화 허영만의 〈식객〉과 아베 야로의 〈심야식당〉

수자타는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다. "수자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에게 최초의 공양을 올릴 기회를 놓치지 말라."

토지신의 목소리는 수자타의 귓전에 쟁쟁했다. 수자타는 정성스럽게 소젖을 짜 일곱 번을 끓인 다음, 정수만 골라 새 그릇에 새 쌀과 함께 다시 끓여 죽을 만들었다.

조용한 거리에서 볼품없는 천을 두른 한 수행자가 나타났다. 수자타는 무릎을 꿇고 준비했던 우유죽을 올렸다. 수행자는 우유죽이 든 발우를 들고 강가로 가서 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맛있게 먹었다. 수자타의 우유죽으로 기운을 찾은 수행자는 바른 법을 성취할 자릴 찾아 숲으로 나아갔다.

위 장면은 싯다르타가 고행을 거듭하다 네란자라강의 우루베라라는 마을에서 만난 소녀 수자타가 주는 우유죽을 마시고 기력을 회복하고 정각을 이루는 부처님 일대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서슬 퍼런 칼날 위에 선 듯한 고행으로 피폐해진 몸으로는 선정의 기쁨도 감당할 수 없음을 안 싯다르타에게는 달콤한 죽 한 그릇이 감로수였을 것이다.

부처님의 생애를 통하지 않더라도 음식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역사를 거듭하면서 인간은 음식 재료를 좀 더 맛있게 먹기 위한 요리를 고안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세상에는 우리가 인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산해진미가 존재한다. 오죽했으면 '살기 위해 먹는 것인가, 먹기 위해 사는 것인가' 라는 명제가 존재할까.

당연히 만화에서도 식도락 욕구를 채우기 위한 다양한 소재의 작품이 있다. 음식만화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맛의 달인〉은 단행본 100권을 훌쩍 넘긴 장수 만화이고, 중흥기를 이끈 〈쇼타의 초밥(한국명 미스터 초밥왕)〉은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누렸다. 〈신의 물방울〉은 한국 사회에 와인 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중 허영만 화백의 〈식객〉과 아베 야로의 〈심야식당〉은 이전 음식 만화와는 비교해 조금은 색다른 음식만화이다.

한국의 〈식객〉은 대령숙수의 후계자로 꼽혔던 성찬이 전국 팔도 진미를 접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룬 것이고, 일본의 〈심야식당〉은 동명의 식당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인생 군상들의 라이프 스토리를 보여준다. 단순히 음식 정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한 가지 음식에도 백 가지 인생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두 작가는 원숙한 작법으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포트럭 파티(pot-luck party,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 · 두가지 종류의 요리를 가지고 와 정해진 장소에

단순 미식 정보 전달 아닌
음식과 인생사를 연결한
韓·日 음식만화의 새 장
소소한 저녁식탁에서도
행복의 진리는 담겨있어

모여 즐기는 파티)에서 만난 고시생은 자신을 뒷바라지하다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애인을 추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독백한다.

"눈만 뜨면 얼굴을 마주보고 살을 비비고 살던 사람이 죽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TV앞에 앉아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낄낄대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때 느끼는 죽은 자에 대한 죄책감도 화장터 높은 굴뚝의 연기만큼 빠르게 흩어져 버린다. 때로는 무엇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괴로울 때가 있다." 〈식객 中〉



〈심야식당(사진 왼쪽)〉과 〈식객(사진 오른쪽)〉의 한 장면. 두 작품 모두 음식과 인생사를 원숙하게 엮으며, 이야기를 풀어간다.

〈식객〉의 강점은 전국 팔도에 있는 다양한 한국의 음식문화와 요리를 심도 깊은 취재로 전달하면서도 그 안에 우리네 인생을 절절하게 녹아낸다는 데 있다. 이는 미각에 대한 추구이면서도 삶의 대한 성찰을 놓치않는 작가 정신이 투영돼 있다.

〈심야식당〉은 요리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소재일 뿐 정확하게는 우리의 이야기다. 그래서인지 〈심야식당〉의 요리는 이를 먹는 사람들과 많이 닮아 있다.

당장에라도 회칼과 총을 들고 '의리없는 전쟁'을 벌일 것 같은 야쿠자는 문어형 비엔나소시지를, 이제는 지명이 없는 늙은 게이는 달콤한 계란말이를 각각 주문하고, 초로의 유랑악사와 유명 요리 평론가는 버터라이스를 시켜 그간 회포를 푼다.

우리의 삶이 그렇듯 〈심야식당〉에는 기적과 같은 신분상승이나 해피엔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음식과 손님, 주인장이 존재하고, 이들의 이야기는 너무 슬프지도 않게, 너무 기쁘지도 않게 흘러간다.

분명, 식욕은 인간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욕망이다. 현대인의 비만과 성인병들은 대량생산, 소비시대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누군가에게는 감로수로, 누군가에게는 독으로 작용하는 것은 음식이 가진 힘이다.

추억의 음식에서도, 친구와 혹은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탁에서도 우리는 소소한 행복을 만난다.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닐 지도 모르겠다. 싯다르타를 정각에 이르게 한 죽 한 그릇도, 오늘 내가 먹는 한 그릇의 식사도 모두 그들만의 인생사를 담고 있다. 신중일 기자

마하연 투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동참 가능한 성지순례】

* 미얀마 성지순례 (양곤 바간 헤호 5일) 1,590,000
  – 김해출발 : 2월 21, 25 / 3월 1, 5, 9, 13, 17, 21
* 미얀마 성지순례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6일) ..... 요금문의
  – 인천 출발 : 2014년 2월 22일, 3월 8일
* 은둔의 나라 라오스 성지순례 5일 ..... 요금문의
  2014년 3월 21일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2014년 3월 21일

해외 성지순례 단체 문의 주세요....

【불탄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
* 양곤 바간 헤호 5일..... 요금문의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6일..... 요금문의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짜익티오 7일..... 요금문의

【중국 정통 4대 불산 성지순례】
* 지장도량 (구화산) 5일..... 요금문의
* 관음도량(보타.낙가산) 5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 요금문의
*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조주 관음원 6일..... 요금문의
*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대불,구패구 황룡 6일..... 요금문의

【품격 성지순례】
* 스리랑카 정통 성지순례(직항) 7일..... 요금문의
* 은둔의나라라오스성지순례(직항) 5일..... 요금문의
* 인도8대 성지순례 10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중국 · 태국 라오스 현지 직영 사무실 OPEN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 모든일정은 10인 이상 출발
* 별도 추가경비 없음 (가이드+기사, 각국 비자피)
* 환율변동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추가요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날짜 및 항공요금에 따라서 동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 2억원 여행자보험가입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오늘 살다가 있다 죽는대도 편안하게 거짓 없이 사세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싶어요

문) 마음공부에 대한 욕심은 많은데 체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믿음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여러분 개개인에게 불성이 있습니다. 불성을 한번 돌려서 말하면 성불이죠. 여러분이 그냥 보통 이렇게 최초부터, 생명이 생길 때부터 가지고 계신 보배이기 때문에 그 보배로 인해서 이렇게 움죽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알고 이 법이 옳은가 그른가도 생각을 해 보게 되고, 팔정도로 말을 그렇게 해 봤으니까 여덟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잘해 나갈 수 있게끔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찾는데 어디에서 찾느냐. 보이지도 않는다. 들리지도 않는다. 잡을 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믿고 가느냐 이겁니다. 근데 무조건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아 계시다면 자기한테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살아 있으니까 있다는 거. 누가 대신 살아 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 있으니까 자기의 불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 불성이라고 한다면 높이 보기도 하고 얕게 보기도 하고 이게 그렇게 되니깐 높이 보면 자기와 동등하게, 동일하게 되지를 않으니까 얕게 보지도 말고 높이 보지도 말고 항상 둘 아니게, 법당에 올라오더라도 부처님과 자기와 둘 아니게 하고, 마음도 공심으로 갖고 또는 법도 공법으로 갖고, 움죽거리는 것도 공용이다. 이렇게 해서 공식으로서 만법을 들이고 내도 걸림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컵을 이렇게 한 그릇 들면 이거 한 그릇이 우리가 보는 컵에다가 물 담긴 거죠. 그렇지만 이건 산과 물이 둘이 아닌 데서 오는 겁니다. 산과 바다가 둘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둘이 아닌 거기에서 그냥 내가 훌떡 마실 수 있어야 된다. 마실 수만 있어도 아니 된다. 그걸 마셨으면 토해 낼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이걸 마시고 토해 낼 줄 모른다면 세세생생의 모든 생명들을 이끌어 가질 못합니다, 한생각으로.

여러분은 저 부처님이 그냥 앉아 계신 줄로만 아시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은 부처님이 오는 사이도 없고 가는 사이도 없이 오고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계의 자기 주인공을 진짜로 그냥 무조건 믿어라. 당신이 살았으면 그냥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고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맡기고. 예를 들어서 아주 기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그냥 주인공대로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동자도 됐다 때로는 관세음도 됐다 때로는 지장도 됐다 때로는 지신도 되고 용신도 되고, 별의별 갖은 각색의 화현을 하십니다. 그거는 사람이 닥치는 대로 염하고 관하면은 화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 걱정 없이 찾기도 하고 살기도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걸 못 믿는단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길 못 믿는다면 누구를 이 세상에 믿을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어갈 때 말입니다,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 생각 생각을 하고 죽습니까? 죽어갈 때는 그냥 다 놓고 갑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는 다 놔야 합니다. 자기 불성에다 다 놔야 바로 둘이 아니가 되는 하나의 일체 성이 됩니다. 불성이 된단 얘기죠. 그 불 부처가 된단 얘기죠. 여러분은 자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격을 다 갖춰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간편하게 그냥 말씀드리는 거를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 몸을 생각하면은 그냥 이 세포의 하나의 생명도 그냥 같이 있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깐 공생이란 얘기죠. 그리고 공생이기 때문에 공심으로 돌아간다. 공심으로 돌아가게 하려면은 내가 공체로서 마음 쓰는 거를 한생각 잘해야 공체로 돌아가죠? 공심으로 돌아가고. 그래야 옳은 데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죠? 피도 돌아가고. 모두 공체기 때문에 공용으로 우리가 움죽거린다. 하나서부터 열까지 전부 공용이다. 그 공용이라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지 못하고 생각을 잘못하면 공용이 되지를 않죠. 생각을 잘해 낸다면 공용이 되고요. 그러니깐 말과 행과 이 모두를, 발 하나 떼 놓는 거까지도 인의롭게 부드럽게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자기를, 정신계의 자기를, 보이지도 않고 쥘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거를, 진짜로 자기가 자기를 믿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누굴 믿습니까?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여러분하고 통신이 되질 않아요. 얼른 쉽게 말해서 우리 가정에 전화통 놓는 거나 같습니다. 전화통을 놓지 않는다면 전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 근데 전화통을 놓으니깐 할 데 있으면 하고 또 올 데 있으면 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이 없이 죽어서 사는 법을 배운다. 우리가 지금 24시간 살아봤자야, 동일하게 한 가지로만 고정되게 보는 게 없고 듣는 것도 없고, 말하는 것도 없고 만나는 것도 없고,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된 게 없으니 뭣이 살았다고 할 수 있으며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이 없이 하는 것이지 함이 있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도리를 깨닫고 잘 하나하나, 이렇게 무명줄을 잡고선 꼭 나가시면서 이 도리를 하나하나 느끼고 체험하면서 나가시면 아주 진짜로 믿게 되죠. 진짜로 나를 믿어야 됩니다. 죽을 때에 다 놓고 죽는 것처럼. 죽을 때는 뭐를 두고 죽는 게 없습니다.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데 자식들을 5남매를 낳아 놓고서 죽을 때 "아유, 저 어린 것들은 어떻게 사나?" 하고 생명이 넘어갈 때 그러니까 "그 애들은 그 애들대로 타고 났으니까 또 사느니라. 너는 다 놓고 가거라. 죽을 때까지 그것을 놓지 못하고 가느냐." 하시더랍니다. 그러니 모든 게 우리가 따지고 본다면 자기가 불충분하게 과거로부터 해 놓고 일이 저질러지는 거지 보통 그냥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깐 전체 남의 탓 할 게 없다. 잘했든 못했든 내 탓이지 남의 탓이 없다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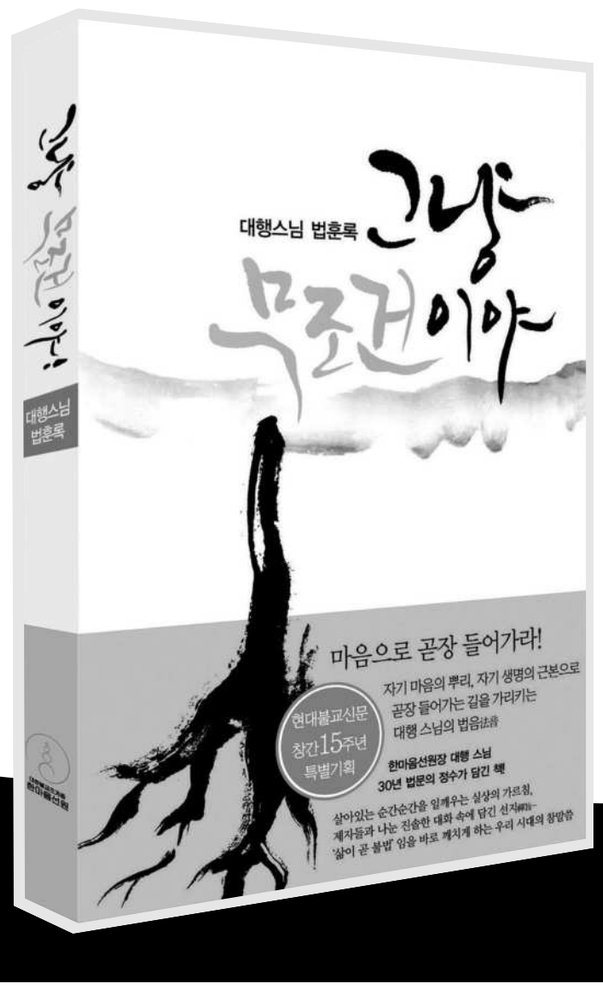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이런 말을 하고 또 하고 이러니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듣기 싫죠. 그러나 해도 해도 그게 완전히 자리를 못 잡을 때는 힘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주인공에 주장자를 착 놓고, 그게 에너지 주장자죠. 착 거기다가 놓고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한다면, 아파서 그런다면은 의사로 화할 테고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다면 지신이 돼 줄 테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런다면 허공신이 돼 줄 거고 물에 배를 타고 가다가 그러면 용신이 돼 줄 거고, 모두 칠성부처가 돼 줄 테고. 모두가 내가 당하는 대로 관하면은 그렇게 바꿔 주는 겁니다. 바꾸어서 화해 준단 얘깁니다. 그러니깐 묘법이고 그건 공법이지요.

그러니까 인젠 그냥 죽으나 사나 믿으세요.

☞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정신계의 자기 주인공을 무조건 그냥 믿어야 합니다

☞ 29면에서 계속

어차피 죽을 때 다 버리고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을 때 다 버리고 죽는데 이 마음이 버리지 못한다면 이다음에 재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고 세세생생을 간다 하더라도 그렇고, 식구들도 그렇고 모두 딴 사람들도 하나 이렇게 팔뚝 쥐고 끌어 잡아당겨 주지도 못해요. 그러니깐 무조건 믿으세요. 무조건 믿고 무조건 행동하세요, 그냥.

부딪치는 어려움이 많은데…

문) 지원에 다니면서 주인공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부가 짧아서 그런지 부딪치는 어려움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끄달리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 있을는지요.

답)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법당에 올라가면 법당에 삼 배를 올리고, 또 급하면은 일 배를 올릴 때에 둥글려서 올리고, 둥글려서 또 여기다 놓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걸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이 5년이고 10년이고 됐다고 그래도,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다녀요. 왜 법당에 들어가면 저 부처님도 내 모습과 둘이 아니요, 노래도 그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아시라고 노래도 해 놓고 그랬는데, 그걸 모르시고 왜 그러십니까?

이게 보이는 데도 여러분이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데도 더 많다면 많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비싯비싯 다니면서 어떻게 사세요? 내 주인공이라는 그 주장자 하나 가지고선 저거 하면 좋은 일 해 주고 그냥 언짢은 일은 언짢은 일대로 좋게 펴 주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도 해 주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편안해요? 원수 짓지도 않고 세세생생, 아니 끝간 데 없이 가도 '저거 내게 원수야.' 이러지도 않을 거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름해서 부처예요.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자체가 없다는, 너라는 게 영 없는 그런 자체가 부처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하나도 나를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나 아닌 나가 있으니까요. 나 아닌 나가 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체 만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일체 화현의 도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라는 자체는 그저 응용하는 대로 이 팔이 들리면 들리는 대로 들어 주고, 다리가 들리면 들리는 대로 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홈빡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그냥. 절에서 따진다면 시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따지고 보세요. 심부름꾼을 바깥으로 두었다면 다 못합니다, 시자 노릇을. 바로 자기가 보이는 걸로 자기가 시자를 두었기 때문에 그 안 보이는 자기의 심부름꾼으로 심부름을 다 하죠. 그래서 모두 안목이 있죠. "아, 이분은 정치에 나왔는데 좀 쓸만해."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누구나가 다 보면 "가벼워서 좀 안됐어. 그 값어치는 좀 못돼." 이러고 이렇게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그분들이, 여러분이 다 도인이에요. 그냥 부처에요.

우리가 먹는 것도 이게 내가 먹는다고 "아이, 맛있게 먹었어. 참 잘 먹었네." 이러지만요, 그게 내가 먹은 게 아니라 모두 자기 역량대로 달라고 그러는 게예요. 먹으려고 생각을 해 놓고 먹는 게 아니라 반찬이 쭉 있으면 이게 거기서 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부터 집어 먹게 되죠. 그거 먹게 되고 그러면 그게 여러 가지 이렇게 집어 먹게 되면 여기서 소화 기능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안에서는 좋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잘 먹었다고 그러는 거죠.

말도 자기 말이 아니라 모두 거기의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참 귀하구나. 내가 이렇게 귀한 줄은 정말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귀하게 부모의 은덕으로서 몸을 받고, 내가 이 귀한 원소 자체를, 자불이라는 원소 자체, 그것이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알았다.' 그 에너지의 한 방울에 의해서 이 우주의 에너지를 다 같이 할 수가 있는 한 덩어리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 지구에서 살면서 에너지가 이제는 우리가 너무 써서 에너지가 없어서 살 수가 없느니 뭐 어쩌느니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얼른 쉽게 말해서 나부터도 그렇다면 못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운전수로 산다면요, 보이는 차로만 살지 말고, 운전수와 이 보이는 나와 같이 다니면서, 보이는 나는 모르는 사람에게 보이게끔 돼서 이익을 주고, 또 그 안 보이는 데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려면 안 보이게끔 해야만 하는 것이 절반 이상 넘죠.

그래서 '업을 짓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나는 '업이 없다.' 이랬습니다. 업이 없다고 그런 것은 '컴퓨터에 업이 있어서 나오는 거를 거기다 그냥 놔라. 거기다 맡기고 그러면 그게 뒤집어져서 그 업이 없어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기에 달린 거니까 업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한생각을 잘하면은 업이 업이라고 할까 고통이라 할까, 그 고가 그냥 흐스러히 풀어지는 거고요, 한생각을 잘못하면은 그냥 오그라지는 거죠, 뭐. 사람이 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잘 배워서 잘 살고 이렇게 해서 세세생생을 엮어 가도 조금도 손색이 나지 않게끔 하시라 이겁니다. '왜 그렇게 주인공을 찾아도 별 볼일 없나.'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항상 내가 말을 편치 않게 해 놓으면은 내 마음은 항상 편치 않아요. 그러니까 편치 않게 해 놓고 편치 않게 살지 말고, 편안하게 해 놓고 사세요. 죽으나 사나 이건 자기 죽을까 봐, 미리 죽을까 봐 편안하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살다가 있다 죽는대도 편안하게 해라. 편안하게 말을 해라. 죽는 게 뭐 그리 아까우냐. 아, 사실이지 죽는 게 뭐가 그리 아깝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바로 이 모습 활짝 벗어 버리고선 내 갖고 싶은 대로 가질 텐데 뭐 걱정입니까? 하여튼 편안하게 거짓 없이 큰 말이든지 작은 말이든지, 야단을 맞든지 어떻게 되든지 죽게 되는지 그거를 생각지 말고 편안하게 거짓 없이 사시란 말입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모두 여러분이 편안하게 사시고 이 도리를 '아, 관하라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바로 내 원소로구나. 내 공체 원소구나. 그러니까 에너지 주장자구나. 내 자불성이구나. 내 자불성! 그러니까 꼭 나는 나를 믿어야 되겠구나. 누굴 믿느냐?' 이렇게 하세요. 이 세상에 누굴 믿을 게 있어요? 자기가 자기밖에 믿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믿는다는 건 믿는 게 아니죠. 자기 진짜 원소 말입니다. 생명력을 그대로 자불이라고 생각하고 믿으세요, 그냥. 진짜로 믿고 어떠한 통탄할 일이 생겨도 '너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맡기세요. 마음을 나쁘게 하고 그걸 나쁘게 진행하려고, 그걸 해결하려고 그런다면은 막아 나가는 것도 부처님 법입니다. 잘못될 일이라면 막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막는다 이겁니다. 근데 이걸 굳이 해야겠다 그러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도 속이지 말고 그냥 그렇게 정성스럽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또 넘어가죠. 넘어가게 되게끔 되겠죠.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그 고통이 있다, 뭐 있다고 그러고 그냥 애쓰지 마시고 그렇게 사세요.

본래 성불되어 있는데 어찌 업이…

문) 불교에서는 중생도 본래 성불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어찌 그 자리에서 업이 생겨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받으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답) 자기가 와서 자기가 살고, 자기로 자기가 가니까 간 데도 없고 온 데도 없고 그냥 영원한 것이 자깁니다. 그러니까 업이라는 그 자체도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은 그 한 백지장 사이를 모르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가 몸통 속에서, 이 육통 속에서 벗어나야 누진으로서, 누진까지 육통이라고 한다면, 육신통이라고 한다면, 오신통에서 벗어나야 그 누진으로서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통이라고 한 거는 바깥으로 나와야 그 내 모든 것을, 오신통을 굴릴 수 있다 이 소리거든요. 이 속에 들어가서 있으면은 이 속에서만 복작거리지, 이거를 굴릴 수가 있습니까? 바깥으로 나와야 이걸 마음대로 굴리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끝도 없고 또는 먼저도 없으니까, 나중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지금 생각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공해서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한다고, 한다고 그러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냥 그대로, 그대로 그냥 뿌리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그대로 뿌리에다가 맡겨 놓고, 마음으로다가 '너만이 나를 일거수일투족 끌고 다니고, 또는 빛이 나게 하는 것도 너고, 물리가 터지게 하는 것도 너고, 지혜가 생기게 하는 것도 너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도 너고, 또 굶고 살지 않게, 부자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고 살게 하는 것도 너고….' 이렇다고 모든 걸 거기다 맡겨 놓아야 합니다. 이유를 자꾸 따지면은 그 속에는 들어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를 따지지 말고 거기다가 자꾸 넣어요. 아리송하면은 그냥 아리송한 대로 그냥 '난 아리송하니깐 너만이 네가 있다는 걸 알릴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놓고 말입니다.

동굴 안에서 어떤 공포심이 들었어요

문) 제가 중국을 여행하면서 어느 동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안에 부처님이 한 이만 여 점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가뿐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뭔지 모르게 어떤 공포심 같은 게 일어났습니다. 그 내려다보시는 부처님을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들었던 생각이 '아, 정말 그냥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돌아 나와서 그 마음을 모아가지고 극진하게 삼 배를 올리고 들어갔더니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그 부처님 상들을 자세히 관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답) 그게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도 당신 생각이고, 돌아 나와서 다시 하고 들어간 생각도 당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양면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은 생각을 '아, 역대에 내려온 저 부처님들이 다 내 근본과 둘이 아니지. 그 모습도 내 모습과 둘이 아니지.' 하는 생각의 지혜를 갖는다면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없이 그냥 아마 즐겁고 좋았을 겁니다.

그러니깐 누구나가 죽은 사람을 보든지 귀신을 보든지 선신을 보든지 놀라지 말고 항상 둘로 보지 말라 이겁니다. 내 안에서 나를 테스트해 보려고 환상으로 내보내는 작용이다 하는 것만 알면은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니깐 그 자리에다 도로 놔 버린다면 바로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들 하는데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이건 시험이다.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하고 그냥 거기다 놓으면은 아, 거기서 다 나오는 건데 어디 딴 데서 나옵니까? 그래서 '응, 네 의식 속에서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 속지 마라. 나오걸랑은 그 네 주인공에다 모두 일임을 해라.' 이런 걸 알아들으면 곧장 나아요.

그게 딴 데서 온 줄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의식 속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말이에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건데 딴 데서 귀신이 온 줄 알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귀신으로만 알아요. 그러니 상대가 되는데 문제가 안 생깁니까. 이 마음 안에 그냥 영가가 그냥 셋도 들어가 있고 그냥 둘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도 딴 데서 들어온 게 없이 '내 이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로구나.' 하고선 모든 걸 속지 말고 그냥 주인공에다 일임하고 '너만이 이 모두를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곤 그냥 모두 거기다 맡겨 놓으면은 다 편안할 거를…. 이해가 가십니까?

> 알고보면 하나도 나를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 나 아닌 나가 있으니까요.
> 나 아닌 나가 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일체 만법을 가지고 있고 일체 화현의 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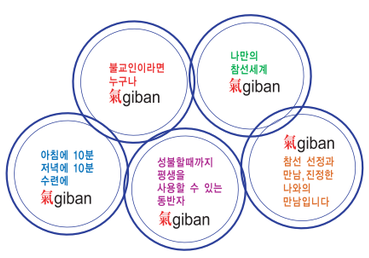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 30,800원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염주세트에는 주머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크기 : 직경 10mm

※염주세트에는 주머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불자 세상보기

카드 정보 유출, 남 탓말고 내 탓도



우승택
ST 生테크 연구소 대표이사
숭실대 PB학과 교수

우리 불교에 전해지는 여러 가르침 중에 사자와 개의 비유가 있다.

개에게 흙덩이를 던지면 개는 그 흙덩이를 쫓아가서 물어뜯는다고 한다. 반면에 사자에게 흙덩이를 던지면 사자는 흙덩이를 던진 사람에게 달려들어 그 사람을 문다. 최근 국민, 농협, 롯데 카드사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 사회가 매우 시끄럽다. 우리는 누구에게 달려들어야 하는 것인가? 카드사 인가? 아니면 한국 사회의 그 누구에게 달려들어야 하는 것인가?

항시 그러했듯이 사람들은 놀래고 화를 내고 카드사에 전화하고 카드 해지를 하기도 한다. 다른 한 편에서는 '그게 어제 오늘 일이냐? 이미 다 도둑 맞고, 팔아 먹고 ,유출돼 당하고 산지가 언제인데' 라면서 자포자기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지금부터다. 사실 대부분의 대한민국 성인 국민의 일반적 정보부터 민감한 신용 정보까지 모두 유출돼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들을 잇달아 내놓고는 있지만 국민의 불신은 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같은 사태가 계속 반복되게 하는 1등 주범은 정부나 카드사가 아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국회가 아니다. 이러한 사태의 제일 근본 원인은 '대한민국 국민' 이다. 그리고 그 국민 속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범인이 있다. 왜 그런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우리 불자들은 〈육조단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법신의 나' 와 '화신의 나' 와 '보신 · 응신의 나' 가 있어 '자성 3신' 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일체지의 우주 법계가 나 자신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법계의 살림살이를 보면 죄 없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카드 사태이후 가장 놀라고 가슴 아프고 당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아픈 순서대로 꼽으라면 1번이 국민이고, 2번이 카드사 사장이고, 3번이 대통령정도가 될 것이다. 카드 사태로 가장 상처받고 아픈 사람이 국민이라면 국민이 환자라는 것이다. 그 동안 처신을 잘못해서 몸과 마음을 고쳐야 하는 사람은 국민이다.

그런데 정부는 '2차 피해는 한 건도 없다' 라는 말을 하는 것 보면 최소한의 문제인식도 못하시는 것 같다. 문제인식을 못하는데 무슨 책임의식이 있겠는가. 그들이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답을 내려주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우리는 부처님의 두 번째 화살의 비유처럼 우리만 손해를 더 보게 된다는 뜻이다.

1차적인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카드 사용자의 가슴이 놀라고 화나고 아픈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국민의 책임이 아니다.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삶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카드 사용자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차적으로는 자기반성이 우선이다. 이후 '국민' 속에 숨어있는 교묘한 범인을 찾아서 처벌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국민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3개년 프로젝트를 세워서 국가가 부강해지고, 재원이 튼튼해져서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등을 점차 전부 새로운 포맷팅을 해서 새로운 정보유통체계를 만들어 화폐개혁으로 과거의 검은 돈이 유통되지 못하게 했듯이 이미 유통된 정보의 거래를 차단하고, 과거의 정보를 거래하는 자들을 색출해서 처벌해야 한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분별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정부와 카드사를 비난하면서도, 현찰을 가진 것이 없고 주머니에 돈이 없어 너무나 오랫동안 카드회사에서 가불해서 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져 그 언저리를 떠나지 못한다.

그래서 마치 부잣집 소작농처럼 아니면 중세의 농노계급처럼 카드사를 욕할 수도 없고 거래를 끊고 현찰을 사용할 수 없이 자포자기하고 살고 있다. 이러한 겉으로 들어나지 않는 국민들의 마음속 사태까지를 직시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자들이 이 문제를 푼다면 그들이 바로 보살들이고 화엄성중일 것이다. 험악한 인생살이 그리고 힘든 인생살이에서 우리를 보호해줄 신장님이 화현하시기를 바랄 뿐이다.

社說

승가 대학 특전, 시선끌기보다 내실을

최근 5년 동안 한국불교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곳은 승가교육 환경이다. '자비를 구현하고 사회와 역사에 부응하는 승가교육' 을 지향한 조계종 교육원은 기존 강원을 승가대학으로 변경하고 표준교과과정을 만들어 학인 스님들에게 표준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승가대학들이 2014년 신학기를 맞아 학인 스님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각종 장학혜택은 물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아이패드를 지급하거나 해외탐방 지원, 상급 학교 진학 등 특전을 앞 다퉈 제시하고 있다.

구족계 수지 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승가대학 재학 기간에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등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인근 대학과 연계하는 경우도 있고, 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졸업 후 공부를 이어가길 희망하는 스님들을 위해 해외 유수 대학과 연계해 진학을 돕는 학교도 있다. 이 같이 전국 승가대학들이 특전을 제공하면서까지 신 · 편입생들을 모집하는 것은 출가자 감소로 학인 스님들의 수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승가대학 운영령이 2009년 전면 개정됨에 따라 낙후되거나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기관들은 인가를 취소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불가피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과다 경쟁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교육 환경의 질적 성장을 이뤄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다양한 혜택을 통해 면학 환경을 개선하고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한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이다. 여기에 추가해야 할 것은 '시선끌기' 용 특전보다는 교육의 질로 승가교육을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들 교육은 '백년지대계' 라고 한다. 변화하는 승가교육이 가져다 줄 미래 한국불교에 거는 기대는 크다.

다문화 가정 보듬는 불교계 행사

우리 사회는 다문화가정 시대를 맞고 있다. 다문화가정은 20만 가구를 웃돌며 이들의 자녀만 15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국민 90명 중 1명은 다문화가정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아픔이 남아 있다. 많은 이들이 문화 간의 차이를 이해 못하고 편향적 시각으로 다문화 가정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차가운 시선과 차별에 멍들고, 부모가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로 자라나는 자녀들은 고개를 떨군다. 떳떳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이들이 왜 위축되어야 하는가.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 사회는 이들을 보듬어야 한다.

이런 현실에서 불교계가 새해를 맞아 1월 26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1층 홍보관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콘서트를 열어 박수를 받고 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이등병의 편지' 로 유명한 김현성과 인디밴드 '레드로우 밴드', 포크록 밴드 '레' 를 비롯해 템플스테이 홍보서포터즈들의 노래공연이 펼쳐졌다. 가수 김현성 씨는 관객들이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안도현 시인의 시 '연탄재' 에 가락을 넣은 곡과 '무소유의 노래(법정)' '이등병의 편지' '나룻배와 행인(한용운)' 를 감미로운 기타선율과 함께 선보여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음악회의 레퍼토리야 뭐든 간에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이 함께 모여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는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 더군다나 이런 장을 우리 불교계에서 마련했다는 것도 등을 두드려 줄만하다. 특히 설날이 다가오면 각자의 고향 생각이 나게 마련일텐데, 음악으로 이들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보듬어 준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앞으로도 명절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부처님의 동체대비 사상을 구현하고 이들을 껴안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마련했으면 한다.

발언대

자성과 쇄신결사 3주년에 부쳐

지난 1월 26일로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가 3주년을 맞았다. 이에 결사추진본부는 '사찰과 함께 사회 속으로' 를 기조로 '붓다로 살자' 를 실천 의지로 삼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3주년 맞은 결사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우리의 문제 무엇인지 진단부터



법응 스님
불교생명윤리협회 대표

자성과 쇄신은 한마디로 승려의 일상과 종단의 운영체계를 '본래의 의미' 대로 회복해 가는 불사다.

'본래의 의미' 를 회복한다 함은 승가가 세상에 지혜와 덕을 베푸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고 세상의 기득권과 가진 자들로 하여금 무소유와 보살행의 삶을 살도록 하는 일이다. 자성과 쇄신결사는 조계종과 한국불교의 위상과 미래에 관한 중대한 문제다. 구호와 깃발만을 세우는 자세에서 벗어나 상층부부터 솔선수범해서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 내야 한다. 시급한 것은 진행 주체의 어설픈 결론과 행동 이전에 우리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진단하는 일이다.

불자 지식인들 결사 동참나서야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

자성과 쇄신 결사의 요체는 '붓다로 살자' 에 있다. 각 시대마다 시대에 맞는 불타관이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붓다로 살자' 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불타관이다.

이제는 '붓다로 살자' 라는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종단 내부에 머물지 말고 대중과 적극적으로 호흡하는 결사가 돼야 한다.

불자 지식인들이 적극적으로 결사 운동에 동참해줄 것도 당부하고 싶다. 불자 지식인들은 무관심하거나 침묵 중이다. 이는 한국불교를 좀먹는 일이다. 결사가 문제가 있다면 반대의 목소리라도 내야 한다.

사회 속 불교 고유영역 확대 필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사회에는 종교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기 마련이다.

조계종이 결사 3주년을 맞아 '사찰과 함께 사회속으로' 라는 기조를 내걸며 사회적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불교가 하기에 의미있는 사회적 영역들이 분명 있다.

이를테면 환경, 인권, 국제, 자연 등으로 불교적 관심을 확대하면서 불교 나름의 고유 영역을 찾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종단이 의제를 설정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자들 또한 헌신하며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불교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래로부터 변화가 이뤄져야



한주영
불교여성개발원 사무처장

자성과 쇄진 결사추진본부가 '사찰과 함께 사회속으로' 라는 슬로건으로 내걸고 2014년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자성과 쇄신결사본부가 만들어진 배경은 승려도박사건이라는 내부 문제로부터 기인하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초기 야단법석에서 제기된 내부 정화에 대한 요구에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

자성과 쇄진 결사추진본부의 대사회적인 노력 덕분에 종단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따라줄 때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일선 사찰에서 사부대중의 변화와 창조적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2014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법어가 담긴 도자기 에코컵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 류	컵 종 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 낱개 5,000원 • 2개 SET 9,000원 • 3SET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